2016 성북문화 제4호
개원 20주년 기념 특집호

성북문화원 20년史

— 어제와 오늘 —

성북문화원
깊은멋·나눔·즐김

성북문화.indb 1 2016-12-11 오후 12:04:58

2016 성북문화 제4호
개원 20주년 기념 특집호

성북문화원 20년史 - 어제와 오늘 -

기　획 | 강성봉(성북문화원 사무국장)
집　필 | 박수진 · 백외준(성북문화원 향토사연구팀)
김정현 · 민문기(성북문화원 문화예술교육사업팀)
발행인 | 조태권(성북문화원장)
발행일 | 2016년 12월 19일
발행처 | 성북문화원 (www.isbcc.or.kr)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길 13-8
Tel 02-765-1611
Fax 02-765-1619
펴낸곳 | 학연문화사

비매품
ⓒ 2016 성북문화원
본 도서의 저작권 및 법적권리는 성북문화원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와 문서상 합의 없이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2016 성북문화 제4호
개원 20주년 기념 특집호

성북문화원 20년史

— 어제와 오늘 —

성북문화원
깊은멋·나눔·즐김

성북문화.indb 3 2016-12-11 오후 12:04:58

발간사 · 6

축사 · 8

축화 · 축시 · 축휘호 · 15

사진으로 보는 성북문화원의 20년 · 21

성북문화원 소개

성북문화원은? · 82
성북문화원 연혁 · 84
성북문화원 사무국 소개 · 86

성북문화원 20년 발자취

탄생기 (1대 구두회 원장 재임기) · 92
도약기 (2대 천신일 원장 재임기) · 105
발전기 (3대 조태권 원장 재임기) · 112
내일의 성북문화원 · 132

목 차

성북문화원 20년 성과

지역특화 문화사업 활성화 · 136
지역문화 네트워크 구축 · 150
향토사 연구 및 활용 · 154
문화원 체제 정비 · 174
문화원 수상내역 · 178

이야기로 듣는 성북문화원의 20년

천신일 - 2대 원장, 現 (주)세중그룹 회장 · 190
김영배 - 성북구청장 · 196
이은설 - 성북문화원 한문서예반 강사 · 208
이강한 - 성북문화원 회원, 스포츠댄스반 반장 · 214
변희정 - 전 직원, 現 Art&Culture Story 문밖세상 대표 · 220

2016 성북문화원 동향 · 233

부록 - 성북구의 역사 · 277

발 간 사

성북문화원이 어느덧 창립 20주년, 약관의 나이를 맞이했습니다. 먼저 오늘이 있기까지 성북문화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성북구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성북구는 성밖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화의 중심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성북은 역사시대 이래, 계속해서 역사와 문화의 한 자락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내에 성북구만큼 고려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지역은 많지 않습니다.

한용운, 이육사, 정지용, 이태준, 김환기, 전형필 등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수많은 역사 속 인물들이 서로 교류하며 성북과 인연을 맺고 살았습니다. 유명인들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우리가 그렇듯, 평범한 사람들이 치열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나갔던 흔적도 성북구에는 여기저기 남아 있습니다.

성북문화원은 지난 20년간 바로 그들의 이야기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선조들이 남긴 문화유산을 정리하고, 사람들이 살았던 이야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고민하였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북구 사람들의 이야기로 공연을 만들고, 노래를 만들고, 전시를 열었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사 다례재', '선잠제향', '4.19혁명 기념식' 등의 행사와 발간한 다양한 책자, 그리고 성북의 역사자원을 소재로 한 공연들은 성북문화원이 그동안 해온 노력을 보여주는 성과들입니다.

성북문화.indb 6 2016-12-11 오후 12:04:58

성북에는 아직도 수많은 역사 · 문화 자원과,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성북문화원은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그들의 이야기를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역사 · 문화 자원의 수집 · 정리와 콘텐츠 개발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20년, 참 오랜 세월이 지난 것 같지만 이제 막 갓을 쓸 수 있다는 약관의 나이입니다. 스무살은 그간의 경험으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나이입니다. 성북문화원도 청년의 패기로 성북의 문화발전의 새 길을 열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성북문화원의 주인은 성북구민입니다. 성북구민의 사랑이 없었다면 성북문화원이 20년의 건장한 젊은이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성북구민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화는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도 전통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성북문화원은 더욱 주민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성북구의 문화, 나아가 대한민국의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북문화원장 **조 태 권**

성북문화.indb 7 2016-12-11 오후 12:04:58

축 사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양도성 북부지역의 역사·문화를 보존·발전시키고 지역사회의 문화 전반을 주관해 온 성북문화원의 개원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성북문화원의 이사, 감사로써 문화원 사업에 함께 하였던 저는 성북문화원이 어느덧 20주년을 맞이하였다고 하니 감회가 더 깊습니다. 아울러 그간의 발자취와 성북문화원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성북문화원 20년史』를 발간하게 되었다고 하니 먼저 큰 박수를 올립니다. 특별히, 성북구 역사문화의 자긍심과 함께 역대 원장님, 절대적인 지원을 보내신 이사님들, 주민과 지역의 조화로운 생활에 열정으로 노력해 오신 조태권 원장님을 비롯한 성북문화원의 임직원 및 관계자 분들, 그리고 성북문화원 20년이라는 유구한 역사의 주축이 되어준 지역 주민 및 참여·활동가 여러분들께도 더 없이 감사드립니다.

조선 시대부터 요체를 형성해왔던 성북구의 특징을 살려, 지난 20년간 성북문화원은 전통문화와 역사 보전을 위한 향토사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과 발간, 구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지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문화행사도 개최하며 지역문화 창달과 성북구 역사를 보존 및 계승하는데 정성을 다 해왔습니다.

성북구는 약 100여 개의 지정문화재, 국보, 보물, 사적, 중요문화재 등이 소재해 있기 때문에 지역을 중심으로 한 창의적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활용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북문화원의 오랜 노고와 의지를 통해 이룩한 현재의 성과들은 미래 성북구 문화발전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성북구의 성북문화원이 전국문화원과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전국 문화원을 대한민국의 중요한 문화기반시설로 발전시켜가는 선도기관으로 우뚝 서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지금까지 성북문화원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과 함께 한 해 마무리의 평안과 새해의 밝은 빛이 더 따스하고 밝아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문화재청장 나 선 화

성북문화.indb 8 2016-12-11 오후 12:04:59

축 사

성북구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를 거쳐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유산이 남아 있는 유서 깊은 곳입니다. 성북구에 거주하거나 성북구와 인연을 맺었던 독립지사와 문화 · 예술인들은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성북구에 이렇게 다양한 역사 · 문화자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성북문화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북문화원은 창립과 동시에 성북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북구 역사와 문화의 깊이와 너비가 확장 될 수 있던 것은 성북문화원의 노력 덕분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북문화원 20년의 의미는 성북문화원 뿐만 아니라 성북구민 전체에도 의미가 깊습니다.

최근 성북문화원은 더욱 활발하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지사와 문화 · 예술 인물을 발굴하였습니다. 나아가 문화유산, 역사 인물과 걸맞는 콘텐츠를 다양하게 제작하였습니다. 성북문화원에서 기획한 뮤지컬 '심우'는 점차 성북을 넘어 전국적으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성북구는 물론 전국적으로 성북의 문화유산과 인물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년을 그래왔듯 앞으로도 성북문화원이 성북구 역사 · 문화 발전에 큰 공헌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성북문화원을 만들고 지켜왔던 모든 임직원들에게 깊은 경의와 감사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성북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북구청장 김 영 배

성북문화.indb 9 2016-12-11 오후 12:05:00

축 사

지난 20년간 성북구의 역사와 문화 발전에 앞장선, 성북문화원의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조태권 성북문화원장님을 비롯한 전 · 현직 임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1996년 개원한 성북문화원은 우리 성북의 지역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문화 강좌개설을 통해 우리 지역 전통문화의 계승 · 발전에 앞장섰으며, 각종 장학 사업을 통해 우리 이웃의 희망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성북문화원에서 발간한 다양한 책자는 성북구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자료이고 성북구의 훌륭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성북문화원의 이러한 성과는 주민과 함께 해 온 것이기에 더욱 뜻 깊다 하겠습니다. 늘 주민의 삶 속에서 함께 호흡한 성북문화원은 이제 어디서나 환영 받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성북문화원의 미래도 지난 20년처럼 주민과 함께 울고, 웃으며 더불어 성장하길 바랍니다.

20년 동안 성북의 문화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어오신 전·현직 임직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드리며, 성북문화원의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성북구의회 의장 정 형 진

성북문화.indb 10 2016-12-11 오후 12:05:00

축 사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성북문화원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때보다도 추운 이 겨울, 성북문화원이 20주년을 맞이하였다는 소식을 들으니 반갑고 또 흐뭇하여 마음 한 켠이 따뜻해집니다.

20년이란 햇수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지난 90년대말 우리 국민은 IMF 외환위기로부터 시작된 국가적 환난 속에서 유례 없이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형편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은 취업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중년들 역시 노후와 자식 걱정으로 무거운 짐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 향유의 확대나 예술 창작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북문화원의 지난 20년은 이와 같이 막막한 조건 속에서도 "지역문화의 진흥"이라는 부동의 목표를 향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모로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성북문화원은 우리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과 전통을 발굴하여, 이를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나가는 일을 꿋꿋이 해왔습니다. 힘든 고비도 여러 번 있었을 텐데 20년 동안 한결 같이 지역문화의 수호자와 문화 전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북문화원의 임직원 여러분의 한결 같은 끈기와 뚝심 덕분이었습니다. 이에 깊은 감사와 경애의 마음을 담아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춥고 어려운 시절이 금방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성북구민은 우리 고장이 간직한 위대한 역사문화적 전통을 되돌아보며 더욱 깨어있고 향기 높은 생활을 꾸려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성북문화원의 역할이 넓고 큽니다. 건투와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북구 갑 국회의원 유 승 희

성북문화.indb 11 2016-12-11 오후 12:05:01

축 사

차갑지만 높고 투명한 하늘이 우리 국민들의 맑은 심성과 위대한 의지처럼 다가오는 12월입니다. 이런 날 들려오는 성북문화원의 20주년 소식은 우리의 보금자리 성북구에서 맞이하는 세밑을 한결 포근하게 만들어 줍니다.

대도시 서울의 한 조각으로서 단조로운 외관을 띤 우리 구이지만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역사와 문화의 향기는 그 어느 지역보다 깊고 진합니다. 한양도성과 선잠단지를 비롯하여 정릉, 의릉과 같은 조선시대 유적들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이 땅의 유구한 역사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북동에 자리하고 있는 만해 한용운 선생의 심우장과 이육사 시인이 종암동에 남긴 '청포도'의 진한 향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민족 독립과 평화통일의 아름다운 꿈을 기억케 합니다.

이러한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적 전통을 새롭게 발굴, 재해석하고 널리 알리는데 성북문화원의 역할은 단연 컸습니다. '만해 한용운 다례재'와 '선잠제향'과 같은 뜻 깊은 행사에서부터 다양한 분야의 향토사 책자의 발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성북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한층 넓혀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문화의 폭넓은 힘을 믿고, 그 보람에 기뻐하며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성북문화원 임직원과 회원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전히 성북문화원에 기대하는 역할은 큽니다. 앞으로도 문화원이 맡고 챙겨야 할 일이 많습니다. 백범의 말씀처럼 '높은 문화의 힘'으로 행복한 성북구를 만들어 가는 일에 성북문화원이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북구 을 국회의원 기 동 민

성북문화.indb 12 2016-12-11 오후 12:05:01

축 사

성북문화원 개원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성북구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조태권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996년 12월 19일에 설립된 성북문화원은 20년이라는 세월동안 성북구민들을 위한 작은 휴식처로써 또한 성북구의 지역 문화 지킴이로써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이제는 성북구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현대사회는 그 이전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옛것은 우리사회의 근본임에도 불구하고 쉬이 간과되고는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문화유산에 더욱 더 관심을 쏟고 정성들여서 가꾸어 나가야만 할 뿐 아니라, 후손에게 올바로 전하는 것은 중요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경과 시대 속에서 지방문화원은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문화원이 저마다 각 지역의 문화 거점으로써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때 비로소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문화의 향기가 넘쳐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성북문화원은 올해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한 대한민국문화원상 종합경영부문 우수상과 향토사 활용부문 수상을 하였습니다. 축하와 더불어, 앞으로의 20년을 내다보는 큰 걸음을 기대합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 이 경 동

성북문화.indb 13 2016-12-11 오후 12:05:02

축 사

성북문화원 개원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역 문화예술 창달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매진하시는 조태권 성북문화원장님과 문화원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성북문화원이 2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성북구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북문화원은 성북구 지역주민들과 함께 성장해왔으며 앞으로도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동반자입니다.

20년의 세월동안 늘 같은 자리에서 성북구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성북문화원에 많은 축하와 격려말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성북문화원은 성북구민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그 동안 성북문화원은 지역의 중심 문화기관으로서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각종 문화강좌와 문화 행사 등을 개최하여 지역 주민으로부터 많은 성원을 받았으며 한편으로는 향토사료 연구조사 등으로 지역의 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에 앞장 서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과에 힘입어 올해 성북문화원은 「대한민국 문화원상」 지역문화 창달분야 향토사 부문 1위, 종합경영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성북문화원은 서울시 지방문화원 중에서도 으뜸가는 성과를 자랑하고 있으며 성북구 문화 발전의 중심축으로 제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북문화원의 발전이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의 귀중한 토대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성북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시문화원연합회장 김 태 웅

성북문화.indb 14 2016-12-11 오후 12:05:02

축 화

김용현, 〈無休(무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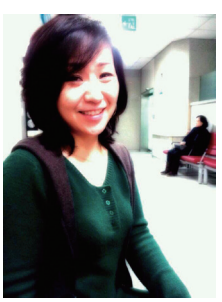
도선(道禪) 김 용 현

- 수원대 조형예술대학원 동양화 졸업
- 세종문화회관, 서울미술관, 한국미술관 등 개인전 9회
- 한국예술총회총연합회 문화공로상
- 일본 신원전 국제공모 최우수 그랑프리 상
- 우즈베키스탄 문화성 장관상
- 고려대 교육대학원, 한성대 예술대학 출강
- 중국 길림 서화 함수대학 명예교수
- 도우제 지도교수 및 한국전통문화예술원 원장
- 서울 미술협회 이사
- 現 성북문화원 사군자 강좌 출강

성북문화.indb 15 2016-12-11 오후 12:05:10

축 화

김혜경, 〈내 안의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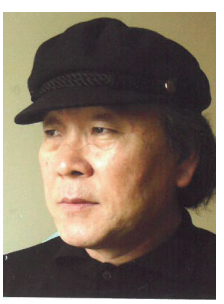
김 혜 경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졸업
- 경남여성작가공모전 우수상
- 한전대전 동상
-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
- 그룹전 : 형과색展, 소성회展, 한국회화의 위상展, 자연동인회展 등 다수
- 개인전 : 개인전(갤러리수), 개인부스전(setec), 개인전(경인미술관) 3회
- 現 한국미협 대한민국현대인물화가회 자연동인
- 現 성북문화원 기초소묘에서 유화까지, 유화로 그리는 인물화 강좌 출강

성북문화.indb 16 2016-12-11 오후 12:05:12

축 화

문봉선, 〈외딴 집〉



호암(虎岩) 문 봉 선

-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학 전공
-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 및 운영위원 역임
- 전라남도 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 목우회 공모 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 서귀포박물관 소장
- 진주박물관 소장
- 現 한국미술협회 자문위원
- 現 성북문화원 수묵산수화 강좌 출강

축사.indd 17 2016-12-12 오전 9:54:32

축 시

희망의 북소리 (성북문화원 이십 주년을 축하하며)

이 애 진

문화원 마당 한 켠 오래된 벤치 위에
노랗게 쌓인 은행잎이 눈물겹도록 아름답습니다
겨울을 재촉하는 바람이 은행잎을 몰아가면
그 벤치위에 하얀 눈이 소복이 내려 쌓이고
얼었던 마음도 설레임으로 녹아내릴 테지요

문화원 오르는 언덕길 축대 틈 사이
끈질긴 생명을 이어가던 어린 뽕나무에선
두해 째 제법 열매도 대여섯 알갱이 열려
검붉게 익었더랬죠

열정으로 이어온 성북문화원 이십년 세월
문화원의 표상으로 우뚝 솟아 맺은 결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축하의 환호소리에
상상의 깃발 힘차게 펄럭이고
반짝이며 춤추듯 떨어지는 고운단풍
마르지 않는 성북천 물길위에
대망의 꿈을 실어 배를 띄웁니다

둥둥 울려 퍼지는 희망의 북소리
길이 빛날 자랑스러운 성북문화원호를
끝없이 넓은 문화의 바다를 향해….

성운(星雲) 이 애 진

- KBS라디오 주최 전국 시낭송대회 대상
- 서울시 주최 주부백일장 시낭송 대회 최우수상
- 재능문화 한국일보사주최 전국어머니회 시낭송대회 최우수상
- 인천 방송 라이브파크 명시낭송 고정 출연
- 문학시대 시(詩)부문 신인상 수상
- 중앙 배우학원 연기강사
- 한국 어린이 문화예술원 동화구연가 인정서
- 現 한국시인협회 총무간사
- 現 성북문화원 시낭송가 양성과정 출강

성북문화.indb 18 2016-12-11 오후 12:05:14

축 휘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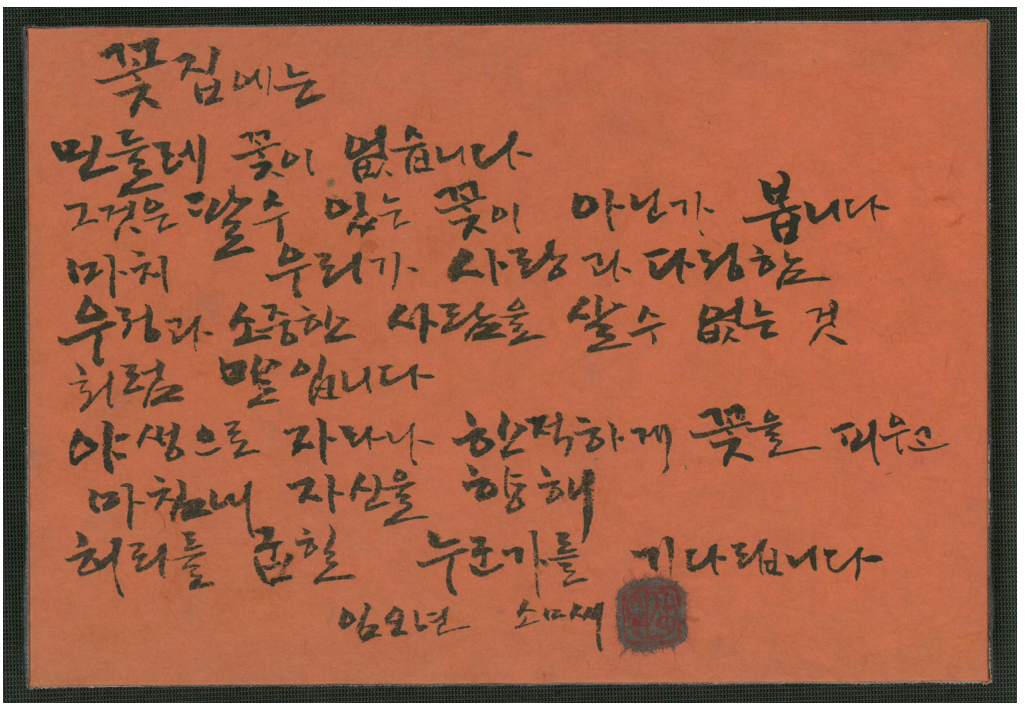
이은설, 〈문화창달〉

나헌(蘿峴) 이 은 설

-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예부문 초대작가
-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예부문 심사위원
- 건국대학교 사회 교육원 강사 역임
- 한국미술 2000년대의 주역들 초대전, 한글서예의 오늘과 내일展 외 다수
- 동아일보 동방연서회 전국학생휘호대회 대학부 지도교사상 수상
- 現 한국전각학회, 근묵서화회 회원
- 現 MBC문화센터, 예술의 전당 등 출강
- 現 성북문화원 한문서예 강좌 출강

성북문화.indb 19 2016-12-11 오후 12:05:16

축 휘 호



장지현, 〈꽃집에는〉

장 지 현

-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 서예대전 특선
- KBS 휘호대회 입선 및 특성
- KBS 문화센터 서예강좌 운영
- 現 성북문화원 한글서예 강좌 출강

성북문화.indb 20 2016-12-11 오후 12:05:17

사진으로 보는
성북문화원의 20년

성북문화.indb 21 2016-12-11 오후 12:05:17

성북문화원 설립을 위한 간담회 (1996. 6. 7)

성북문화원 창립총회(1996. 10. 16)

성북문화.indb 22 2016-12-11 오후 12:05:18

성북문화원 창립총회 (1996. 10. 16)

성북문화원 개원식 (1996. 12. 19)

성북문화.indb 23 2016-12-11 오후 12:05:20

성북문화원 개원식 (1996. 12. 19)

성북문화원 개원식 (1996. 12. 19)

성북문화.indb 24 2016-12-11 오후 12:05:21

성북문화원 개원식

왼쪽부터 李秀洪 具斗會 陳英浩 鄭寬鉉 李東燦 安秉鈞씨.

河泰元기자

지역고유문화 개발과 향토사연구 등을 펼쳐나갈 「성북문화원」 개원식이 19일 오후 서울 성북구 옛 동소문동청사에서 열렸다. 회원은 성북구출신 기업인을 주축으로 구성됐다.

문화원장으로 선임된 具斗會(구두회·LG그룹 창업고문)씨는 『이를 계기로 성북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고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임에는 鄭寬鉉(정관현)삼화그룹회장 朴容晟(박용성)두산그룹부회장 安秉鈞(안병균)나산그룹회장 延萬熙(연만희)유한양행이사장 南忠祐(남충우)타워호텔사장 柳在乾(유재건)국회의원 閔丙天(민병천)서경대총장 朴喜宅(박희택)범양건영회장 沈鐘稷(심종직)미덕건설회장 李東燦(이동찬)코오롱그룹명예회장 李義淳(이의순)세방그룹회장 徐世鈺(서세옥)서울대명예교수 朱權源(주근원)동부화재상임고문 崔英洙(최영수)북부케이블사장 陳英浩(진영호)성북구청장 李秀洪(이수홍)전국문화원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언론보도 '성북문화원 개원식' (『동아일보』, 1996. 12. 20)

성북문화원 관내 有志들 거액 쾌척

68명출연…내달 본격활동

구두회씨

정관현씨

지난해말 관내 유지들이 발기인 대회를 갖고 개원한 성북문화원(원장 具斗會 LG그룹 창업고문)에 원장및 고문들의 기금 출연이 잇따르고 있어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예상된다。

최근 원장단 간담회에서 具원장이 2억원을 쳐음 출연한데 이어 鄭寬鉉 부원장(삼화그룹 회장)이 1억원을 출연했다。

또 千信一 부원장(세종여행사 회장)이 5천만원의 기금을 출연했으며 고문들도 조만간 기금을 출연하겠다는 의사를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성북문화원에는 재벌그룹 회장 등 68명의 관내 거주 유지들이 원장단및 고문·임원을 맡고 있어 이달말까지 이들의 기금출연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동소문동사무소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한 문화원측은 총 30억원의 기금을 마련한 뒤 오는 5월에 성북문화축제를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각종 문화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이달중순부터 주부 상대의 서예·꽃꽂이·영어회화 등 각종 문화강좌도 열 계획이다。

<姜升圭기자>

언론보도 '성북문화원, 관내 有志들 거액 쾌척' (『경향신문』, 1997. 3. 6)

성북문화.indb 25 2016-12-11 오후 12:05:22

제1기 문화강좌 개강식 (1997. 4. 1)

제2기 문화강좌 개강식 (1997. 7. 4)

성북문화.indb 26 2016-12-11 오후 12:05:24

'98 성북문화원 장학금 수여식 (1998. 3. 30)

누에 풍요비는 '선잠제' 봉행

성북동 선잠단지서

성북구와 성북문화원은 누에치기의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고려시대부터 지내온 선잠제(사진)를 16일 오전 11시 사적83호로 지정된 성북동 선잠단지에서 올린다. 선잠제는 농사와 누에치기를 중요시해 왕이 농사를 짓고 왕비는 누에치기의 풍요를 기원하는 국가적인 의식으로 매년 음력 3월에 올려졌다. 선잠제는 조선 정종 2년(1400년) 3월 시작됐다 일제에 의해 1908년 중단된 것을 성북구가 고증과 자문을 거쳐 93년 재현해 올해 6회째를 맞는다. 권혁철 기자

언론보도 '누에 풍요비는 '선잠제' 봉행' (「한겨레」, 1998. 4. 15)

성북문화.indb 27 2016-12-11 오후 12:05:25

성북문화원 임원진과 문화강좌 수강생들 단체사진 (1998. 9. 1)

성북문화원 문화강좌 한문서예반 (1999. 1. 5)

성북문화.indb 28 2016-12-11 오후 12:05:27

'99 성북문화원 장학금 수여식 (1999. 4. 30)

성북문화원 개원 3주년 기념 '99 성북문화학교 예술제 (1999. 12. 16)

성북문화.indb 29 2016-12-11 오후 12:05:28

성북문화원 개원 3주년 기념 '99 성북문화학교 예술제 (1999. 12. 16)

2001 성북문화원 정기총회 (2001. 4. 3)

성북문화.indb 30 2016-12-11 오후 12:05:30

성북문화원 개원 5주년 기념 2001 성북문화원 예술제 (2001. 12. 18)

성북문화원 개원 5주년 기념 2001 성북문화원 예술제 (2001. 12. 18)

성북문화.indb 31 2016-12-11 오후 12:05:31

성북문화원 가족 한마당 축제 (2005. 11. 22)

성북문화원 가족 한마당 축제 (2005. 11. 22)

성북문화.indb 32 2016-12-11 오후 12:05:32

▲성북문화원 사무국장 공개채용

○…서울 성북구는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성북문화원 사무국장을 공개 채용하기로 하고 오는 21일까지 응모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거주지, 학력 등 제한은 없으며, 1950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로 인문, 역사, 교육 등 관련 전공자나, 교사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문화예술단체나 기관에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자에 대해서는 채용시 우대할 계획이다.

고용조건은 연봉 2000만원 외에 성과금과 수당, 퇴직금이 지급되며, 3년 고용계약 체결로 신분을 보장하고 사회보험 및 연금가입, 재교육 프로그램 및 해외연수 등 특전도 주어진다.

지원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와, 해당자는 학위증명, 경력증명,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응모 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성북문화원과 성북구청 문화체육홍보과에서 한다. 우편접수시 마감일 소인처리분 까지 유효하다.

자세한 사항은 성북문화원(02-765-1611, 성북구 동소문동1가 1번지)이나 문화체육홍보과(02-920-3053, 성북구 삼선동5가 400-1)로 문의하면 된다.

언론보도 '성북문화원 사무국장 공개채용' (「뉴시스」, 2006. 11. 16)

언론보도 '수묵산수화 체험하는 시민들' (「뉴시스」, 2007. 10. 1)

성북문화.indb 33 2016-12-11 오후 12:05:33

성북문화원 인터넷 교실 (2008. 3)

성북문화가족 작품 전시회 (2008. 12)

성북문화.indb 34 2016-12-11 오후 12:05:34

2009 성북문화원 정기총회 (2009. 3. 26)

2009 성북문화원 정기총회 (2009. 3. 26)

성북문화.indb 35 2016-12-11 오후 12:05:36

성북문화원 정회원 역사문화탐방 '안동하회마을' (2009. 5. 13)

성북문화원 정회원 역사문화탐방 '안동하회마을' (2009. 5. 13)

성북문화.indb 36 2016-12-11 오후 12:05:38

만해 한용운 선사 65주기 추모 다례재 (2009. 6. 29)

만해 한용운 선사 65주기 추모 다례재 (2009. 6. 29)

성북문화.indb 37 2016-12-11 오후 12:05:40

성북문화원 정회원 역사문화탐방 '강원도 영월' (2009. 9. 23)

제3회 만해예술제 (2009. 10. 30)

성북문화.indb 38 2016-12-11 오후 12:05:42

2009 서울문화가족 제1회 길쌈 경연대회 (2009. 11. 30)

2010 성북문화원 정기총회 (2010. 3. 9)

성북문화.indb 39 2016-12-11 오후 12:05:43

성북문화원 정회원 역사문화탐방 '충북 단양' (2010. 5. 27)

제1회 성북문화원 창작시공모전 시상식 · 시 낭송회 (2010. 6. 10)

성북문화.indb 40 2016-12-11 오후 12:05:45

지적 · 자폐성 장애청소년을 위한 서예치료교실 내 마음의 놀이터 (2010. 6. 8)

2010 나눔이 있는 어르신 연극교실 "희喜낙樂"(2010. 7. 05)

성북문화.indb 41 2016-12-11 오후 12:05:47

2010 성북천 깃발전 '성북천에서 통하다' (2010. 10. 8)

2010 성북문화가족 어울마당 축제 (2010. 10. 14)

성북문화.indb 42 2016-12-11 오후 12:06:00

2011 성북문화원 정기총회 (2011. 4. 6)

만해 한용운 선사 67주기 추모 다례재 (2011. 6. 10)

성북문화.indb 43 2016-12-11 오후 12:06:01

초등학생을 위한 빨주노초파남보 다문화 이야기 (2011. 8. 10)

제2회 성북 아트마켓 Funfun해! (2011. 9. 24)

성북문화.indb 44 2016-12-11 오후 12:06:03

성북문화원 정회원 역사문화탐방 '경북 문경' (2011. 9. 30)

2011 나눔이 있는 어르신 연극교실 "희喜낙樂" (2011. 10. 14)

성북문화.indb 45 2016-12-11 오후 12:06:05

2012 성북문화원 정기총회 (2012. 4. 5)

2012 성북천 깃발전 '팔랑거리는 상상전' (2012. 5. 12)

성북문화.indb 46 2016-12-11 오후 12:06:06

제 20회 선잠제향 (2012. 5. 20)

성북문화원 정회원 역사문화탐방 '강원도 정선' (2012. 5. 30)

성북문화.indb 47 2016-12-11 오후 12:06:08

만해 한용운 선사 68주기 추모 다례재 (2012. 6. 28)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우리는 초록별 친구' (2012. 7. 19)

성북문화.indb 48 2016-12-11 오후 12:06:10

어르신 우리동네 역사문화유산 답사동아리 "길따라 발길따라" (2012. 9. 14)

성북문화원 정회원 역사문화탐방 '경기도 파주' (2012. 9. 25)

성북문화.indb 49 2016-12-11 오후 12:06:12

2012 나눔이 있는 어르신 연극교실 “희喜낙樂” (2012. 10. 28)

2012 성북문화가족 어울마당 축제 “지금은 성북스타일” (2012. 11. 9)

성북문화.indb 50 2016-12-11 오후 12:06:13

2012 향토사대중화사업 '앞으로 빛날 나날' - 창작뮤지컬 '꿈을 꾸는 아이들' (2012. 12. 14)

2013 성북문화원 정기총회 (2013. 2. 27)

성북문화.indb 51 2016-12-11 오후 12:06:15

어르신 수묵산수화 동아리 '영묵회(永墨會)' (2013. 5. 7)

2013 성북문화원 역사문화특강 (2013. 5. 6)

성북문화.indb 52 2016-12-11 오후 12:06:16

2013 서울문화가족 서예 및 사군자 경연대회 (2013. 5. 8)

제 21회 선잠제향 (2013. 5. 12)

성북문화.indb 53 2016-12-11 오후 12:06:18

성북문화원 정회원 역사문화탐방 '경북 영주' (2013. 5. 28)

2013 성북천 깃발전 '팔랑거리는 상상전' (2013. 6. 20)

성북문화.indb 54 2016-12-11 오후 12:06:20

만해 한용운 선사 69주기 추모 다례재 (2013. 6. 29)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우리는 초록별 친구' (2013. 8. 18)

성북문화.indb 55 2016-12-11 오후 12:06:21

2013 성북문화가족 어울마당 축제 '성밖세상 이야기' (2013. 10. 12)

2013 성북천 깃발전 '먹내음 가득한 성북천' (2013. 10. 18)

성북문화.indb 56 2016-12-11 오후 12:06:23

2013 나눔이 있는 어르신 연극교실 “희喜낙樂” (2013. 10. 21)

성북문화원 정회원 역사문화탐방 ‘전북 고창’ (2013. 10. 29)

성북문화.indb 57 2016-12-11 오후 12:06:24

어린이 역사문화탐방 (2013. 11. 9)

2013 향토사대중화사업 '앞으로 빛날 나날' - 창작뮤지컬 '약속' (2013. 12. 14)

성북문화.indb 58 2016-12-11 오후 12:06:26

2014 성북문화원 정기총회 (2014. 2. 27)

2014 문화유산 방문교육 (2014. 4. 15)

성북문화.indb 59 2016-12-11 오후 12:06:28

어르신 스포츠댄스 동아리 'Dancing with the Silverstars' (2014. 5. 15)

성북문화원 정회원 역사문화탐방 '강화도' (2014. 5. 27)

성북문화.indb 60 2016-12-11 오후 12:06:30

2014 성북천 깃발전 '팔랑거리는 상상전' (2014. 6. 20)

만해 한용운 선사 70주기 추모 다례재 (2014. 6. 29)

성북문화.indb 61 2016-12-11 오후 12:06:31

2014 나눔이 있는 어르신 연극교실 “희홈낙樂” (2014. 7. 21)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우리는 초록별 친구’ (2014. 8. 30)

성북문화.indb 62 2016-12-11 오후 12:06:33

2014 성북천 깃발전 '먹내음 가득한 성북천' (2014. 10. 2)

2014 성북구 복지&봉사 한마당 (2014. 10. 2)

성북문화.indb 63 2016-12-11 오후 12:06:35

2014 성북문화가족 어울마당 축제 '풍류 한마당' (2014. 10. 18)

성북문화원 정회원 역사문화탐방 '충남 공주' (2014. 10. 28)

성북문화.indb 64 2016-12-11 오후 12:06:37

「선잠제향의 어제와 오늘」 학술회의 (2014. 11. 7)

성북구 역사 리더십 캠프 (2014. 11. 12~13)

성북문화.indb 65 2016-12-11 오후 12:06:38

거리극 '특별한 손님' (2014. 11. 22)

『성북문예』 제 2호 발간식 (2014. 12. 5)

성북문화.indb 66 2016-12-11 오후 12:06:40

2014 향토사대중화사업 '앞으로 빛날 나날' - 창작뮤지컬 '시간을 달리는 소녀' (2014. 12. 16)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 예절교실 (2014. 12. 29)

성북문화.indb 67 2016-12-11 오후 12:06:42

2015 성북문화원 정기총회 (2015. 2. 27)

4 · 19혁명 55주년 기념 공연이 있는 학술회의「성북, 4 · 19혁명의 북을 울리다」(2015. 4. 18)

성북문화.indb 68 2016-12-11 오후 12:06:44

인문학으로 보는 동아시아 특강 (2015. 4. 21)

제 22회 선잠제향 (2015. 5. 17)

성북문화.indb 69 2016-12-11 오후 12:06:45

2015 성북문화 아카데미 (2015. 5. 21)

성북문화원 정회원 역사문화탐방 '충남 예산 · 서산' (2015. 5. 28)

성북문화.indb 70 2016-12-11 오후 12:06:46

광복70주년 기념 성북구 평화통일 예술제 (2015. 6. 4)

만해 한용운 선사 71주기 추모 다례재 (2015. 6. 29)

성북문화.indb 71 2016-12-11 오후 12:06:48

성북구 스토리텔링 특강 '성북구와 삼선동 이야기' (2015. 7. 2)

2015 성북천 깃발전 '팔랑거리는 상상전' (2015. 7. 14)

성북문화.indb 72 2016-12-11 오후 12:06:50

『한양도성 역사산책』 출판 기념 저자 강연회 (2015. 8. 5)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우리는 초록별 친구' (2015. 8. 12)

성북문화.indb 73 2016-12-11 오후 12:06:51

광복 70주년 기념 토크콘서트 "성북의 독립운동가를 말하다" (2015. 8. 15)

2015 서울문화가족 서예 · 사군자 대회 (2015. 9. 15)

성북문화.indb 74 2016-12-11 오후 12:06:52

2015 성북천 깃발전 '먹내음 가득한 성북천' (2015. 9. 18)

「성북동 - 오래된 미래」 토크콘서트 (2015. 10. 17)

성북문화.indb 75 2016-12-11 오후 12:06:54

2015 서울시 문화원 엑스포 (2015. 10. 22)

제 1회 성북골목극장 상영회 (2015. 10. 23)

성북문화.indb 76 2016-12-11 오후 12:06:55

2015 성북문화가족 어울마당 축제 (2015. 10. 24)

성북문화원 정회원 역사문화탐방 '경기 여주 · 이천' (2015. 10. 29)

성북문화.indb 77 2016-12-11 오후 12:06:56

2015 나눔이 있는 어르신 연극교실 “희喜낙樂” (2015. 11. 2)

「6 · 25 전쟁과 미아리고개」 학술회의 (2015. 11. 6)

성북문화.indb 78 2016-12-11 오후 12:06:58

"작은 사랑이 세상을 깨웁니다"정각사와 함께하는 아픈 어린이 돕기 (2015. 12. 13)

성북문화.indb 79 2016-12-11 오후 12:06:59

성북문화원 소개

성북문화.indb 81 2016-12-11 오후 12:06:59

성북문화원은 1996년 12월 19일 옛 동소문동 주민센터 건물에서 개원했다. 당시 성북동에 거주하는 수많은 경제인이 참여하여 제2의 전경련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초대 원장은 LG그룹 구두회 창업고문이다. 구두회 원장 당시 성북문화원은 성북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책자들을 발간하고, 장학 사업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성북문화원의 존재를 구민들에게 알렸다.

제2대 원장은 천실일 ㈜세중 회장이다. 천신일 원장은 구두회 원장이 펼친 주요 사업들을 지역에 안착시켰다. 여기에 더하여 선잠제향, 만해 한용운 선사 다례재 등 지역의 중요한 문화 행사들을 주관하며 지역문화 창달이라는 문화원 본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제3대 원장은 현 조태권 ㈜광주요 회장이다. 조태권 원장은 그간의 업적을 바탕으로 전국 대표 문화원으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중이다. 현재 성북문화원은 조직을 정비하고 지역의 역사・문화 자료를 발굴・정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활발히 사용하고 있다.

2016년 현재 성북문화원 임원은 원장 1명, 부원장 2명, 이사 12명, 운영위원 4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 문화예술교육팀 2명, 향토사연구팀 2명,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36개의 문화강좌가 개설되어 연 2,300여명이 수강하고 있다.

성북문화.indb 82 2016-12-11 오후 12:06:59

01

성북문화원은?

02

성북문화원 연혁

1995	• 07. 12 성북문화원 설립(지원 · 육성)계획 (성북구청장 방침 제1477호)
1996	• 10. 07 창립총회 회의(성북구청장 방침 제 1595호) • 12. 02 개원 지원 계획(성북구청장 방침 제 1968호) • 12. 19 성북문화원 정식 개원 1대 구두회 원장 취임 • 12. 30 성북문화원 인가 (인가번호: 제 424호)
1997	• 향토성북 1호『성북의 문화재』발간 • 비영리법인 설립등기 (등기번호: 제 483호) • 사업자등록 (고유번호등록)
1998	• 향토성북 2호『사연이 깃든 성북의 유래』발간 • 선잠제향 ·다문화축제 개최 (매년)
1999	• 성북문화학교 예술제 개최 (매년)
2000	• 성북문화원 역사문화 탐방 (매년)
2003	• 향토성북 3호『先蠶祭의 歷史와 儀禮』발간
2004	• 성북문화학교 예술제, 성북문화가족 한마당 발표회로 명칭 변경
2005	• 2대 천신일 원장 취임
2007	• 성북문화원 홈페이지 구축 • “깊은 멋, 나눔, 즐김이 있는 열린 문화공간” 슬로건 제작
2008	• 다문화축제 개최 (매년) • 만해 한용운 선사 추모 다례재 개최 (매년)
2009	• 3대 조태권 원장 취임 • 서울문화가족 서예 · 사군자경연대회 - 사군자반 대상 수상 • 전국성북사진공모전 개최 (매년) • 서울문화가족 국악 · 무용경연대회- 한국무용반 대상 수상 • 성북문화가족 한마당 발표회, 성북문화가족 어울마당으로 명칭 변경 • 성북문화원 개 · 보수 작업 및 내부공간 재구성

성북문화.indb 84 2016-12-11 오후 12:06:59

2010	• 지역여성문화콘텐츠 자료집『선잠단과 길쌈이야기』출간 • 성북천 깃발전 개최 (매년) • 나눔이 있는 어르신 연극교실 “희喜낙樂” (매년)
2011	• 지역여성문화콘텐츠 발굴사업 ‘우리동네에는 선잠단이 있어요’ CD제작 및 소책자 발간 • 어르신 문화동아리 사업 진행 (매년)
2012	• 서울문화가족 국악·무용경연대회 선소리산타령반 대상 수상 • 놀이를 통한 다문화 화합 프로그램 “우리는 초록별 친구”개최
2013	• 문예지『성북문예』창간호 발행 • 잡지『성북문화』창간호 발행 •『동소문 밖 능말이야기』발행 • ‘근현대 성북지역의 독립정신과 호국활동’ 학술회의 개최
2014	• 뮤지컬 ‘심우’ 제작 및 공연 •「우리가 꼭 알아야할 우리문화유산」발행 • 청소년 지역 문화 창조 프로그램「앞으로 빛날 나날」(뮤지컬 ‘시간을 달리는 소녀’ 제작, 공연) • 마을관광상품 개발 · 운영「서울 속 마을여행」(거리극 특별한 손님 제작, 공연) • 문화재지역 주민공감정책사업(2014~2015) • 만해 한용운 70주기 추모제(추모 학술회의 추모예술제, 다례재) 개최 • 성북구 답사여행 길잡이『성북에서 만나는 자연과 역사와 사람들』발행 • 문화재청 문화유산 방문교육(2014~2015) •『미아리고개』발행 •『한양도성 역사산책』발행 • 성북문화 아카데미 진행 (매년)
2015	• ‘성북, 문화 다양성의 뿌리를 찾아서’학술회의 개최 • ‘성북, 4.19 혁명의 북을 울리다’학술회의 개최 • 창조적 문화융성을 위한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설립 방안 연구 • 광복 70주년 기념 성북구 평화통일 예술제 (뮤지컬 ‘어느 아나키스트의 아내’ 제작, 공연) • 6.25 전쟁과 미아리고개 학술회의 •『성북동 - 만남의 역사, 꿈의 공간』발행 •『문화재의 숲, 사람의 마을』발행 • 한국장학재단 ‘2015 우수국가근로기관’ 선정
2016	• ‘4월혁명과 문화의 새로운 모색’학술회의 개최 • 4.19 혁명 시위 재현행사 • 이육사 탄생 112주년 기념 문화재 개최 • 청록집 발간 70주년, 문학 주간 행사 개최 • 청소년 그린리더 양성 프로젝트 “길 위의 메아리학교” 진행 • 성북동 역사문화자원 심층 연구 • 한국문화원연합회 대한민국문화원상 종합경영부문 우수상, 향토사 활용부문 1위상 수상

성북문화.indb 85 2016-12-11 오후 12:06:59

03

성북문화원 사무국 소개

사무국장 **강 성 봉**

- 성북문화원 사무국 총괄
- 지역문화 사회교육 활동
- 기타 문화 발전 사업

약 력

- 성균관대 대학원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 3급 정학예사
- 고구려발해학회 편집간사, 한국역사연구회 및 수선사학회 회원
- 강릉원주대·경기대·인제대·한성대 출강
- 2015-2016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자문위원
- 2015 · 2016 서울시 문화원 엑스포 총감독

성북문화.indb 86 2016-12-11 오후 12:07:01

문화예술교육사업팀장
김 정 현

약 력
- MBC프로덕션 공연기획 및 마케팅
- 서울관광마케팅 세계 등축제 홍보 및 운영
- 서울드럼페스티벌 홍보 및 운영 총괄

문화예술교육사업팀원
민 문 기

약 력
- 한성대 대학원 사학과 석사과정
- 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 행정조교
- 서울특별시 문예지기
- 2015 서울시 문화원 엑스포 운영·기획 총괄

향토사연구팀장
박 수 진

약 력
-성균관대 대학원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3급 정학예사
-한국고대사학회 편집간사
-경기대, 한성대 출강

향토사연구원
백 외 준

약 력
-고려대 대학원 한국사학과 석사 졸업
-길음종합사회복지관, 성북문화재단 초청강사

성북문화.indb 87 2016-12-11 오후 12:07:03

문화예술사업팀

- 문화 사업 총괄
-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기획 · 진행
- 성북문화 발간 사업
- 마을지 발간 사업
- 문화 · 예술단체 조사 및 연계 사업

구민의 문화예술 감성을 개발,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사업팀은 지역문화 행사 등을 개최하고, 지역의 대표적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사회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성북의 문화,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및 양질의 지역문화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있다.

특히 각종 지역주민 문화의식 함양사업에 주력하며 수준높은 전통문화예술 강좌의 개설을 통한 전문 문화예술의 요람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4 · 19혁명 기념 문화제, 선잠제향, 이육사 시인 탄생 기념 문화제, 만해 한용운 선사 추모 다례재 등 지역의 역사적 인물과 사건 등을 축제와 접목시켜 함께 즐기는 문화를 지향하고 있다

성북문화.indb 88 2016-12-11 오후 12:07:03

향토사연구팀

- 전통문화 및 지역문화 계발 · 보존 · 전승
- 성북구 이야기 테마 관광자원 개발
- 향토사 조사 연구
- 향토사료 수집 · 보존
- 학술회의 개최 · 진행
- 대중 학술지 발간

성북문화원 향토사연구팀은 2013년 3월에 신설됐다. 신설된 첫해 정릉과 의릉 권역의 역사를 정리한 『동소문 밖 능말이야기』를 발간했다. 2014년에는 활발한 활동을 통해 『미아리고개』, 『한양도성 역사산책』, 『성북동 답사여행의 길잡이, 성북에서 만나는 자연과 사람들』 등 세권의 책을 발간하였다. 또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뮤지컬 '심우', '특별한 손님' 등의 뮤지컬을 제작하였다. 2015년에서는 『성북동 - 만남의 역사, 꿈의 공간』과 구술 자료집 『문화재의 숲, 사람의 마을』을 발간하였으며, 연극 '시선', 뮤지컬 '어느 아나키스트의 아내' 등을 제작하였다. 2016년에는 '성북동 역사문화자원 심층조사 사업'을 통해 성북동에 알려지지 않았던 30여 명의 독립지사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향토사 연구팀은 2016년 12월 현재 팀장 1명, 연구원 1명으로, 모두 한국사를 전공한 석사 이상의 전공자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주요 일간지 및 방송 등에서 성북구를 활발하게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성북구의 역사 · 문화 인물들을 발굴하고 숨은 이야기를 찾아내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기록할 계획이다.

성북문화.indb 89 2016-12-11 오후 12:07:03

성북문화원 20년 발자취

성북문화.indb 91 2016-12-11 오후 12:07:03

01 | 탄생기

"오늘 여러분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참여로 탄생하게 될 성북문화원은 우리 지역,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문화예술을 창출해 나갈 구심체로서, 50만 성북구민에게 정신적 풍요로움과 생활의 활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 성북문화원설립추진위원장 겸 1대 원장 구두회,
성북문화원 창립총회 인사말씀 중에서(1996. 10. 16)

1996년 어느 날, 성북구에 새로운 문화의 싹이 움텄다. 성북구 문화의 중심이자 생활문화의 동반자인 '성북문화원'의 창립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성북문화원 창립총회에서 구두회 원장(1996. 10. 16)

산업화로 인해 도시가 급속도로 발달하고, 비약적인 경제성장으로 생활여건이 향상되면서 지역주민들의 문화의식 수준 또한 높아졌고, 이에 따라 문화예술을 폭넓고 깊이 있게 향유하려는 욕구 또한 날로 증대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성북구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성북구는 수준 높은 문화재가 다수 자리잡고 있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문화의 고장이기도 하

성북문화.indb 92 2016-12-11 오후 12:07:03

성북문화원 창립총회 단체사진 (1996. 10. 16)

성북문화원 개원 현판식 (1996. 12. 19)

고, 고도의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수준 높은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북구는 주민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사업을 이끌어갈 자율적 주체마저 없어 민간단체의 문화예술 활동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한 마디로 문화의 불모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였다.

당시 초대 민선 성북구청장이었던 진영호 구청장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성북구 관내에 위치한 대학 총장들과 문화예술인, 학계, 재계 인사들과 뜻을 모아 성북구 지역사회의 문화진흥과 장학사업 등을 펼쳐나갈 성북문화원을 창립하기로 결의하였다.

특히 성북구에 거주하던 많은 재계 인사들이 성북문화원 설립에 적극 호응하였다. 지역 문화 발전과 문화사업 진행과 성북구에 거주하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거액의 출연금을 쾌척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성북구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과 학계, 재계인사들과 관내 대학 총장들, 성북구청장 등이 힘을 모아 성북문화원설립추진위원단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구두회 LG그룹 창업고문이 추진위원장이 되었고, 그 뒤를 천신일 세중그룹 회장,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 정세영 현대자동차 명예회장, 김상하 삼양그룹 회장, 김각중 경방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안병균 나산그룹 회장, 박용곤 두산그룹 회장, 박용성 두산그룹 부회장, 장치혁 고려합성그룹 회장 등의 재계 인사들과 민병천 서경대 총장, 이면영 홍익대 총장, 이용남 한성대 총장, 이주용 성신여대 총장, 조원영 동덕여대 총장, 홍일식 고려대 총장, 현승일 국민대 총장 등의 대학 총장들이 마음을 모아 동참했다. 뿐만 아니라 최만린 전 서울대 미대 학장, 서세옥 전 서울대 미대 학장, 변종하 서울대 교육대학원 교수, 전성우 간송미술관장, 정하경 한성대 미대 교수, 강석원 한국건축가협회장, 정미숙 한국가구박물관장 등 문화예술분야 학자들도 대거 참여하여 힘을 보탰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성북문화원 설립을 위한 간담회(1996. 6. 7)'와 '성북문화원 창립총회(1996. 10. 16)' 등을 거쳐 1996년 12월 19일, 옛 동소문동 주민센터(옛 명칭 동사무소) 건물에 성북문화원이 건립되었다.

성북문화.indb 94 2016-12-11 오후 12:07:04

성북문화원 설립 발기인 명단 (가나다 순 - 총 81명)

강석원 :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강수창 : 대원화성 사장	구두회 : LG그룹 창업고문
김각중 : 경방 회장	김건세 : 해동상호신용금고 부회장	김기병 : 롯데관광 회장
김덕영 : 영흥철강 회장	김명선 : ㈜ 동진 회장	김상하 : 삼양그룹 회장
김성배 : 한진관광 회장	김수근 : 대성그룹 회장	김영일 : 부산산업 사장
김영준 : 성신양회공업 회장	김영진 : 진도 사장	김예환 : 예일재단 이사장
김의근 : 대성산업㈜ 사장	김진형 : 부국산업 회장	김해룡 : 삼미산업㈜ 사장
남충우 : 타워호텔 회장	마상곤 : 협운㈜ 사장	민병준 : 두산음료 부회장
민병천 : 서경대학교 총장	박경재 : 송원산업회장	박승주 : ㈜ 미륭상사 회장
박용곤 : 두산그룹 회장	박용성 : 두산그룹 부회장	박임원 : 유성 회장
박정기 : 대한육상연맹 회장	박태신 : 한국남방개발 회장	박태호 : 원제한의원 원장
박희택 : 범양건영 회장	백성학 : 영안모자 회장	변종하 : 서양화가
서세옥 : (전)서울대학교 미대학장	신명수 : 신동방그룹 회장	심종직 : 미덕건설 회장
안병균 : 나산그룹 회장	양대길 : 영우통상㈜ 회장	양창갑 : 서흥캅셀 회장
연만희 : 유한양행 이사장	우영열 : 삼풍제지㈜ 사장	윤덕병 : 한국야쿠르트유업 회장
윤종근 : 반도명동 회장	이경훈 : ㈜ 대우 회장	이규호 : (전)고대사대 교수
이동찬 :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이동훈 : 제일화재해상보험 회장	이면영 : 홍익대학교 총장
이병무 : 아세아시멘트산업회장	이용남 : 한성대학교 총장	이우영 : 스위스그랜드호텔 회장
이윤재 : ㈜피죤 회장	이의순 : 세방그룹 회장	이주용 : 성신여대 총장
이형성 : 기룡산업㈜ 회장	이회림 : 동양화학공업 명예회장	임충헌 : 한국화장품 회장
장민수 : 청계약품 사장	장치혁 : 고려합섬그룹 회장	전성우 : 간송미술관장
정관현 : 삼화그룹 회장	정도원 : 강원산업㈜ 부회장	정문원 : 강원산업㈜ 회장
정미숙 : 한국가구박물관장	정세영 : 현대자동차 명예회장	정하경 : 한성대학교 교수
조동식 : ㈜인터엠 회장	조석래 : 효성그룹 회장	조양래 : 한국타이어제조㈜ 회장
조원영 : 동덕여대 총장	조창석 : 삼영모방 회장	조해영 : 불교방송 사장
주근원 : 동부화재 상임고문	천신일 : ㈜세중 회장	최만린 : 서울대학교 교수
최영수 : 북부케이블 사장	한태규 : 예향 회장	허남각 : 삼양통상 회장
허완구 : 승산 회장	현승일 : 국민대학교 총장	홍일식 : 고려대학교 총장

성북문화.indb 95 2016-12-11 오후 12:07:04

성북문화원 개원행사(1996.12.19)

성북문화원의 설립목적은 '지역사회의 계발 및 문화진흥'으로 설정되었고,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 보급 · 보존 · 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 · 연구 및 사료의 수집 · 보존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 · 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기타 장학사업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성북문화원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었던 구두회 LG그룹 창업고문은 초대 원장으로 취임하여 성북문화원을 이끌기로 하였고 정관현 삼화그룹 회장, 박용성 두산그룹 부회장,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 천신일 (주)세중 회장, 안병균 나산그룹 회장이 부원장을 맡아 구두회 원장을 돕기로 하였다.

성북문화.indb 96 2016-12-11 오후 12:07:04

「성북문화원」 설립 발기인 모임

성북문화원 발기인 모임에서 각계 인사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사는 재계인사들이 7일 오후 7시 예향(구 삼청각)에서 모여 성북문화원 설립을 위한 발기인 모임을 가졌다.

7월중 개원할 성북문화원은 특수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순수민간단체로서 각종 지역문화행사를 개최할 뿐 아니라 세계적 문화행사를 유치하고 장학사업도 벌인다. 이날 성북문화원 초대원장에는 具斗會LG그룹창업고문, 부원장에는 鄭寬鉉삼화그룹회장 千信一세중회장이 선출됐다.

이날 행사에는 安秉鈞나산실업회장 金銘善동진회장 朴喜宅범양건영회장 全晟雨간송미술관장 崔滿麟서울대교수 등 재계 학계 문화계 인사 18명이 참석했다.

고려대洪一植 국민대玄勝一 성신여대李主鏞 동덕여대趙元英 한성대李庸男총장 등 관내 대학총장들도 고문으로 위촉돼 참석했다.

〈田承勳기자〉

1996. 6. 8「동아일보」

성북문화원 개원식

왼쪽부터 李秀洪 具斗會 陳英浩 鄭寬鉉 李東燦 安秉鈞씨.

河泰元기자

지역고유문화 개발과 향토사연구 등을 펼쳐나갈 「성북문화원」 개원식이 19일 오후 서울 성북구 옛 동소문동청사에서 열렸다. 회원은 성북구출신 기업인을 주축으로 구성됐다.

문화원장으로 선임된 具斗會(구두회·LG그룹 창업고문)씨는 『이를 계기로 성북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고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임에는 鄭寬鉉(정관현)삼화그룹회장 朴容晟(박용성)두산그룹부회장 安秉鈞(안병균)나산그룹회장 延萬熙(연만희)유한양행 이사장 南忠鈺(남충우)타워호텔 사장 柳在乾(유재건)국회의원 閔丙天(민병천)서경대총장 朴喜宅(박희택)범양건영회장 沈鐘稷(심종직)미덕건설회장 李東燦(이동찬)코오롱그룹명예회장 李義淳(이의순)세방그룹회장 徐世鈺(서세옥)서울대명예교수 朱權源(주근원)동부화재상임고문 崔英洙(최영수)북부케이블사장 陳英浩(진영호)성북구청장 李秀洪(이수홍)전국문화원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1996. 12. 20「동아일보」

城北문화원 개원

성북문화원 창립총회에 참석한 성북구거주 각계인사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鄭智淵기자>

주민위한 다양한 文化행사 계획
각계인사 대거참여…장학사업도

국내의 내로라하는 재계·학계 인사들이 지역문화원 회원으로 참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16일 오후 4시 옛 삼청각「예향」에서 열린 서울 성북문화원 창립총회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이 지역 거주 각계 저명인사들이 회원으로 대거 참석해 지역문화활동에 대한 이들의 관심을 보여줬다。

수려한 산세를 끼고 있어 예로부터 부자동네로 알려진 성북동에는 재계인사를 비롯해 학계 예술계 인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자연히 이들이 성북문화원을 창립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 것。

성북구청(청장 陳英浩) 주관으로 지난 6월 발기인대회를 거쳐 이날 정식활동에 들어간 성북문화원은 이들의 재정적 뒷받침과 학계 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각종 전시회 음악회 등 문화행사 뿐만 아니라 장학사업도 펼칠 예정이다。

문화원 창립에 참여한 인사는 具斗會 LG그룹창업고문, 李東燦 코오롱명예회장, 鄭世永 현대자동차 명예회장, 金相廈 삼양그룹회장, 金珏中 경방회장, 趙錫來 효성그룹회장, 安秉鈞 나산그룹회장, 朴容昆 두산그룹회장·朴容晟 두산그룹부회장, 張致赫 고합그룹회장 등 그룹 회장급만 10여명。대기업의 사장·이사등 임원급 인사까지 합치면 60여명에 이른다。

또 문화원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참여하는 학자그룹도 이에 못지않다。

洪一植 고려대·玄勝一 국민대·李勉桑 홍익대·李庸男 한성대·李主鏞 성신여대·閔丙天 서경대·趙元英 동덕여대총장 등 대학총장만 7명에 이르고 崔滿麟·徐世鈺 전 서울대미대학장, 卞種夏 서울대교육대학원 교수, 全晟雨 간송미술관장, 李主皓 전 고려대교수, 鄭夏景 한성대 교수, 姜錫元 대한건축가협회장 등 예술분야 학자들도 대거 참여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문화원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사업계획과 자금조달을 추진할 이사회를 구성하고 7개 분과위를 설치했다。

<裵柄文기자>

1996. 10. 17「경향신문」

성북문화원 초대 임원 명단(1996. 12. 19 ~ 2005. 3. 30)

직 위	성 명	직업 및 경력
원 장	구두회	LG그룹 창업고문
부 원 장	정관현	삼화그룹 회장
	박용성	두산그룹 부회장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
	천신일	㈜ 세중 회장
	안병균	나산그룹 회장
이 사	강수창	대원화성 사장
	김건세	해동상호신용금고 부회장
	김영일	부산산업 사장
	김영진	진도 사장
	김해룡	삼미산업㈜ 사장
	박승주	㈜ 미륭상사 회장
	박태신	한국남방개발 회장
	양대길	영우통상㈜ 회장
	이우영	스위스그랜드호텔 회장
	정도원	강원산업㈜ 부회장
	정미숙	한국가구박물관 관장
	조창석	삼영모방 회장
	한태규	예향 회장
감 사	연만희	유한양행 이사장
	남충우	타워호텔 회장

많은 사람들의 염원과 희망을 담아 개원된 성북문화원은 먼저 내부공사 및 시설정비, 그리고 제반 규정 정비 등의 과정을 마치고 1997년 4월, 1기 수강생 모집을 시작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강좌를 시작하였다. 서예, 수지침, 꽃꽂이 등의 강좌를

성북문화.indb 98 2016-12-11 오후 12:07:05

개설하여 수강생들의 능력 배양을 도왔으며,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렇게 1기로 시작된 문화강좌는 구두회 원장 재임기 동안 해가 거듭될수록 발전을 계속했다. 해마다 강좌의 수를 늘려갔고, 수천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2004년에는 사군자, 수묵산수화, 한글서예, 한문서예, 한국무용, 밸리댄스, 나이트댄스, 유화, 장구, 민요, 국선도, 어린이영어회화, 유아발레, 레고닥터 등의 강좌를 개설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전통문화, 예술, 체육활동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1999년에는 성북문화원 개원 3주년 기념 '성북문화학교 예술제'를 진행하여 문화강좌 수강생들이 강좌를 통해 연마한 기량을 각종 공연과 작품 전시로 선보일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이러한 발표회는 '성북문화가족 한마당 발표회', '성북문화가족 어울마당' 등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성북문화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문화행사를 진행하였다. 1997~2000년에 걸쳐 서울시립교향악단을 초청, 매년 가을음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이 잔잔한 클래식 음악과 함께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하였다. 1998년과 1999년에는 국악 해설공연 '국악한마당'을 개최하여 이를 통하여 다소 어렵고 생소하게만 느껴지는 국악을 주민들이 보다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국악진흥에도 앞장섰다.

또한 1998년에는 성북구청이 주최 · 주관하던 선잠제를 맡아서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선잠제란 조선 복식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던 양잠養蠶을 장려하기 위해 풍요를 기원하며 잠신蠶神 서릉씨西陵氏에게 올리던 제례로써, 고려시대부터 내려온 것이다. 선잠제는 조선 말까지 매년 음력 3월 길한 뱀날吉巳日, 성북동에 위치한 선잠단지(사적 제83호)에서 행하였는데, 1993년부터 성북구에서 재현하고 있었다. 성북문화원이 성북구청, 대한잠사회, 선잠보존위원회 등과 함께 협력하여 선잠제를 진

성북문화.indb 99 2016-12-11 오후 12:07:05

성북문화원 전경(1997. 11. 7)

제1회 문화강좌 개강 기념식(1997. 4. 1)

꽃꽂이 강좌(1997. 7. 4)

성북문화원 개원 3주년 기념 '99 성북문화학교 예술제(1999. 12.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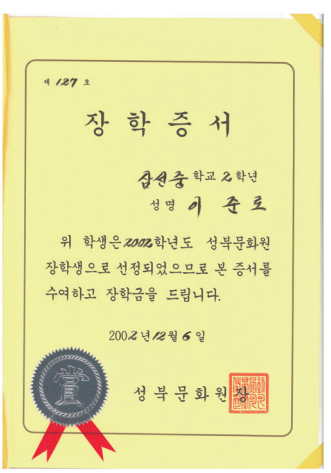
성북문화원 개원 3주년 기념 '99 성북문화학교 예술제(1999. 12. 16)

성북문화원 창립기념 가을음악축제(1996. 10. 16)

선잠제향

행하게 되면서, 성북문화원은 지역의 향토문화를 계승하고 발달시키는 주체로 자리 매김하였다.

한편 창립 당시부터 성북문화원의 중점 사업이었던 장학사업은 1997년부터 시작되었다. 성북구에 위치한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성북문화원은 매년 자체예산으로 장학사업을 지속하였다.



제 127 호

장 학 증 서

삼선중 학교 2 학년
성명 이 순 로

위 학생은 2002 학년도 성북문화원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으므로 본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드립니다.

2002 년 12 월 6 일

성 북 문 화 원 장

장학금 수여식 및 장학증서

성북문화.indb 103 2016-12-11 오후 12:07:10

향토성북 1~3호

성북문화원의 주요한 사업인 향토사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었다. 1998년 향토성북 제1호『성북의 문화재』발간을 시작으로 1999년 향토성북 제2호『사연이 깃든 성북의 유래』, 2002년 향토성북 제3호『선잠제의 역사와 의례』를 발간하여 향토사 연구의 성과를 선보이고, 주민들이 성북의 향토사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더불어 주민들에게 국내 각지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2000년부터 역사문화탐방을 시작하였다. 역사문화탐방은 사전에 인물 · 사건 등의 테마를 정해 관련된 문화유적 · 박물관 · 공원 등을 답사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처럼 성북문화원이 탄생하고, 각종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면서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기까지 함께 하였던 구두회 원장은 2005년 3월 31일 8년 여간의 임기를 마치고 천신일 2대 원장에게 원장직을 맡기며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성북문화.indb 104 2016-12-11 오후 12:07:16

02 | 도약기

"성북동이라 그러면 우선 서울 성곽이 보이죠. 그리고 간송미술관, 한국가구박물관, 최순우옛집, 정릉, 의릉 등 문화유적이 참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우리옛돌박물관까지 더 해져서 서울에서 제일 문화유산이 많은 구가 성북구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북구의 문화유산을 더욱더 계승·발전시키면 문화적으로 서울에서 으뜸가는 지역구가 되지 않을까…"

- 2대 원장 천신일,
성북문화원 20주년 기념 인터뷰 중에서(2016. 11. 10)

2005년 3월 31일, 구두회 1대 원장의 뒤를 이어 2대 자리에 오른 천신일 원장은 기존의 사업과 성과를 이어나가는 한편, 문화원 내실화 작업에 주목하였다. 당시 사무국장으로 근무한지 1년 반 가량이 된 원재웅 사무국장과 함께 성북문화원의 각종 제반 규정을 명문화하여 조직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문화원 내실화 작업의 일환으로 이사진 재구성이 추진되었다.

성북문화.indb 105 2016-12-11 오후 12:07:16

성북문화원 2대 임원 명단(2005. 3. 31 ~ 2009. 3. 30)

직 위	성 명	직업 및 경력
원 장	천신일	㈜ 세중 회장
부원장	이면영	재단법인 홍익학원 이사장
	조태권	광주요그룹 회장
이 사	김해룡	삼미산업㈜ 사장
	양대길	영우통상㈜ 회장
	이우영	스위스그랜드호텔 회장
	정미숙	한국가구박물관 관장
	조창석	삼영모방 회장
	박용성	두산그룹 부회장
	김영일	부산산업 사장
	서영수	서영수세무사무실 대표
	서정구	대한과학 대표이사
	정소균	모아방 회장
	박통자	한국야생초보존연합회 회장
	정상옥	동방대학원대학교 총장
	김양순	통합방위협회 간사
	이병한	새종암새마을금고 이사장
	정근호	라이프어패럴㈜ 리더무역 대표
	최 진	한방유비스 대표이사
감 사	김영대	대성그룹 회장
	남충우	타워호텔 회장

이렇게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 이사진을 새로이 선출하는 등 문화원 내실화를 마친 성북문화원은 매년 진행하던 역사문화탐방과 주민들을 위한 음악회, 연극 관람 행사 등을 지속·발전시켜나갔다.

성북문화.indb 106 2016-12-11 오후 12:07:16

성북문화가족 한마당 축제(2005. 11. 22)

성북문화가족 한마당 축제(2005. 11. 22)

성북문화원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역사문화 탐방을 가는 것도 좋지만 성북구에 이미 수많은 문화재 · 박물관 등의 역사문화자원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여 관내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자신의 지역에 대해 더 알고,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다양한 문화강좌를 통해 기량을 갈고 닦은 수강생들이 보다 넓은 곳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외부의 각종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래서 문화강좌 수강생들은 서울시문화원연합회 주최의 '서예 · 사군자 경연대회', '국악 · 무용 경연대회', 강남구 주최의 '강남전통예술 경연대회', 서울특별시장배 '전국 생활체조 경연대회' 등에 성북문화원 소속으로 참가하여 수강생들이 자신들의 기량을 마음껏 뽐내고, 또 그로 인해 수상의 기쁨도 안을 수 있게 하여 소속감과 함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강좌-인터넷 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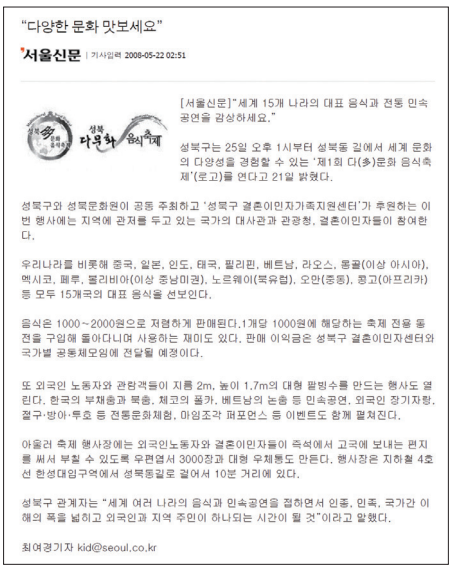
성북문화가족 작품 전시회(2008. 12)

한편 성북문화원은 소외 계층에 대한 사업도 진행하였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소외되고 무관심하게 여겨졌던 장애 청소년과 해외교포 어린이, 다문화 가정 어린이 등에 관심을 가져 그들을 위한 교육 · 축제 프로그램을 다수 진행

성북문화.indb 108 2016-12-11 오후 12:07:19

하였다. 2007년에는 삼선중학교 특수반에 재학중인 장애청소년 18명을 대상으로 장구・민요 등을 가르쳐 마음을 치유하고 자신감을 키워주었다.

2008년에는 해외교포 청소년 서예교실을 열고 한글서예를 가르쳐 해외교포 청소년들에게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한국문화에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다양한 문화 맛보세요"

서울신문 | 기사입력 2008-05-22 02:51

[서울신문]"세계 15개 나라의 대표 음식과 전통 민속공연을 감상하세요."

성북구는 25일 오후 1시부터 성북동 길에서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는 '제1회 다(多)문화 음식축제'(로고)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성북구와 성북문화원이 공동 주최하고 '성북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지역에 관저를 두고 있는 국가의 대사관과 관광청, 결혼이민자들이 참여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인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몽골(이상 아시아), 멕시코, 페루, 볼리비아(이상 중남미권), 노르웨이(북유럽), 오만(중동), 짐고(아프리카) 등 모두 15개국의 대표 음식을 선보인다.

음식은 1000~2000원으로 저렴하게 판매된다.1개당 1000원에 해당하는 축제 전용 동전을 구입해 돌아다니며 사용하는 재미도 있다. 판매 이익금은 성북구 결혼이민자센터와 국가별 공동체모임에 전달될 예정이다.

또 외국인 노동자와 관람객들이 지름 2m, 높이 1.7m의 대형 팥빙수를 만드는 행사도 열린다. 한국의 부채춤과 북춤, 체코의 폴카, 베트남의 논솜 등 민속공연, 외국인 장기자랑, 절구·방아·투호 등 전통문화체험, 마임조각 퍼포먼스 등 이벤트도 함께 펼쳐진다.

아울러 축제 행사장에는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민자들이 즉석에서 고국에 보내는 편지를 써서 부칠 수 있도록 우편엽서 3000장과 대형 우체통도 만든다. 행사장은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 성북동길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성북구 관계자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과 민속공연을 접하면서 인종, 민족, 국가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외국인과 지역 주민이 하나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다양한 문화 맛보세요" 2008. 5. 22「서울신문」

점차 늘어나는 다문화 가족들을 초청하여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 초청 쪽염색 체험 프로그램을 주관하였다.

세계 각국의 음식을 선보이는 제1회 다문화 음식축제를 성북구와 함께 공동 주최하여 세계 15개국의 대표 음식을 판매하였고, 그 수익은 성북구결혼이민자센터에 전달하였다. 각국의 민속공연까지 펼쳐 다문화 체험 기회를 다각도로 넓혔다.

그리고 성북문화원은 동방대학원대학교(현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와 함께 성북구의 대표적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만해 한용운 선사의 추모제를 거행하기 시작하였다. 만해 한용운 선사는 일제강점기 자신의 시와 사상으로 혁신적 활동을 펼쳤으며 3・1 독립선언에 민족대표로 참가하는 등 독립운동에도 앞장섰던 인물로, 성북구 성북동에는 그가 말년을 보낸 심우장이 있다. 2008년 심우장에서 만해 한용운 선사를 추모하는 64주기 다례재를 봉행한 것을 시작으로 문화원에서는 지금까지 꾸준히 만해 한용운 선사 다례재를 봉행하고 있다.

성북문화.indb 109 2016-12-11 오후 12:07:20

만해 한용운 선사 65주기 추모 다례재(2009. 6. 29)

만해 한용운 선사 65주기 추모 다례재(2009. 6. 29)

성북문화원
깊은멋·나눔·즐김

성북문화원 홈페이지 메인화면과 로고

'성북문화원' 브랜드 구축에도 힘썼다. 인터넷 저변 확대에 발맞추어 성북문화원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도입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보다 증폭시켰다. 그리고 "깊은 멋, 나눔, 즐김이 있는 열린 문화 공간, 성북문화원"이라는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창조하여 지역에서 성북문화원이 갖는 인지도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천신일 원장 재임 4년은 성북문화원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대외적으로 성북문화원을 알리는 시간이었다. 2009년 3월 26일, 천신일 원장은 조태권 광주요 그룹회장에게 원장직을 맡기며 임기를 마쳤다.

서찬교 당시 성북구청장에게 공로패를
수여받는 천신일 원장(2009. 3. 26)

성북문화.indb 111 2016-12-11 오후 12:07:23

03 | 발전기

"누구나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유지시켜, 생활 속에서 작지만 큰 문화의 향기를 음미할 수 있는 삶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북문화원은 깊은 멋을 지키며 나누고 즐길 줄 아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서 문화 · 예술 · 복지 실현을 위한 성북구의 대표 공간이고자 합니다. 문화의 향기를 가까이 전하는 생활문화의 동반자로서 우리 구민의 생활에 여유로움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펼쳐가겠습니다."

- 3대 원장 조태권,
성북문화원 원장 취임 후 인사말 중에서(2009. 3. 26)

2009년 3월 36일 천신일 원장을 이어 조태권 원장(대행)이 취임했다. 조태권 원장 및 3대 임원들은 2009년~2011년 3월 30일까지 대행체제를 유지하였다. 2011년 3월 31일부터 조태권 원장 및 3대 임원들이 정식 취임해 성북문화원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였다.

전반기(2009 ~ 2012) 조태권 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기존의 사업과 성과를 이어나가는 한편, 성북문화원 브랜드의 확고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서울시문화원연합회 등의 각종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성북구 및 지역 문화기관 · 단체 등과의 연계도 강화하여 보다 뜻깊고 내실이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성북문화.indb 112 2016-12-11 오후 12:07:23

성북문화원 3대 원장 취임식(2009. 3. 26)

취임사 중인 조태권 3대 원장 (2009. 3. 26)

사군자 문화강좌

한국무용 문화강좌

어린이 영어회화 강좌

뮤직가튼 강좌

성북문화원 3대 임원 명단
(2009. 3. 31 ~ 2011. 3. 30 / 2011. 3. 31 ~ 2015. 3. 30)

직 위	성 명	직업 및 경력
원 장	조태권	광주요그룹 회장
부 원 장	이면영	재단법인 홍익학원 이사장
	정근호	라이프어패럴㈜ 리더무역 대표
이 사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
	김영대	대성그룹 회장
	김예환	예일학원 이사장
	이우영	스위스그랜드호텔 회장
	정미숙	한국가구박물관 관장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
	김영일	부산산업 사장
	정하경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명예교수
	노태섭	경상문화재연구원 이사장
	정상옥	동방대학원대학교 총장
	이병한	새종암새마을금고 이사장
감 사	서영수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회 의장
	나선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

보다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전통문화 · 체육활동 · 예술활동 등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강좌를 확대 · 개편하였다. 그리하여 사군자, 수묵산수화, 한글서예, 한문서예, 선소리산타령, 경기민요, 장구, 우리춤체조, 한국무용, 스포츠댄스, 규방공예, 원어민 영어회화, 유아발레, 동화를 통한 한글놀이, 어린이 아나운서 교실, 테크블럭, 오감발달놀이, 어린이 미술 등 다양한 문화강좌를 개설하여 주민들의 문화 · 예술을 향한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수강생들이 문화강좌를 통해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일 수 있는 성북문화가족 '어울마당'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였다.

성북문화.indb 115 2016-12-11 오후 12:07:31

2011 서울문화가족 제3회 길쌈경연대회
(2011. 11. 30)

2011 서울문화가족 국악 · 무용 경연대회
(2011. 9. 5)

또한 그간 해왔던 역사문화탐방, 다례재 등의 행사를 지속적으로 행하여 성북문화원이 지역 문화사업의 중심적 추진체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하였다.

서울시문화원연합회 주최의 '서예 · 사군자 경연대회', '국악 · 무용 경연대회', 강남구 주최의 '강남전통예술 경연대회', 서울특별시장배 '전국 생활체조 경연대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했을 뿐 아니라, 서울시문화원연합회 주최의 '길쌈경연대회'에도 참여해 성북문화원과 문화원 수강생들의 실력을 널리 알렸다.

성북문화원은 지역사회의 봉사와 문화나눔에도 관심을 가졌다. 성북바자 '우리 함께 해요', '성북복지&봉사한마당', '성북 아트마켓' 등에 참여하여 아름다운 문화나눔과 복지를 실천하였다.

한편 지역 주민들의 문화 참여 기회를 넓히고, 예술의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도 신설하여 진행하였다. 2010년에 시작된 '성북천 깃발전'은 매번 색다른 주제를, 성인은 서예 및 캘리그라피, 어린이는 그림을 통해 표현한 작품을 응모하여 입상한 작품 100여 편을 깃발로 제작해 성북천변에 전시하는 행사로, 해마다 봄 · 가을이 되

성북문화.indb 116 2016-12-11 오후 12:07:33

성북아트마켓 Funfun해!

성북 복지 봉사 한마당

성북천 깃발전

면 성북천변을 수놓는 아름다운 빛깔과 먹내음으로 주민들의 호평을 받았다. '성북 창작시 공모전'은 지역의 일반 주민들이 자신만의 감성으로 써내려 간 시를 단순히 상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자신의 시를 읽을 수 있는 시 낭송회까지 개최하여 참가자들에게 뜻깊은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한국문화원연합회의 공모사업으로 시작된 나눔이 있는 어르신 연극교실 '희喜낙樂'은 사회활동이 많지 않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극이라는 매개체를 통한 교육을 한 뒤 무료 나눔 공연까지 함으로써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 변화와 자존감 향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더불어 이를 통해 행복한 '인생 제2막'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나눔이 있는 어르신 연극교실 '희喜낙樂'

어르신들의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신감을 북돋워 주기 위하여 '어르신 문화동아리' 사업을 지속해나갔다. 2011년 수묵산수화 동아리 '동묵회'와 우리동네 역사문화유산 답사동아리 '길따라 발길따라'의 조직을 시작으로 수묵산수화 동아리 '영묵회', 스포츠댄스 동아리 'Dancing with the Silverstars', 국악합창 동아리 '성밖세상 소리단' 등을 조직하여 어르신들의 직접 참여 기회를 넓히고, 문화 나눔을 실천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성북문화원은 소외 계층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갔다. 먼저 지적 · 자

성북문화.indb 118 2016-12-11 오후 12:07:45

어르신 댄스 동아리 'Dancing with the Sil · erstars'

우리동네 역사문화유산 답사동아리 '길따라 발길따라'

우리는 초록별 친구들

다문화축제

폐성 장애 청소년을 위한 서예치료 교실 '내 마음의 놀이터'프로그램을 통해 성북구에 거주하는 지적 · 자폐성 장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서예치료를 진행하는 한편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다문화 가정이 점차 늘어가는 현

지적 · 자폐성 장애 청소년을 위한
서예치료 교실 '내 마음의 놀이터'

성북문화.indb 119 2016-12-11 오후 12:07:51

선잠단과 길쌈이야기

선잠단지 여성모임

실 속에서 어린이들로 하여금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심어주고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가는 미래지향적 생각을 갖추게 해주기 위해 '다문화 바로알기'교육, '우리는 초록별 친구들'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사업 역시 추진하였다. 성북구 관내의 여성들이 모여 선잠단지라는 문화유적을 주제로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자료조사 및 연구를 통해『선잠단과 길쌈이야기』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그리고 여행가이드북 '선잠단과 길쌈로드', 역사문화콘텐츠CD '우리동네에는 선잠단이 있어요!' 등의 콘텐츠를 개발해내기도 하여 지역 주민들, 특히 여성들의 참여기회를 증폭시키고 새로운 문화 창조를 시도하였다.

동구여자중학교 뮤지컬 동아리 'FAME'과 함께 청소년지역문화창조프로그램 '앞으로 빛날 나날'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재 및 향토사를 소재로 지역의 청소년들이 직접 창작 뮤지컬을 제작하고, 공연을 통한 문화나눔까지 실천하는 것으로 지역통합의 장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2012년 뮤지컬 '꿈을 꾸는 아이들'을 시작으로, 미아리고개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 '약속', 4·19혁명을 바탕으로 한 뮤지컬 '시간을 달리는 소녀' 등을 만들어내었다.

성북문화.indb 120 2016-12-11 오후 12:07:54

청소년지역문화창조 프로그램 '앞으로 빛날 나날' - 창작뮤지컬 '시간을 달리는 소녀'

성북문화원 외관

성북문화원 강의실 및 소강당

성북문화원 진입로 벽화

성북문화원은 외적으로도 변화를 겪었다. 문화원은 오래 전 지어진 동소문동 주민센터 건물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곳곳이 낡고 허름하였다. 이에 대대적인 개·보수 작업을 실시하였다. 지하 향토자료실, 1층 소강당 및 화장실, 2층 강의실 및 대기실, 3층 창고 내부, 주차장 등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새로이 칠한 외벽을 통해 보다 산뜻하고 친근한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문화원으로 올라오는 길 양쪽에는 벽화를 그려 주민들이 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문화원에 방문할 수 있도록 도왔다.

조태권 원장의 2기(2013~현재)는 문화원 조직 개편과 함께 시작했다. 2012년 9월 역사전공자인 강성봉 사무국장을 영입했으며, 2013년 3월에는 향토사연구팀을 신설하고 연구자를 영입하는 등의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또한 2015년 3월 31일 이사진을 젊고 추진력 있는 연령대로 개편하여, 성북문화원의 분위기를 전환했다.

강성봉 사무국장과 문화원 회원들

왼쪽부터 박수진 향토사 연구팀장,
백외준 향토사연구원
강성봉 성북문화원 사무국장

성북문화.indb 122 2016-12-11 오후 12:08:02

성북문화원 4대 임원 명단(2015. 3. 31 ~ 현재)

직 위	성 명	직업 및 경력
원 장	조태권	광주요그룹 회장
부 원 장	서영수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회 의장
	정근호	라이프어패럴㈜ 리더무역 대표
이 사	정상옥	동방대학원대학교 총장
	김영일	㈜ 태명실업 회장
	정하경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명예교수
	김희진	국민생활체육전국배구연합회 상임이사
	김재천	성북구선거관리위원
	구자은	LS그룹 부회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김신한	대성 사장
	홍진석	남양유업 상무
	천미전	우리옛돌박물관 학예실장
	심종현	한국가구박물관 부관장
	엄재룡	거산그룹 회장
감 사	권기중	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 교수
	허광복	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조직 개편은 성북문화원의 활동영역을 넓혔다. 그간 한국문화원연합회, 서울시문화원연합회의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것에서 벗어나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국가보훈처 등 다양한 곳의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진행함으로써 보다 특화된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는 한편, 자체예산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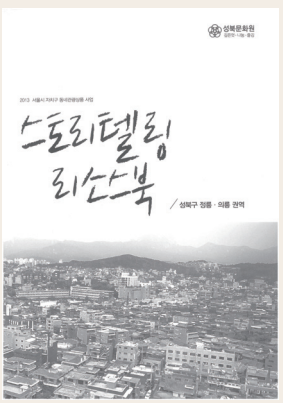
향토사연구팀 신설로 학술지 발간이 활발해졌다. 동소문 바깥 마을사람들의 삶과

성북문화.indb 123 2016-12-11 오후 12:08: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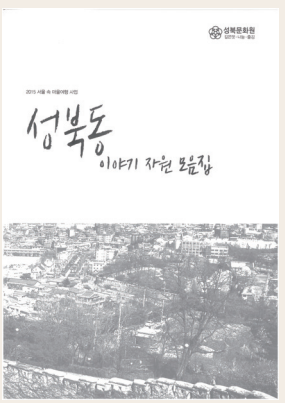
동소문 밖 능말이야기

미아리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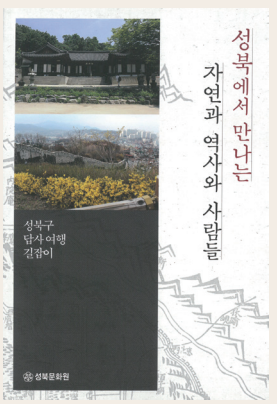
성북동 - 만남의 역사, 꿈의 공간



정릉 · 의릉
스토리텔링 리소스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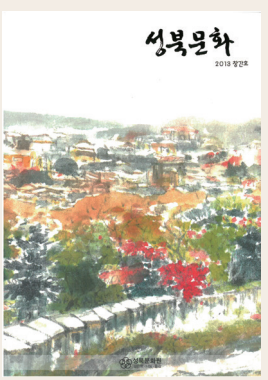


성북동
스토리텔링 리소스북



성북에서 만나는
자연과 역사와 사람들

한양도성 역사산책



성북문화 창간호(2013년)

성북문예 창간호(2013년)

그곳에 거주하던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담은 성북구 역사문화산책 1호『동소문 밖 능말이야기』(2013)를 시작으로 미아리고개에 얽힌 이야기를 담은 성북구 역사문화산책 2호『미아리고개』(2014), 성북동에 있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원과 그에 얽힌 역사와 사연들을 풀어낸 성북구 역사문화산책 3호『성북동, 만남의 역사 꿈의 공간』(2015)을 펴내었다.

또한 각 지역·문화자원별 원천콘텐츠를 집대성한『정릉·의릉 스토리텔링 리소스북』(2013),『한양도성 이야기 자원 모음집』(2014),『미아리고개 이야기 자원 모음집』(2014),『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2015) 등을 차례로 발간하였다.

성북구에 있는 여러 문화재를 비롯해 문화자원·관광자원 등을 하나로 엮은 성북구 답사 여행 길잡이『성북에서 만나는 자연과 역사와 사람들』(2014), 성북에 접해있는 한양도성의 역사와 이에 얽힌 각종 이야기들을 담은『한양도성 역사산책』(2014), 성북구에 있는 유·무형 문화재와 그에 담긴 역사에 대한 생생한 인터뷰를 책으로 담아낸 성북구 문화재지역 구술자료집『문화재의 숲, 사람의 마을』(2015) 또한 발간하였다. 그리고 창립 당시부터 숙원사업이었던 성북문화원만의 잡지인『성북문화』(2013~)를 발간하기 시작하였고, 문화원 회원들이 직접 쓴 시·소설·수필 등을 담은 문집『성북문예』(2013, 2014)을 엮어 발간하였다.

단기간에 이러한 성과가 가능했던 것은 역사문화 원천자료 수집의 힘이다. 성북문화원은 『조선왕조실록』, 문집 및 신문자료, 폐쇄토지대장 등 다양한 문헌자료에서 성북구와 관련된 자료들을 찾고 정리했다. 또한 독립운동가의 후손, 지역 토박이 등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을 찾아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문헌과 비교하여 문서화하는 일도 진행하였다.

주민 대상 인문학강연도 실시했다. 2013년 '역사문화특강'을 시작으로 2014년과

성북문화.indb 125 2016-12-11 오후 12:08:10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손자 이종철 선생 인터뷰

민족시인 이육사 따님 이옥비 여사 인터뷰

2015년에는 '문화재청 문화재지역 주민공감 사업'을 통해 동별 문화유산 강좌를 실시하였다. 2015년에도 인문학 강연은 계속되었다. 2014년 성북문화원에서 발간한 책자의 저자들과 함께 하는 '도서발간 기념 강연회'를 실시하였으며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역사연구소와 함께 인문학 강좌를 신설하여 2016년에 이르고 있다. 2016년에는 청록집 발간 70주년을 기념하는 주민강연회를 진행하였다.

시민강좌 「성북, 문화다양성의 뿌리를 찾아서」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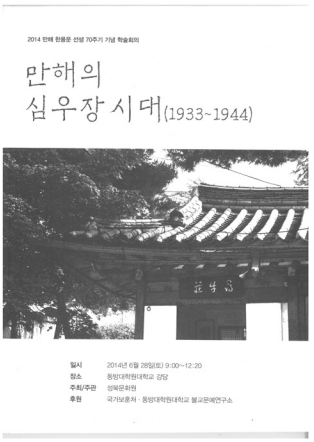
학술회의도 지속적으로 개최했다. 2013년 '근현대 성북지역의 독립정신과 호국활동'을 시작으로, 2014년 '만해의 심우장시대', '선잠제향의 어제와 오늘', 2015년에는 '성북, 4·19혁명의 북을 울리다', '6·25전쟁과 미아리고개', 2016년에는 '4월혁명과 문화의 새로운 모색' 등 매년 1회 이상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학술회의는 성북의 지역사를 한국사라는 큰 틀에서 고찰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성북문화.indb 126 2016-12-11 오후 12:08:13

창작뮤지컬 '어느 아나키스트의 아내'

창작뮤지컬 '시선'

거리극 '특별한 손님'



만해한용운과 심우장시대
학술회의 자료집

6 · 25전쟁과 미아리고개 학술회의

전달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획기적인 성과로 주목했다. 또한 학술회의에 음악이나 뮤지컬을 가미하여 '공연이 있는 학술회의'로 만든 참신한 시도는 큰 호응을 받은 부분 가운데 하나였다.

성북지역의 예술단체와 함께 성북구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의 제작도 이루어졌다. 뮤지컬 및 연극으로는 미아리 고개를 소재로 하는 '약속'(2013)과 '특별한 손님'(2014), 4 · 19 혁명을 소재로 하는 '시간을 달리는 소녀'(2014)와 '시선'(2015), 만해 한용운 선사의 심우장 시절 이야기를 다룬 '심우'(2014)와 정릉동에 거주한 우당 이회영 선생의 부인인 이은숙 여사의 이야기를 다룬 '어느 아나키스트의 아내'(2015)를 제작하였다. 2015년에는 성북동을 소재로 하는 초단편영화 7편을 제작하여 '성북골목극장'을 개최하였으며, 한용운, 이육사, 박목월 등 성북구와 인연이 시인들의 시에 곡을 붙인 음악도 만들어 공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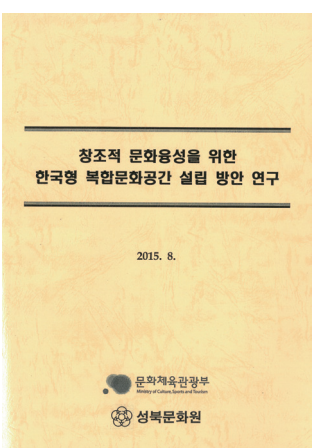
교육사업 또한 활발하게 진행했다. 2014년부터 성북구청 공무원들의 역사·문화 분야 역량을 늘리기 위한 '성북문화 아카데미'를 연 2회 실시해오고 있으며, 2014년과 2015년에는 문화재청 방문교육 사업을 실시하여 총 12인의 문화유산 방문교사를

성북문화.indb 128 2016-12-11 오후 12:08: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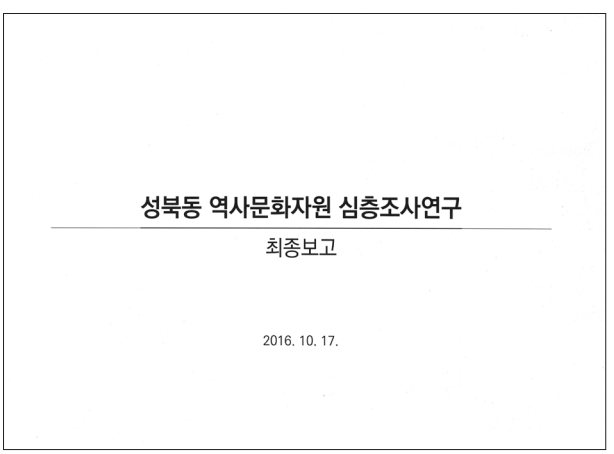
양성, 연 200회 이상 관내 초·중·고 학급을 방문하여 서울과 성북의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교육을 진행했다. 2016년에는 대한불교 조계종 정각사(주지 정목 스님)와 함께 청소년 그린리더 양성 프로그램 '길 위의 메아리학교'를, 성북구청 교육문화청소년팀과 공동으로 청소년 자치 역사 동아리 '성북역사아리', '청소년문화체험캠프' 등을 진행하여 지역내 어린이 · 청소년들의 역사의식 함양과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성북문화원은 각종 연구 사업도 수행하였다. 2015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조적 문화융성을 위한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설립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21세기 문화환경에 발맞춘 새로운 형식의 복합문화공간의 모범을 제시하였다. 2016년에는 성북구의 '성북동 역사문화자원 심층조사연구'를 진행하여 서울시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된 성북동의 역사문화자원들을 수집·정리하고 성북동에 주소지를 두었던 독립운동가들과 미래유산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발굴하는 등 의미 있는 결과물들을 내어 놓았다.

한편 2009년부터 성북구 관내 대학과의 협약을 통한 국가근로 장학사업은 대학



창조적 문화융성을 위한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설립 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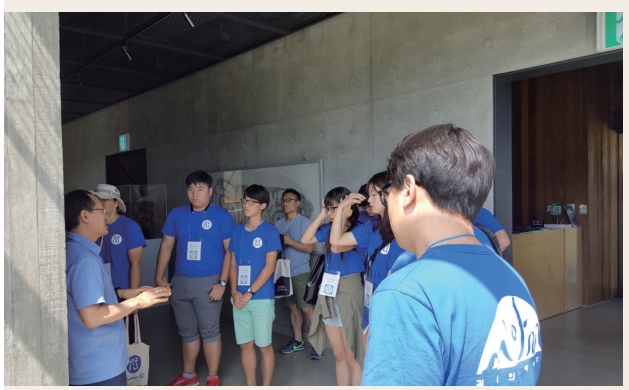
성북동 역사문화자원 심층조사연구

성북문화.indb 129 2016-12-11 오후 12:08:18

성북골목극장

성북문화아카데미

청소년 자치 역사동아리 '성북역사아리'



청소년 그린리더 양성 프로젝트 '길 위의 메아리학교'

생들로 하여금 실제 직업 현장에서의 적응력을 배양하고 체험의 기회를 갖는데 도움을 주어 다수의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는데 있어 밑거름이 되어주었다. 그리고 2015년 성북문화원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9천여 개의 기관 중 150개의 기관만이 선정되는 '우수근로장학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전국 문화원에서 유일)

우수 근로 장학기관 선정

2015년 9월에는 문화원 사무국 직원 전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고용안정성이 확보되었으며, 업무효율 역시 증가했다. 이는 평소 '일할 맛 나는 문화원을 만들겠다'는 조태권 원장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대한민국 문화원상 수상

직원들은 각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자문위원, 성북구 사회복지실무협의체 위원, 길음종합사회복지관·성북문화재단 초청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성과가 객관적 지표를 통해 인정을 받아 2016년에는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 대한민국문화원상에서 지역문화창달 향토사 활용 부문 1위와 종합경영분야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성북문화.indb 131 2016-12-11 오후 12:08:29

04 | 내일의 성북문화원

성북문화원장 **조 태 권**

오늘날, 성북문화원이 2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북문화원의 임직원들과 지역 관계기관 및 관계자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북문화원은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문화계 전반이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에 의해 휘둘려 온 상황에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의 위상은 점점 약화되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성북문화원은 문화원의 긍지를 잃지 않고,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성북문화원은 다양한 문화사업과 더불어 최근 몇 년 간 향토사 연구에 매진해왔습니다. 석 · 박사급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으며, 다수의 원천자료를 수집 · 정리해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종 서적을 발간하는 한편, 학술회의 · 시민강좌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우리 지역의 역사를 널리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를 콘텐츠화하여 다양한 축제 · 문화제 · 연극 · 뮤지컬 · 단편영화 등으로 변화시켜왔습니다.

성북문화.indb 132 2016-12-11 오후 12:08:29

현재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 그동안 각고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다 탄탄한 기반의 마련없이 이를 지속 · 발전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진전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밑바탕을 확실히 다져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원천자료의 수집과 조사 · 연구를 전담하는 '성북학 연구소'를 개설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북학 연구소'를 통해 마련된 자료들을 정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를 관리하는 '성북 아카이브 센터'를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북동 박물관'을 건립하여 성북문화원이 전통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문화예술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북문화원 신축입니다. 사실 성북문화원의 신축은 초대 원장인 구두회 회장과 여러 원로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내 · 외부적 여러 요인들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성북문화원의 낙후된 건물은 문화원 발전을 저해하는 커다란 요소입니다. 부족한 강의실, 전무한 공연시설, 협소한 주차장 등으로 인해 발길을 돌리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연구진들의 노력으로 축적된 자료들도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유실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우리 성북문화원 임직원 일동은 문화원 건물 신축을 위해 신축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새로운 건물을 지어 그곳을 단순히 '성북문화원'이 아닌 다양한 공연장과 박물관, 문학관, 연구시설, 교육시설, 기타 문화시설 등이 공존하는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것입니다.

허나 성북문화원 신축에 집중하여 당장 해야할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2017년에는 기존의 지속 가능한 사업들과 더불어 문화재청의 공모사업인 '문화재 야행'에 우리 성북문화원이 기획한 '마을 속 문화재, 성북동 야행'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을 문제없이, 또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이야말로 성북문화원이 머지않아 달성해야 할 목표를 이루는 데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북문화원의 내일을 위하여 여러분 모두의 관심과 성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항상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열심히 정진하는 성북문화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북문화.indb 134 2016-12-11 오후 12:08:29

성북문화원 20년 성과

성북문화.indb 135 2016-12-11 오후 12:08:29

성북문화.indb 136 2016-12-11 오후 12:08:29

01

지역특화 문화사업 활성화

성북문화원은 지난 20년 동안 성북구만의 특색이 담긴 원천 콘텐츠를 조사 · 발굴하여 이를 토대로 다양한 문화사업을 기획 · 실행해오고 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이를 지속 · 발전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성북문화원의 지역특화 문화사업 활성화 성과를 살피도록 하겠다.

선잠제향

선잠제는 잠업의 신(蠶神)인 서릉씨에게 지내는 제례로 고려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조선시대에도 중사(中祀)로 중요시되었다. 성북동에 선잠단이 설치된 것은 조선 태종 연간으로 그 이후에 꾸준히 제례가 봉행되었다. 1908년 선잠단의 신위가 사직단으로 옮겨가며 선잠단지는 버려지고, 선잠제향도 끊기게 되었다.

1993년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선잠단지에서 제향을 재현하여 봉행하기 시작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성북문화원이 참여하였다. 현재 성북문화원은 원래의 제례를 복원하기 위해 학술회의 개최 등 학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조선시대 선잠단의 모습을 찾고 있는 발굴사업에도 적극 참여 중에 있다.

선잠제향

왕비 · 공주 퍼레이드

선잠제 봉행

선잠제향 제관 · 왕비 · 공주

성북문화.indb 138 2016-12-11 오후 12:08:35

만해 한용운 선사 추모 다례재

만해 한용운 선사는 1933년 심우장을 짓고 이사한 이후 1944년 입적할 때까지 성북동에서 지조를 지키며 살았다. 성북문화원은 2008년 한용운 선사의 높은 뜻을 기리고자 심우장에서 '만해 한용운 선사 추모 다례재'를 봉행하였다.

특히 70주기를 기점으로 다례재는 추모제 이외에도 시낭송, 승무, 국악 등 다양한 공연을 열어 성북구의 대표적 문화 행사로 거듭났다. 특히 지역예술단체 극단 더늠과 함께 만든 뮤지컬「심우」는 성북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만해 한용운 선사의 뜻을 가슴 깊이 전하고 있다.

2011년 다례재

2015년 다례재

보각선원 가릉빈가 합창단 공연

뮤지컬 '심우'

성북문화.indb 139 2016-12-11 오후 12:08:37

성북문화원 문화강좌

1997년 시작된 성북문화원 문화강좌는 서예, 수지침, 꽃꽂이 반을 시작으로 현재 75기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전통예술 · 서양화 · 체육활동 · 유아 및 어린이강좌 등이 개설되어 있다.

75기 문화 강좌는 경기민요, 규방공예, 기초소묘에서 유화까지, 대금 · 단소, 동화구연가 양성과정, 문예창작실기, 사군자, 선소리산타령, 생활요가, 수묵산수화A · B, 수채화, 스포츠댄스, 시낭송가 양성과정, 원어민영어회화(기초 · 초급 · 중급 · 고급), 유화로 그리는 인물화, 장구, 한국무용(초중급 · 심화), 한국의 역사와 문화유산, 한글서예, 한문서예A · B, 원어민중국어회화(기초), 어린이 놀이미술A · B, 어린이 역사교실, 어린이 한자교실, 어린이영어회화(기초 · 초급 · 중급), 유아발레 Lv1 · 2 등이 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유산

사군자

원어민영어회화

생활요가

성북문화.indb 140 2016-12-11 오후 12:08:44

성북문화가족 어울마당

성북문화원의 문화강좌는 1997년에 시작되었다. '성북문화가족 어울마당(이하 어울마당)'은 문화강좌 수강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낼 수 있는 자리이다. 1999년 '성북문화학교 예술제'란 이름으로 시작된 '어울마당'은 올해로 18년째를 맞이하여 성북문화원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울마당'은 수강생들의 작품 등을 전시하는 '전시마당'과 수강생 스스로가 무대에 올라가는 '공연마당'으로 구성되며, 수강생들의 자신감과 자부심을 심어주는 성북문화원의 대표 행사이다.

1999 성북문화학교 예술제

2001 성북문화학교 예술제

2015 어울마당-공연마당

2015 어울마당-전시마당

성북문화.indb 141 2016-12-11 오후 12:08:49

각종 경연대회 참가

성북문화원의 문화강좌는 실력 있는 수강생들을 다수 배출했다. 문화강좌와 어울마당을 통해 실력과 경험을 쌓은 수강생들은 성북구를 넘어 각종 외부 경연대회에 참가하였고, 성북문화원은 이를 적극 후원하였다.

성북문화원 수강생들은 '서예·사군자 경연대회', '국악·무용 경연대회', '전통예술경연대회', '민요경창대회', '댄스스포츠 대회' 등 다양한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이러한 경연대회는 수강생들에게 문화강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삶의 원동력을 부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길쌈경연대회

국악 · 무용 경연대회

서예 · 사군자 경연대회

청소년 사생대회

성북문화.indb 142 2016-12-11 오후 12:08:54

성북문화원 역사문화탐방

성북문화원은 2000년부터 문화강좌 수강생 및 회원을 대상으로 전국 각지의 역사·문화유산을 찾아가는 '역사문화탐방'을 진행하고 있다.

봄·가을 2회에 걸쳐 실시되는 역사문화탐방은 성북을 넘어 다양한 지역의 문화유산을 둘러봄으로서 참가자들의 문화에 대한 안목을 넓히고, 다양한 문화강좌 수강생들의 교류 증진을 위해 기획되었다.

2013년 향토사연구팀이 신설된 이후, 연구원들의 전문적인 해설이 곁들여져 회원들의 호평을 듣고 있다.

2009 역사문화탐방

2010 역사문화탐방

박수진 향토사연구팀장의 품격있는 해설

지역 전문가의 해설

성북문화.indb 143 2016-12-11 오후 12:08:57

성북 복지봉사 한마당

2008년부터 성북구청 주최로 시작된 성북 복지봉사 한마당은 지역 주민들과 단체들이 조금씩 힘을 모아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행사로, 성북문화원 또한 첫 시작부터 참가하면서 문화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중요무형문화재 제19호 선소리산타령 전수교육조교 이건자 선생이 이끄는 선소리산타령 반은 재능기부 공연을 통해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2012 복지봉사 한마당

2013 복지봉사 한마당

2014 복지봉사 한마당

2015 복지봉사 한마당

성북문화.indb 144 2016-12-11 오후 12:09:01

성북천 깃발전

매년 화창한 여름과 신선한 가을이 되면 성북천이 아름답게 변한다. 성북의 역사 · 문화를 소재로 한 아름다운 작품들이 천변을 수놓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작품들은 '성북천 깃발전'에 출품하여 선정된 것이다.

2010년 시작된 성북천 깃발전은 매년 2회에 걸쳐 천변에 작품을 전시한다. 여름에 열리는 '성북천 팔랑거리는 상상전'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창의력을 뽐내는 작품을, 가을에 열리는 '먹내음 가득한 성북천'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글·한문서예 및 캘리그라피 작품을 모집한다.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작품이 깃발로 제작되어 성북천변에 걸려 많은 사람에게 전시되는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며, 매년 많은 사람들이 응모하고 있다.

2014 팔랑거리는 상상전

2014 먹내음 가득한 성북천

깃발을 감상중인 행인

2016 팔랑거리는 상상전 포스터

성북문화.indb 145 2016-12-11 오후 12:09:07

나눔이 있는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희喜낙樂"

2010년부터 시작된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희喜낙樂"은 은퇴 후 사회활동이 많지 않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다양한 요소가 공존하는 통합 예술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자존감 향상 및 정체성을 확립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가진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따라 연극을 배우고, 실력을 갈고닦아 직접 무대에 서는 과정을 통해 소위 '백세 시대'에서 어르신들이 인생 제 2막을 여는 전환점을 갖게 하였다. 각 지역에 위치한 사회복지관, 노인회관 등을 다니며 무료 봉사 공연을 하여 문화 나눔의 기쁨까지 누리게 하였다.

"희喜낙樂"에서는 현재까지 '할머니도 꿈이 있어', '내 사랑 금순아', '연화별곡' 등의 연극을 공연하였다.

'내 사랑 금순아' 공연 모습

공연을 마친 후 단체사진

연습 모습

문화나눔을 실천하는 "희喜낙樂"

성북문화.indb 146 2016-12-11 오후 12:09:13

어르신 문화동아리

어르신 문화동아리 사업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어르신들이 하나의 주제로 모여 서로 교류하고 때론 배우고 때론 협력하며 새로운 취미생활과 함께 영위해나갈 수 있게 한 만든 프로그램이다.

성북문화원에서는 2011년 수묵산수화 동아리 '동묵회'와 우리동네 역사문화유산 답사동아리 '길따라 발길따라'를 시작으로 수묵산수화 동아리 '영묵회', 스포츠댄스 동아리 'Dancing with the Silverstars', 국악합창동아리 '성밖세상 소리단' 등이 조직되어 어르신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묵산수화 동아리 '영묵회'

대회에 출전한 스포츠댄스 동아리
'Dancing with the Silverstars'

국악합창동아리 '성밖세상 소리단'

역사문화유산 답사동아리 '길따라 발길따라'

성북문화.indb 147 2016-12-11 오후 12:09:16

성북문화원 인문학 특강

성북문화원은 구민들의 인문학적 소양의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인문학 강좌를 실시하였다. 때로는 각계의 명사들을 초청하기도 하였고, 주변의 대학과 연계하는 강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또한 성북문화원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향토사연구팀에서 직접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성북문화원 인문학 특강은 다양한 주제와 강연진으로 구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2013 역사문화특강
서울역사편찬원 나각순 시사편찬과장
〈한양도성이야기〉

2013 역사문화특강
한글문화연대 정재환 공동대표
〈아름다운 한글나라를 꿈꾸다〉

2015 인문학으로 보는 동아시아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최규진 수석연구원
〈일상으로 보는 인문학〉

2016 특강
성북문화원 박수진 향토사연구팀장
〈성북구와 이육사〉

성북문화.indb 148 2016-12-11 오후 12:09:19

서울시 문화원 엑스포

'서울! 25色 문화원 어울림'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서울시 문화원 엑스포는 다채로운 색깔을 지닌 서울의 25개 지방문화원이 한 자리에 모여 벌인 축제의 장이다.

성북문화원의 강성봉 사무국장이 행사 총감독으로 참여하여 그의 기획력과 추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2016년 2회 엑스포에 성북문화원은 전통부채 만들기 체험, 만해 한용운 시 캘리그라피 작품전시회, 선소리산타령 공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참여하여 많은 이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선소리산타령 공연

총감독 강성봉 사무국장 인터뷰

외국인도 즐기는 전통부채 만들기

캘리그라피 작품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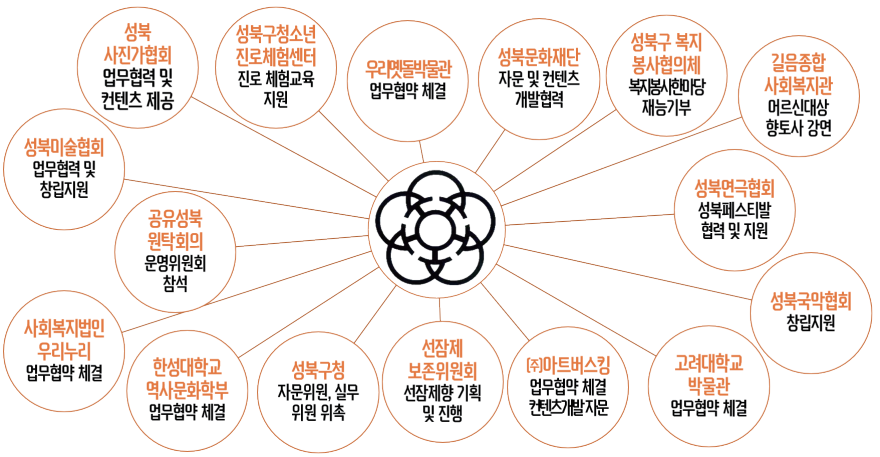
성북문화.indb 149 2016-12-11 오후 12:09:23

02

지역문화 네트워크 구축

성북문화원은 지난 몇 년 간 지역 내의 유관기관, 협회, 단체 등과 지속적인 업무 교류 및 협약을 통해 많은 지역문화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들과의 유기적인 연계 및 업무협약 체결은 보다 효율적인 사업 원동력이 되었다. 단체들 간의 징검다리 역할도 하면서 지역문화 네트워크의 허브가 되었다.

지역문화 네트워크 구축



기관종류	기관명	협력내용
지방자치단체	성북구청	- 역사문화지구 자문위원 · 실무위원 위촉 - 동 축제 · 문화행사 고증 자문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 축제 · 문화행사 고증 자문 - 역사문화콘텐츠 개발 협력 - 인문학 특강 출강
재단법인	(재)내셔널트러스트	- 역사문화탐방 등 업무협력
박물관	우리옛돌박물관	- 업무협약(MOU) 체결
박물관	고려대학교 박물관	- 업무협약(MOU) 체결
교육기관	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	- 업무협약(MOU) 체결
교육기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 향토사 연구 협력 및 문화행사 진행
교육기관	성북구청소년진로체험센터	- 진로 체험교육 지원
복지시설	성북구복지봉사협의체	- 복지&봉사한마당 공연협력 및 재능기부
복지시설	길음종합사회복지관	- 인문학 특강 출강
사회적기업	㈜아트버스킹	- 업무협약(MOU) 체결 - 역사문화콘텐츠 개발 자문
사회적기업	사회복지법인 우리누리	- 업무협약(MOU) 체결
종교단체	대한불교조계종 정각사	-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진행 지원
종교단체	덕수교회	- 향토사 연구 협력
종교단체	대한불교조계종 흥천사	- 만해 한용운 선사 추모 다례재 진행 - 향토사 연구 협력
종교단체	성북동성당	- 향토사 연구 협력
지역문화예술단체	선잠제보존위원회	- 선잠제향 기획 및 진행
지역문화예술단체	공유성북원탁회의	- 운영위원회 참석
지역문화예술단체	성북미술협회	- 업무협력 및 창립행사 지원
지역문화예술단체	성북사진가협회	- 업무협력 및 콘텐츠 제공
지역문화예술단체	성북연극협회	- 업무협력 및 지원
지역문화예술단체	성북국악협회	- 업무협력 및 창립행사 지원

성북문화.indb 152 2016-12-11 오후 12:0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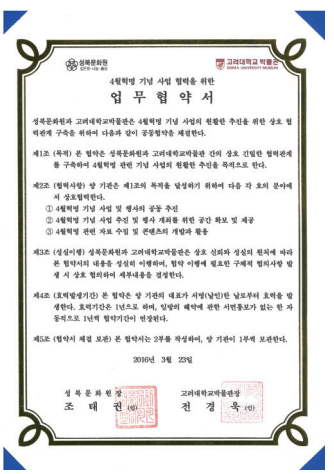
사회복지법인 우리누리 업무협약 체결

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 업무협약 체결

우리옛돌박물관 업무협약 체결

(주)아트버스킹 업무협약 체결

성북연극협회 업무협약 체결



고려대학교 박물관 업무협약 체결

성북문화.indb 153 2016-12-11 오후 12:09:29

성북문화원에 향토사연구팀이 신설된지 어느덧 4년이 흘렀다.

성북문화원 20년 전체의 역사에 비해 짧은 시간이지만, 이 기간 향토사연구 팀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책자를 발간하고, 학술회의를 진행하고, 각종 특강을 진행하는 등 수많은 결실을 맺었다.

원천 콘텐츠는 뮤지컬 제작, 퍼포먼스 고증에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들도 성북문화원 초기, 향토사 연구에 힘썼던 선행 연구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성북문화원 초기에 향토사 연구에 관심 가졌던 분들과, 현재 향토사 연구에 힘쓰고 있는 향토사연구팀에 박수를 보내며 소기의 성과들을 잠시 감상 해보도록 하자.

03

향토사 연구 및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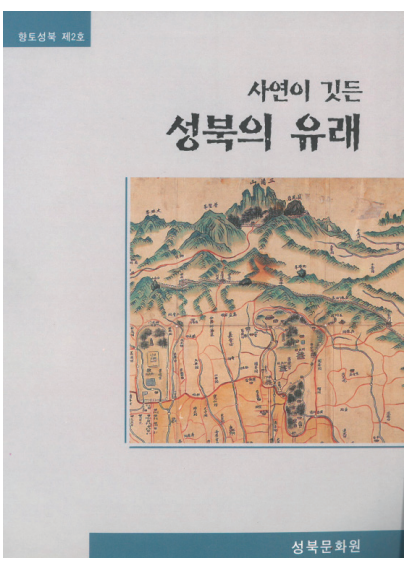
책자 발간

01. 『성북의 문화재』(1997)

- 저 자 : 박경룡
- 목 차 : 〈국가 지정 문화재〉
  - 국보
  - 보물
  - 사적
  - 중요
  - 무형문화재
  - 중요 민속자료

  〈서울시 지정 문화재〉
  - 서울시 유형 문화재
  - 서울시 무형 문화재
  - 서울시 기념물
  - 서울시 민속자료
  - 비지정문화재 및 유적
  - 부록
- 내 용 : 성북구의 문화재를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정리 · 소개한 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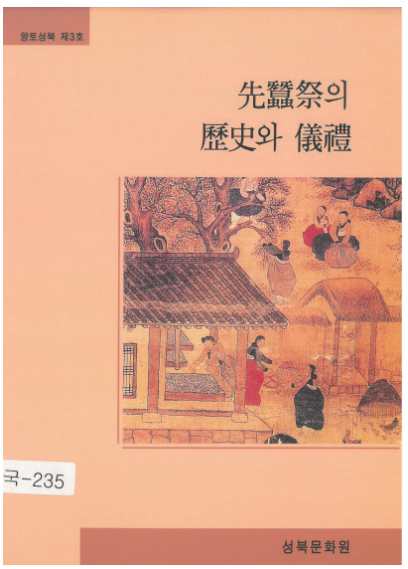
02. 『사연이 깃든 성북의 유래』(1998)



- 저 자 : 양보경
- 목 차 : 성북의 발자취
  - 도심 속의 무릉도원, 성북동
  - 혜화문 밖 길마을, 동소문동
  - 신선들의 놀이터, 삼선동
  - 서울 동북 교통의 요지, 동선동
  - 돌산과 되너미고개, 돈암동
  - 편안한 바위에 자리한 역사의 동네, 안암동
  - 단종비의 애환 어린 동망봉과 탑골, 보문동
  - 북한산 자락의 능마을, 정릉동
  - 긴 골짜기를 품은 삼태기, 길음동
  - 북바위 마을, 종암동
  - 반달모양 산등성이에 자리한 다릿골, 상월곡동과 하월곡동
  - 장위산인의 은거지, 장위동
  - 한양의 동쪽 경계 돌곶이능마을, 석관동
- 내 용 : 『성북구지』 이후 처음으로 동명 유래 및 문화유산을 정리한 책자

성북문화.indb 156 2016-12-11 오후 12:09:30

03.『先蠶祭의 歷史와 儀禮』(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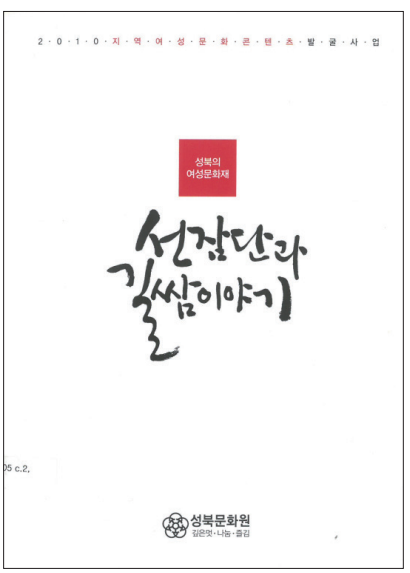


-저 자 : 장철수 / 김혜숙
-목 차 : 〈선잠 의례의 시대적 전개〉
- 고려시대
- 조선시대

〈선잠 의례의 내용〉
- 선잠제(先蠶祭)
- 친잠례(親蠶禮)

- 내 용 : 성북구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로, 국가의 잠업(蠶業)의 풍요를 기원하던 선잠제향에 대한 성북구 최초의 연구서적

04.『선잠단과 길쌈이야기』(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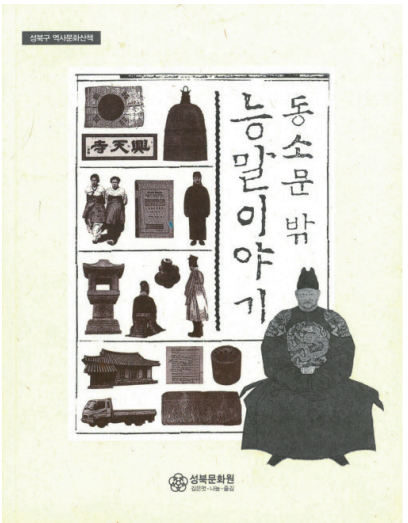
- 저 자 : 여성문화유산연구회 (김소원, 남미혜, 임혜련, 이정향, 김효경, 최선경)
- 목 차 : 〈선잠단에 관한 기록들〉
  - 신화로 만나는 누에, 비단, 옷 이야기
  - 조선시대 양잠업과 여성
  - 친잠례와 선잠제 의례와 의의
  - 18세기 이후 왕비의 친잠과 양잠산업의 변화
  - 여성의 일, 길쌈의 역사와 축제

  〈선잠단에 관한 기억들〉
  - 선잠단에 관한 기억들

- 내 용 : 선잠단지에 관한 이야기는 물론, 산업으로서의 양잠, 의생활, 여성의 산업 활동 등 선잠제향과 얽힌 다양한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다룬 서적

성북문화.indb 157 2016-12-11 오후 12:09:30

05.『동소문 밖 능말이야기』(2013)



- 저 자 : 강성봉 / 박수진 / 백외준 / 배경식 / 문일웅
- 목 차 : 〈1부〉 동소문 밖 자연 그리고 마을
  - 자연환경과 능말
  - 동소문 밖 마을들의 동신제

  〈2부〉 정릉 일대
  - 신덕왕후, 정릉 그리고 흥천사
  - 동소문 밖 길손들의 발자취
  - 정릉동 사람들의 어제와 오늘

  〈3부〉 의릉 일대
  - 의릉의 희로애락
  - 석관동 · 장위동의 현대사

  〈4부〉 동소문 밖 사람들
  - 독립운동가
  - 4.19혁명의 얼굴들

- 내 용 : (성북구 역사산책 01권)정릉과 의릉 권역의 역사적 사실을 정리하는 한편, 그곳과 관련이 있는 역사적 인물들들 발굴하여 읽기 편한 문체로 풀어낸 책자.

06.『미아리고개』(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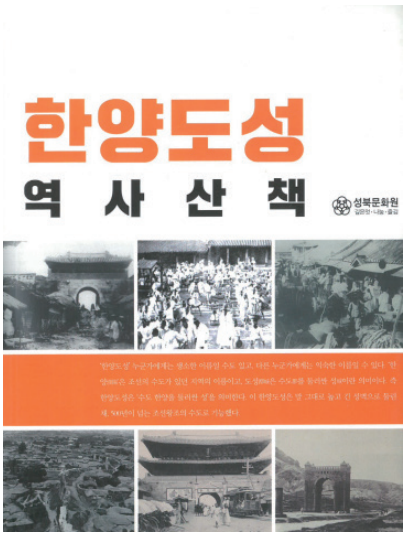
- 저 자 : 박수진, 백외준, 김희식, 위가야, 차현주, 이승준
- 목 차 : 〈1부〉 미아리고개의 역사
  - 되너미고개의 유래
  - 미아리 공동묘지
  - 한국전쟁과 미아리고개
  - 도시의 확장과 미아리고개
  - 서라벌예술대학과 미아리고개

  〈2부〉 미아리 점성촌
  - 미아리 점성촌의 안과 겉
  - 한국 점술의 주역, 시각장애인
  - 미아리 점성촌이 걸어온 길
  - 미아리 점성촌의 역학사들

- 내 용 : (성북구 역사산책 02권)조선시대에서 현대까지 미아리고개에 담긴 역사적 이야기들을 다룬 책자. 특히 시각장애인 문제를 다루어 그들에 관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기도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성북문화.indb 158 2016-12-11 오후 12:09:30

07.『한양도성 역사산책』(2014)



-저 자 : 박수진 / 윤경섭 / 위가야 / 최우석 / 서준석 / 이승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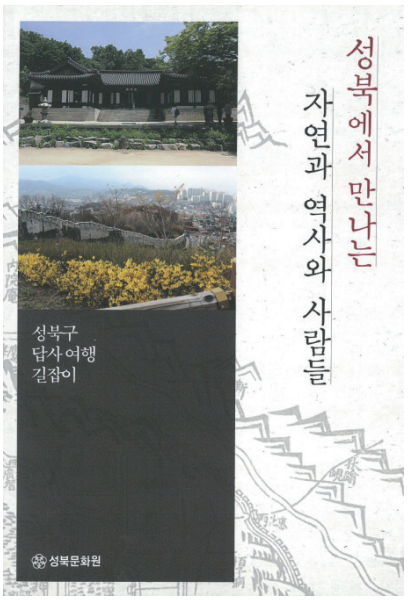
-목 차

- 서론: 한양도성 이야기를 시작하며
- 한국의 옛 도성
- 한양도성의 입지조건과 축조과정
- 한양도성의 문
- 한양도성의 산
- 도성의 시장들
- 한양도성의 파괴와 복원

- 내 용 : 사대문과 사소문 등 성북구를 넘은 한양도성 전체의 역사를 담고 있으며 그곳에 얽힌 사람과 사건 등에 관한 다채로운 이야기가 담겨있다.

성북문화.indb 159 2016-12-11 오후 12:09:30

08.『성북에서 만나는 자연과 역사와 사람들-성북구 답사여행 길잡이』(2014)



-저 자 : 박수진 / 백외준

-목 차

- 사연이 깃든 성북구의 오랜 역사 이야기
- 고지도가 담고 있는 성북 (조선시대)
- 일제강점기 "경성"의 변두리
- 성북동 비둘기 (해방이후)

〈제 1권역〉 - 성북동의 유래 / 서울 선잠단지 / 성락원 / 이종석 별장 / 심우장 / 상허 이태준 고택 / 간송미술관 / 최순우 옛집 / 한국 가구 박물관 / 정법사 / 길상사

〈제 2권역〉 - 평평하고 드넓은 땅, 삼선평에서 유래된 삼선동 / 동소문동의 동자와 삼선동의 선자를 따서 만든 동선동 / 되너미골, 되너미재에서 유래된 돈암동 / 보문사에서 유래된 보문동 / '앉일바위'라 하던 것을 한자로 옮겨 쓴 것에서 유래된 안암동 / 서울 한양도성 / 삼군부총무당 / 돈암장 / 고려대학교 본관 /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 권진규 아뜰리에 / 흥천사 / 적조사 / 보문사 / 미타사 / 개운사 / 미아리고개 / 아리랑고개

〈제 3권역〉 - 왕후의 무덤을 품고 있는 데서 유래된 정릉동 / 기리묵골, 기레미골에서 유래된 길음동 / 정릉 / 경국사 / 봉국사 / 내원사 / 영취사 / 장교동 한규설대감가

〈제 4권역〉 - 북처럼 생긴 커다란 바위가 있는 마을에서 유래된 종암동 / 천장산의 형세가 마치 반달과 같다고 하여 유래된 월곡동 / '돌곶이' 마을에서 유래된 석관동 / 마을 뒤 장위산이라 불리는 산에서 유래된 장위동 / 구 중앙정보부 강당 / 장위동 김진흥가 / 의릉

- 내 용 : 성북구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간단히 소개하고, 위치 및 교통편 등을 안내하여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만든 답사 책.

성북문화.indb 160 2016-12-11 오후 12:09:30

09.『성북동 - 만남의 역사, 꿈의 공간』(2015)

-저 자 : 박수진 / 백외준 / 남기현 / 한봉석 / 김보라 / 김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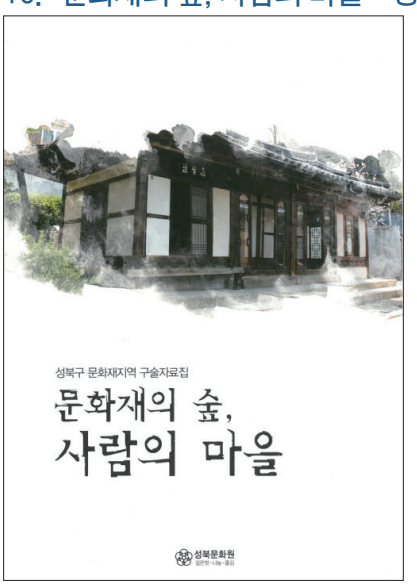
-목 차 : 〈1부〉 만남의 역사
- 1장 조선시대의 성북동(1392~1910)
- 2장 일제강점기의 성북동(1910~1945)
- 3장 현대의 성북동(1945~현재)

〈2부〉 꿈의 공간들
- 1장 심우장과 노시산방
- 2장 수연산방과 간송미술관
- 3장 김광섭의 집

〈부록〉
- 성북동의 명소들
- 성북동 연표
- 찾아보기

- 내 용 : (성북구 역사산책 03권) 성북동의 역사를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정리하였으며, 성북동에 살던 문화 예술인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에 관해 쓰고 있다.

10.『문화재의 숲, 사람의 마을 - 성북구 문화재지역 구술자료집』(2015)



-저 자 : 박수진 / 백외준 / 고지수 / 이현주

-목 차 : 〈1부〉 유형 및 무형문화재
- 유형문화재 - 북정마을 / 정릉 / 심우장 / 장위동 부마가옥 / 흥천사 / 성라원
- 무형문화재 - 대금산조의 산 증인 / 선소리산타령의 맥을 잇다

〈2부〉 성북의 역사
- 대를 이은 독립운동
- 성북동 토박이가 들려주는 마을 이야기
- 길음동 주민이 들려주는 미아리고개 이야기
- 정릉 옆 마을, 교수단지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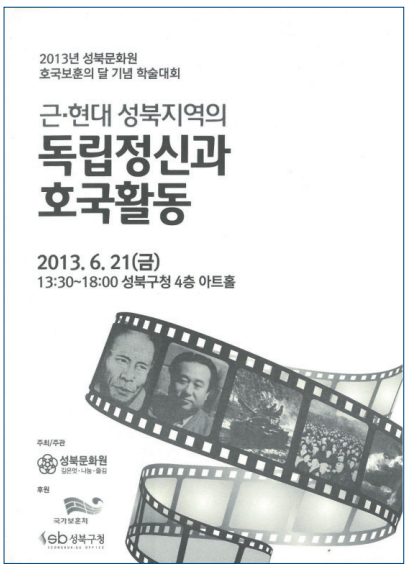
〈부록〉
- 성북구 문화재 현황

- 내 용 : 성북구에 오래 거주하며 문화재와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리하여 발간한 구술 자료집. 문화유산은 물론 역사적 사건 및 인물에 관한 구술도 다양하게 수록되었다.

성북문화.indb 161 2016-12-11 오후 12:09:30

학술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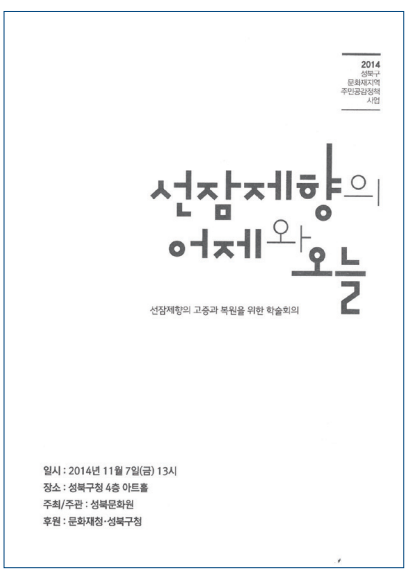
01. 『근현대 성북지역의 독립정신과 호국활동』(2013)



- 일 시 : 2013년 6월 21일 (금)
- 장 소 : 성북구청 4층 아트홀
- 발 표
  - 만해 한용운의 민족사상과 민족운동
    (발표 : 김광식 / 토론 : 차차석)
  - 간송 전형필의 문화재 사랑 보기
    (발표 : 김인덕 / 토론 : 최재성)
  - 한국전쟁 초기 창동·미아리전투의 전황과 호국인물들
    (발표 : 김유석 / 토론 : 손규석)
  - 4.18 고려대 학생시위와 4월 민주화운동
    (발표 : 김행선 / 토론 : 이나미)

- 의 미 : 독립운동과 한국전쟁, 4월 혁명 등 한국사의 중요한 순간의 성북구의 활동을 짚어 봄으로서 성북구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재확인했던 학술회의.

02. 『선잠제향의 어제와 오늘』(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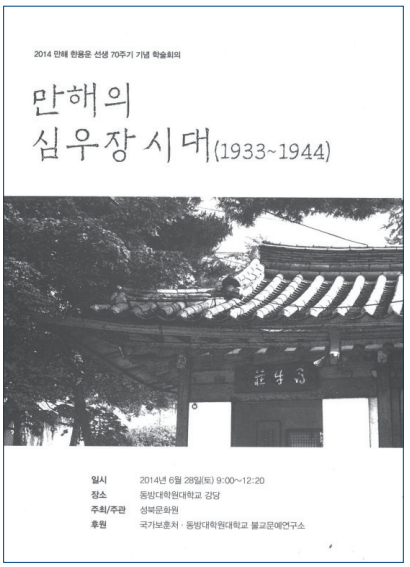


- 일 시 : 2014년 11월 7일 (금)
- 장 소 : 성북구청 4층 아트홀
- 발 표
  - 조선시대 선잠의식의 현대사적 의미
    (발표 : 한형주 / 토론 : 김상태)
  - 조선시대 친잠례·선잠제 시행과 그 의미
    (발표 : 임혜련 / 토론 : 이근호)
  - 조선시대 문헌에 나타난 선잠제향 복식 검토
    (발표 : 이민주 / 토론 : 윤양노)
  - 조선시대 양잠을 위한 국가 전례와 음악
    (발표 : 이숙희 / 토론 : 문주석)

- 의 미 : 선잠제향에 사용된 복식, 음악 등의 고증을 실시하여, 보다 완벽한 선잠제향의 복원의 기조자료 완성

성북문화.indb 162 2016-12-11 오후 12:0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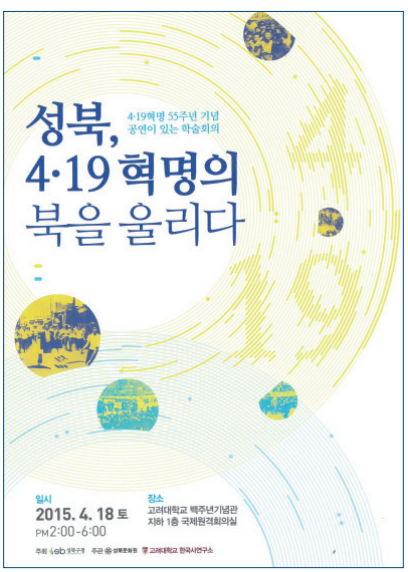
03.『만해의 심우장 시대』(2014)



- 일 시 : 2014년 6월 28일 (토)
- 장 소 : 동방대학원대학교 강당
- 발 표
  - 일제강점기 후반 불교계의 동향과 한용운의 불교사상
    (발표 : 이덕진 / 토론 : 오경후)
  - 일제강점기 후반기 문학계의 동향과 후반기 만해 문학사상
    (발표 : 백원기 / 토론 : 차차석)
  - 1930년대 한용운의 불교 개혁론과 민족의식 고취
    (발표 : 김성연 / 토론 : 고영섭)
  - 1930년대의 문화지형과 한용운의 삶
    (발표 : 배경식 / 토론 : 석길암)

- 의 미: 그간 종로시절 및 백담사 시절에 집중되었던 한용운 연구에서 벗어나, 심우장 시대 연구의 문을 연 학술회의.

04.『성북, 4.19혁명의 북을 울리다』(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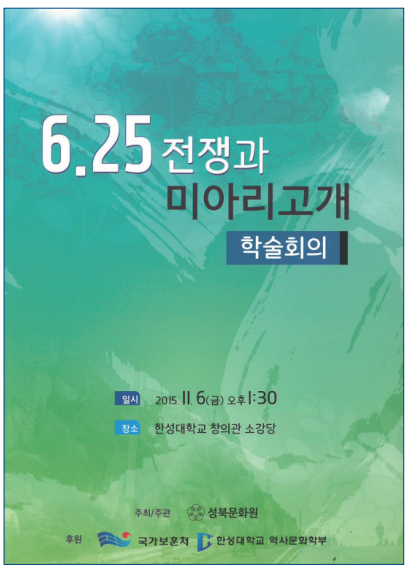


- 일 시 : 2015년 4월 18일 (토)
- 장 소 :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지하 1층 국제원격회의실
- 발 표
  - 4.19전후 서울의 학생시위와 성북구
    (발표 : 오제연 / 토론 : 정무용)
  - 혁명과 민주주의, 그 기억 정치의 재구성
    (발표 : 이상록 / 토론 : 김아람)
  - 혁명의 장소들과 데모대의 시위 양상
    (발표 : 윤상원 / 토론 : 이정은)
  - '4월 혁명 시기' 대학생들의 통일인식
    (발표 : 이주봉 / 토론 : 홍정완)

- 의 미 : 4월 혁명의 불꽃이 시작되었던 성북 지역의 의미를 알리고, 당시 여러 계층이 갖고 있던 인식을 발표하여 4월 혁명 시절 성북구의 의미를 되새기는 학술회의.

성북문화.indb 163 2016-12-11 오후 12:0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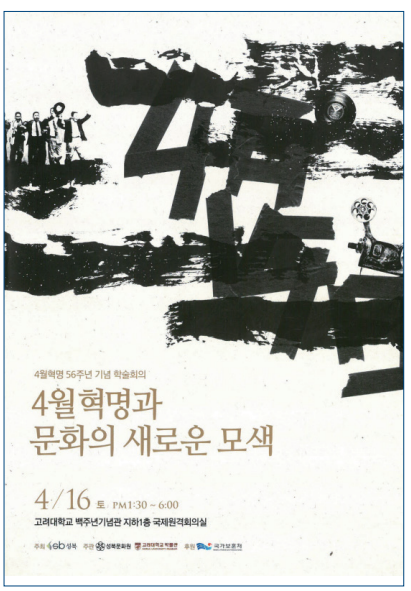
05. 『6.25전쟁과 미아리고개』(2015)



- 일 시 : 2015년 11월 6일 (금)
- 장 소 : 한성대학교 창의관 소강당
- 발 표
  - 방어목적과 결정적 작전 측면에서 6.25전쟁 간 서울외곽 방어전투 분석
    (발표 : 김유석 / 토론 : 손규석)
  - 6.25전쟁 시기 월·납북의 실상
    (발표 : 이신철 / 토론 : 남보람)
  - 6.25전쟁과 1950년대의 대중가요
    (발표 : 이준희 / 토론 : 박수진)

- 의 미 : 6.25전쟁 당시 수도 서울을 지켰던 마지막 보루였던 미아리고개 전투의 실상을 자세히 알리고, 당시에 일어났던 납북의 실상, 전쟁이 문화에 남긴 여운 등을 살펴 본 학술회의

06. 『4월 혁명과 문화의 새로운 모색』(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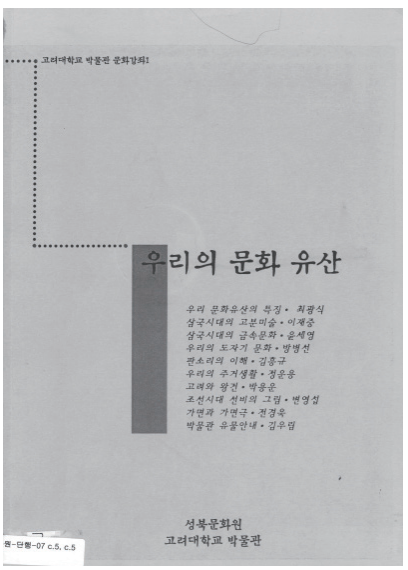
- 일 시 : 2016년 4월 16일 (토)
- 장 소 :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지하1층 국제원격회의실
- 발 표
  - 기조강연1 : 4.19혁명의 역사적 위상과 현재적 의미 (윤경로)
  - 기조강연2 : 4월혁명과 신동엽 시인 (인병선)
  - 주제1 : 4.19와 한국문학 - 10개의 질문을 통해 본 그 상관성의 문제
    (발표 : 권보드래 / 토론 : 함돈균)
  - 주제2 : 혁명의 노래, 미완의 노래 - 4.19혁명 전후 대중음악계의 동향
    (발표 : 이준희 / 토론 : 이영미)
  - 주제3 : 4.19혁명이 영화계에 미친 영향 고찰 - 혁명 후 1년간의 기록을 통해
    (발표 : 함충범 / 토론 : 한상언)

- 의 미 : 4월 혁명은 우리 삶의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문학, 음악, 영화 등 문화의 변화를 통해 살펴본 학술회의

성북문화.indb 164 2016-12-11 오후 12:09:31

시민강좌 인문학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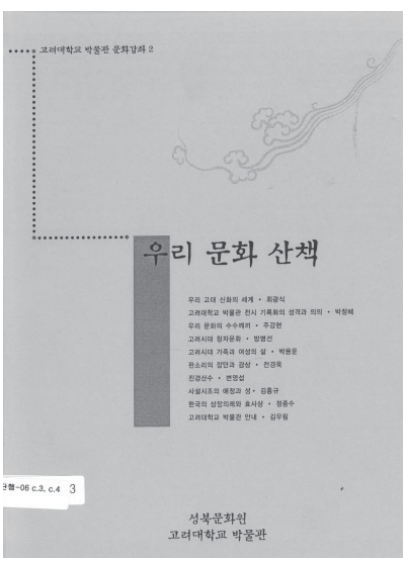
01.『고려대학교 박물관 문화강좌 I - 우리문화유산』(2000)



- 일 시 : 2000년 10월
- 장 소 : 고려대학교 박물관 시청각교육실
- 강 연
  - 우리 문화유산의 특징 ; 산신각과 장승 (최광식)
  - 삼국시대의 고분미술 (이재중)
  - 한국의 도자기 (방병선)
  - 판소리의 이해 (김흥규)
  - 한국의 주거문화 (정운용)
  - 고려와 왕건 (박용운)
  - 미술작품 이해를 위한 몇 가지 생각 (변영섭)
  - 한국 가면극의 이해 (전경욱)
  - 고려대학교 박물관 안내 (김우림)

- 의 미 : 성북문화원과 고려대학교 박물관이 함께 최초로 진행한 문화강좌로, 당대 분야별 최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성북구민을 위해 진행한 문화강좌

02.『고려대학교 박물관 문화강좌 II - 우리문화산책』(2001)



- 일 시 : 2001년 5월 2일~7월 11일 매주 수요일
- 장 소 : 고려대학교 박물관 시청각교육실
- 강 연
  - 우리 고대 신화의 세계 (최광식)
  - 고려대학교 박물관 전시 기록화의 성격과 의의 (박정혜)
  -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 (주강현)
  - 고려시대 청자문화 (방병선)
  - 고려시대 가족과 여성의 삶 (박용운)
  - 판소리의 장단과 감상 (전경욱)
  - 진경산수 (변영섭)
  - 사설시조의 애정과 성(性) (김흥규)
  - 한국의 상장의례와 효사상 (정종수)
  - 고려대학교 박물관 안내 (김우림)

- 의 미 : 성북문화원과 고려대학교 박물관이 함께 두 번째로 진행한 문화강좌로, 당대 분야별 최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성북구민을 위해 진행한 문화강좌

성북문화.indb 165 2016-12-11 오후 12:09:31

03. 성북문화원 역사문화특강(2013)

- 일 시 : 2013년 3월 25일~ 7월 8일(총6회)
- 장 소 : 성북구평생학습관 중강의실
- 강 연
  - 3월 25일
    한양도성 이야기 - 나각순(서울역사편찬원 시사편찬과장)
  - 4월 8일
    성북구의 역사와 문화유산 - 이재범 (경기대학교 명예교수, 경기도문화재 위원장)
  - 5월 6일
    국가브랜드와 한국문화 - 조태권 (성북문화원장, 광주요그룹 회장)
  - 6월 10일
    조선시대 양반들의 삶과 문화 - 권기중 (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 교수)
  - 7월 8일
    아름다운 한글나라를 꿈꾸다 - 정재환 (한글문화연대 공동대표)
  - 7월 22일
    리더와 역사인식 - 안주섭 (한국미래문제연구원장, 전 대통령경호실장 및 국가보훈처장)

- 의 미 : 성북구민을 대상으로 한양도성 등 성북구에 위치한 문화유산을 넘어 한글, 국가브랜드 및 역사 속의 리더십 등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펼쳐진 문화강좌.

성북문화.indb 166 2016-12-11 오후 12:09:31

04. 2015 성북문화원 도서발간 기념강연회(2015)

- 일 시 : 2015년 7월 22일~8월 19일(매주 수요일) 저녁 7시~9시(총5회, 10강)
- 장 소 : 성북문화원 1층 소강당
- 강 연
  - 7월 22일
    한양도성의 탄생 - 위가야(성균관대학교 박물관 학예사)
    한양도성의 산 - 최우석(성균관대학교 박물관 학예사)
  - 7월 29일
    한양도성의 문 - 박수진(성북문화원 향토사연구팀장)
    한양도성의 시장 - 서준석(서울역사편찬원 전임연구원)
  - 8월 5일
    한양도성의 파괴와 복원- 최우석(성균관대학교 박물관 학예사)
    되너미 고개의 진실- 박수진(성북문화원 향토사연구팀장)
  - 8월 12일
    미아리 공동묘지 이야기 - 박수진(성북문화원 향토사연구팀장)
    한국전쟁과 미아리고개 - 위가야(성균관대학교 박물관 학예사)
  - 8월 19일
    미아리고개와 역술 - 백외준(성북문화원 향토사연구원)
    서라벌예술대학 이야기 - 백외준(성북문화원 향토사연구원)
- 의 미 : 성북문화원에서 발간한『미아리고개』(2014),『한양도성 역사산책』(2014)의 저자들과 함께 하는 특별 강연회로 성북구 지역 주민들에게 성북의 문화를 알리는 계기를 만든 발표회

성북문화.indb 167 2016-12-11 오후 12:09:35

05. 성북구 문화다양성의 뿌리를 찾아서 (2015)

- 일 시 : 2015년 1월 28일~2월 14일
- 장 소 : 성북예술창작터(서울 성북구 성북동1가 74-1/ 한성대입구역 5번출구 도보2분)
- 내 용
  - 1월 28일 (수)
    잊혀진 이름 '이은숙', 아나키스트의 아내 : 박수진(성북문화원 향토사 연구팀장)
    공주와 은자의 집 : 장위동 부마가옥 이야기 : 백외준(성북문화원 향토사연구원)
  - 2월 4일 (수)
    만해 한용운의 심우장 시대 : 배경식(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
    성북구민이 전국최다득표로 선택했던 영원한 민족운동가 조소앙 : 이신철(성균관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 2월 11일 (수)
    해방 후 장건상의 정치활동 : 박창희(성균관대 사학과)
    일제강점기 변두리 서울 사람들의 설움과 꿈 : 조규태(한성대 역사문화학부 교수)
  - 2월 14일 (토)
    강의 관련 장소 답사(버스 이용) : 박수진·백외준(성북문화원 향토사연구팀)

- 의 미 : 성북문화재단과 함께한 강좌로, 독립운동가의 아내, 월북 정치인, 은거한 선비 등 다양한 주제를 갖고 성북구 문화의 다양성을 찾아가는 강연

성북문화.indb 168 2016-12-11 오후 12:09:35

06. 인문학으로 보는 동아시아(2015)

- 일 시 : 2016년 4월 21일 ~ 5월 26일, 매주 월요일 저녁 7시~9시
- 장 소 : 성북문화원 1층 소강당
- 강 연(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원)
    - 4월 21일 : 일상으로 보는 인문학_최규진
    - 4월 28일 : 식민지 조선의 여성들_최규진
    - 5월 12일 : 자장면을 통해 본 한국 화교의 역사_김지훈
    - 5월 19일 : 서구인들은 동양을 어떻게 보았을까?_이진일
    - 5월 26일 : 한국에 들어온 일본의 놀이문화_한혜인

성북문화.indb 169 2016-12-11 오후 12:09:37

07. 근대 동아시아와 한국의 생활문화(2016)

- 일 시 : 2016년 4월 4일~5월 9일, 매주 월요일 저녁 7시~9시
- 장 소 : 성북문화원 1층 소강당
- 강 연(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원)
    - 4월 04일 : 생활 속에서 느끼는 내 곁의 인문학_최규진
    - 4월 11일 : 서양인이 본 조선의 생활문화_이진일
    - 4월 18일 : 서서 먹는 선술집, '에로 서비스'의 카페_최규진
    - 4월 25일 : 근대 동아시아의 음식문화_김지훈
    - 5월 02일 : 한국에 스며든 일본문화_한혜인
    - 5월 09일 : '병참기지 조선'의 전쟁 같은 광고_최규진

- 의 미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역사연구소와 함께 하는 강연으로 성북구민들에게 동아시아 속의 한국문화를 찾아보며, 근대 문화 속에서 한국 문화가 어떻게 변화에 왔는지를 살펴 봄.

성북문화.indb 170 2016-12-11 오후 12:09:39

문화 콘텐츠 제작

01. 뮤지컬 '꿈을 꾸는 아이들' (2012)

- 제 목 : 꿈을 꾸는 아이들
- 소 재 : 만해 한용운
- 내 용 : 동구여자중학교 뮤지컬 동아리 FAME과 성북문화원이 함께 만든 뮤지컬 '꿈을 꾸는 아이들'은 중학생의 시각으로 바라본 만해 한용운 선생의 일대기를 담은 작품이다.

02. 뮤지컬 '약속' (2013)

- 제 목 : 약속
- 소 재 : 미아리고개
- 내 용 : 동구여자중학교 뮤지컬 동아리 FAME과 성북문화원이 함께 만든 뮤지컬 '약속'은 6 · 25전쟁 당시 미아리고개에서 헤어진 가족과 만나기 위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03. 뮤지컬 '시간을 달리는 소녀' (2014)

- 제 목 : 시간을 달리는 소녀
- 소 재 : 4 · 19혁명과 한성여중 2학년 故진영숙 학생
- 내 용 : 동구여자중학교 뮤지컬 동아리 FAME과 성북문화원이 함께 만든 뮤지컬 '시간을 달리는 소녀'는 4 · 19혁명 당시 시위에 참여했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한성여중 2학년 진영숙 학생을 현대의 학생들이 시간여행으로 만나게 되면서 일어난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성북문화.indb 171 2016-12-11 오후 12:09:43

04. 뮤지컬 '심우' (2014)

- 제목 : 심우
- 소재 : 만해 한용운 선사, 심우장
- 내용 : 성북구 지역 예술단체인 극단 더늠과 성북문화원이 함께 만든 뮤지컬 '심우'는 만해 한용운 선사가 말년을 보낸 심우장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특히 실제 장소인 심우장에서 극이 진행되어 더 큰 의미와 감동을 선사하여 현재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다.

05. 거리극 '특별한 손님' (2014)

- 제목 : 특별한 손님
- 소재 : 미아리고개 맹인점성촌
- 내용 : 성북구 지역 예술단체인 극단 더늠과 성북문화원이 함께 만든 거리극 '특별한 손님'은 미아리고개에 점집을 차린 한 맹인과 그를 찾아온 어느 특별한 손님과의 만남을 다룬 작품이다. 닫힌 공간에서 진행되던 연극에서 벗어나 보다 주민들이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거리에서 진행한 것이 이색적이었다.

06. 뮤지컬 '시선' (2015)

- 제목 : 시선
- 소재 : 4 · 19혁명
- 내용 : 성북구 지역 예술단체인 극단 더늠과 성북문화원이 함께 만든 뮤지컬 '시선'은 4 · 19혁명을 현대적 시각으로 바라보며 재해석한 작품이다. 4 · 19혁명을 기념하는 학술회의와 함께 진행되어 더욱 뜻깊은 공연이 될 수 있었다.

07. 뮤지컬 '어느 아나키스트의 아내' (2015)

- 제 목 : 어느 아나키스트의 아내
- 소 재 : 우당 이회영, 이은숙
- 내 용 : 성북구 지역 예술단체인 극단 더늠과 성북문화원이 함께 만든 뮤지컬 '어느 아나키스트의 아내'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중 한 사람인 우당 이회영 선생과 그의 아내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특히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철 선생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철저한 고증을 거친 뜻깊은 작품이다.

성북문화.indb 172 2016-12-11 오후 12:09:48

08. 노래 '나의 꿈' (2015)

- 제 목 : 나의 꿈
- 소 재 : 만해 한용운의 시 '나의 꿈'
- 내 용 : 성북구를 기반으로 한 밴드 빈티지프랭키연주하고 부르는 노래 '나의 꿈'은 만해 한용운 선사의 시 나의 꿈을 가사로 하여 곡을 지어 붙인 노래이다. 빈티지프랭키의 보컬 한필수의 가창력이 돋보이는 뜻깊은 노래. 심우장에서 들을 때 가장 빛난다.

09. 노래 '청포도' & '절정' (2016)

- 제 목 : 청포도 & 절정
- 소 재 : 이육사의 시 '청포도' & '절정'
- 내 용 : 성북구를 기반으로 한 밴드 빈티지프랭키연주하고 부르는 노래 '청포도'와 '절정'은 이육사의 시 청포도와 절정을 가사로 하여 곡을 지어 붙인 노래이다. 빈티지프랭키의 보컬 한필수의 음색이 돋보이는 노래다.

10. 노래 '광야' (2016)

- 제 목 : 광야
- 소 재 : 이육사의 시 '광야'
- 내 용 : 성북구 지역의 청년 예술단체 '슈필렌'이 이육사의 시 '광야'에 노래를 붙인 것으로, 바리톤 송현우의 보컬과 우리 고유의 전통악기로 연주했다.

11. 4 · 19혁명 시위 재현행사 (2016)

- 제 목 : 4 · 19혁명 시위 재현행사
- 소 재 : 4 · 19혁명
- 내 용 : 4 · 19혁명 당시 중 · 고등학생이 행했던 시위를 그들의 후배인 용문중 · 고, 한성여중 · 고의 학생들이 직접 시위를 재현해봄으로써 당시 민주화를 향한 학생들의 갈망과 염원을 체험해보는 의미있는 재현행사였다.

성북문화.indb 173 2016-12-11 오후 12:09:52

04

문화원 체제 정비

성북문화.indb 175 2016-12-11 오후 12:09:53

직제 전환 및 전문인력 보강

성북문화원은 창립 이래 지역문화 창달과 고유문화의 계발 · 보존 · 전승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이와 더불어 향토사 조사 · 연구 및 자료 수집 · 보존에도 힘을 썼는데, 그러한 결과물이 바로 향토성북 1 · 2 · 3호이다.

하지만 본격적이고 보다 깊이 있는 향토사 조사와 연구, 그리고 자료집 발간을 하기에는 전문인력이 너무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2013년, 성북문화원은 기존의 사무국 구성을 개편하여 문화예술교육사업팀과 향토사연구팀을 만든다. 그리고 향토사 연구원으로 역사문화 분야 석 · 박사급 전문인력 2명을 신규 채용하여 향토사 조사 및 연구와 함께 성북구 역사문화자원 발굴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앞서 <향토사 연구 및 활용>에 열거한 많은 성과들은 이와 같은 전문인력 충원과 향토사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이밖에도 발굴한 원천 콘텐츠들을 바탕으로 각종 축제 · 문화제를 개최하였고 동 축제, 성북 진경페스티벌 등에 고증 및 자문을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전문 인력들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5년에는 문화원 사무국 직원 전체를 정직원으로 전환하여 이들이 보다 업무에 집중하고 능률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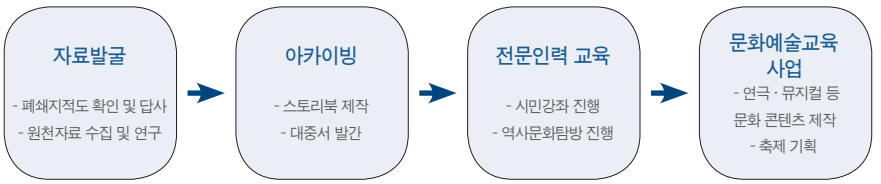
사업 전개 프로세스 확립

전문인력의 보강은 성북문화원 사업 전개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에는 기획자의 기획력에 거의 모든 것을 의존하여 사업을 진행해왔던 것에 반해, 이제는 탄탄한 원천 콘텐츠를 바탕으로 기획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전문인력들이 폐쇄지적도 확인과 직접 도보 답사를 행하고, 이와 관련된 원천자료를 수집하여 연구하여 정리하고 나면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학술회의를 개최하거

성북문화.indb 176 2016-12-11 오후 12:09:53

〈사업전개 프로세스〉



나, 아카이빙 작업을 통한 이야기자원 모음집 또는 스토리북 등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학술회의를 통해 도출되거나 아카이빙 작업을 통해 모인 자료들을 토대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강좌를 진행하거나 직접 주민들과 함께 탐방을 진행하였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마련된 각종 자료들을 활용하여 연극 · 뮤지컬 등의 문화콘텐츠로 재생산해내고, 이를 활용할 다양한 축제 · 문화제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일례로, 만해 한용운 선사와 심우장에 관련된 원천자료를 수집 및 연구하여 이를 토대로 '만해와 심우장 시대'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그리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해 한용운의 심우장 시대' 시민강좌를 진행하였고 전문해설사의 해설이 곁들여진 심우장 탐방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지역연고 예술단체 극단 더늠과 함께 창작뮤지컬 '심우'를 기획 및 제작하여 역사적 장소인 심우장에서 직접 공연하였다.

또 다른 예로 대표적 독립운동가인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 이종철 선생(정릉동 거주)과 직접 만나 인터뷰하여 그것을 채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인터뷰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그리고 이종철 선생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잊혀진 이름 이은숙: 아나키스트의 아내'라는 주제의 시민강좌를 진행하였고, 창작뮤지컬 '어느 아나키스트의 아내'를 기획 · 제작하여 무대에 올렸다.

이렇게 확립된 사업 전개 프로세스는 한층 탄탄한 사업 진행을 가능케하였으며, 요즈음 주목되는 '원 소스 멀티 유즈 (OSMU, One Source Multi Use)'방식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소스 · 콘텐츠로 여러 다양한 유형의 결과물을 만들어내 공급한다는 뜻인데, 이것은 성북문화원이 새로이 확립한 사업 전개 방식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하나의 원천 자료를 응용하여 자료집 발간, 탐방로 확보, 문화콘텐츠 제작, 시민강좌 개설, 축제 · 문화제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성북문화.indb 177 2016-12-11 오후 12:09:53

05

문화원 수상내역

성북문화.indb 179 2016-12-11 오후 12:09: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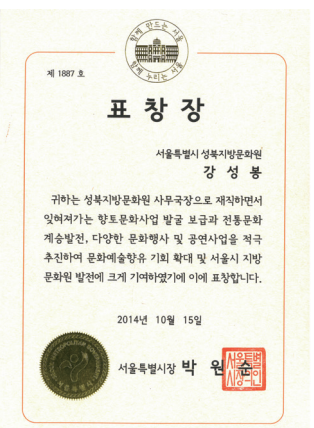
문화원 및 임직원

〈향토사 조사 우수〉
서울시문화원연합회(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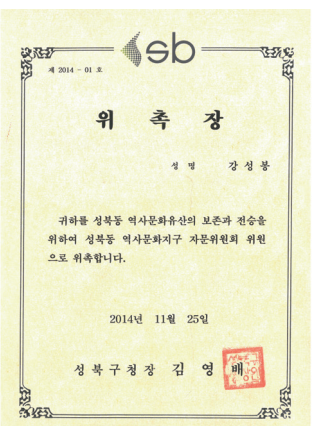
〈공로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체력과학노화연구소(2005)

〈평생학습 협력기관 지정〉
서울특별시 교육청(2008)

〈서울학생배움터 지정〉
서울특별시 교육청(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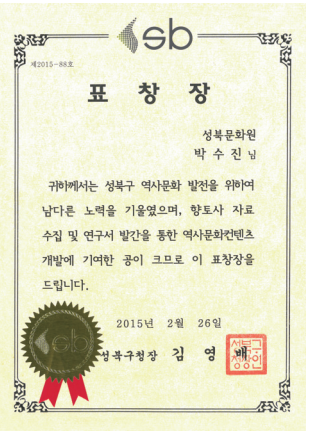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표창-사무국장 강성봉〉
서울특별시장(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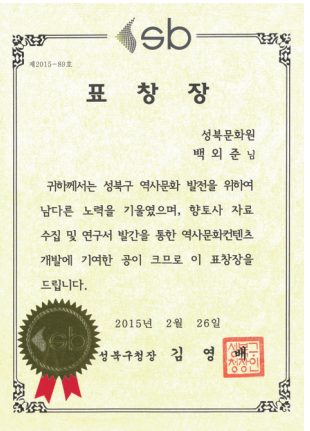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자문위원 위촉창〉
성북구청장(2014)

성북문화.indb 180 2016-12-11 오후 12:1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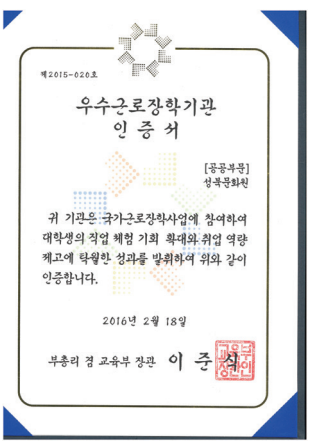


〈향토사 연구 표창장-향토사연구팀장 박수진〉
성북구청장(2015)



〈향토사 연구 표창장-향토사연구원 백외준〉
성북구청장(2015)

〈문화체육자원봉사 시·군·구 지원센터 지정〉
문화체육관광부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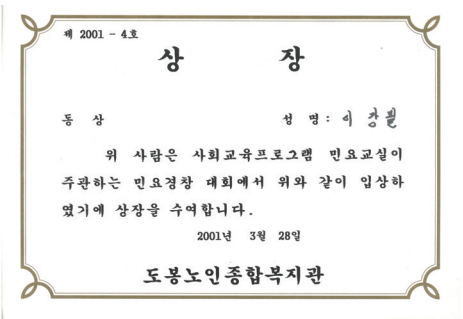
〈2015 우수근로장학기관 선정 인증서〉
교육부·한국장학재단 (2015)

〈2016 대한민국 문화원상 종합경영분야 우수상〉
한국문화원연합회 (2016)

〈2016 대한민국 문화원상 지역문화창달분야
향토사활용부문〉 한국문화원연합회 (2016)

성북문화.indb 181 2016-12-11 오후 12:10:14

회 원


제 2001 - 4호

상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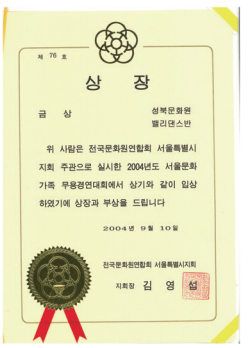
동 상 성 명 : 이 강필

위 사람은 사회교육프로그램 민요교실이 주관하는 민요경창 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01년 3월 28일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선소리산타령 반 이강필 회원
도봉노인종합복지관 민요경창 대회 동상(2001)


제 76 호

상 장

금 상 성북문화원 밸리댄스반

위 사람은 전국문화원연합회 서울특별시지회 주관으로 실시한 2004년도 서울문화가족 무용경연대회에서 상기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2004년 9월 10일

전국문화원연합회 서울특별시지회 지회장 김 영 섭

성북문화원 밸리댄스반
2004 서울문화가족 무용경연대회 금상(2004)

제 87 호

상 장

장 려 상 성북문화원 한국무용반

위 사람은 전국문화원연합회 서울특별시지회 주관으로 실시한 2004년도 서울문화가족 무용경연대회에서 상기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2004년 9월 10일

전국문화원연합회 서울특별시지회 지회장 김 영 섭

성북문화원 한국무용반
2004 서울문화가족 무용경연대회 장려상(2004)

제 331 호

상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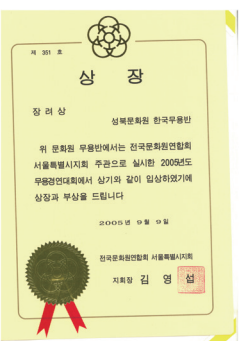
장 려 상 성북문화원 국악반

위 문화원 국악반에서는 전국문화원연합회 서울특별시지회 주관으로 실시한 2005년도 국악경연대회에서 상기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2005년 9월 8일

전국문화원연합회 서울특별시지회 지회장 김 영 섭

성북문화원 국악반
2005년도 국악경연대회 장려상(2005)


제 351 호

상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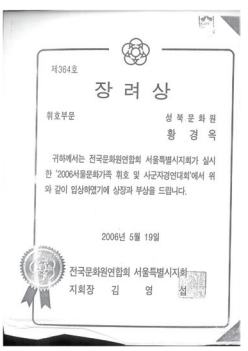
장 려 상 성북문화원 한국무용반

위 문화원 무용반에서는 전국문화원연합회 서울특별시지회 주관으로 실시한 2005년도 무용경연대회에서 상기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2005년 9월 9일

전국문화원연합회 서울특별시지회 지회장 김 영 섭

성북문화원 한국무용반
2005년도 무용경연대회 장려상 (2005)


제364호

장 려 상

휘호부문 성북문화원 황 경 옥

귀하께서는 전국문화원연합회 서울특별시지회가 실시한 '2006서울문화가족 휘호 및 사군자경연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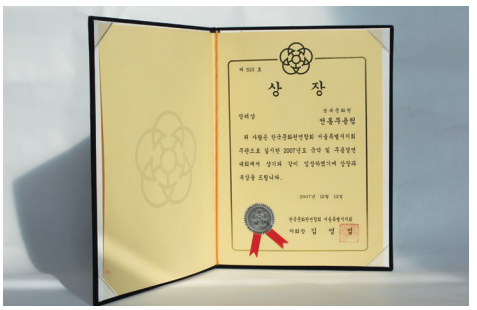
2006년 5월 19일

전국문화원연합회 서울특별시지회 지회장 김 영 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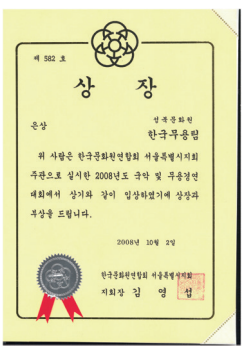
황경옥 회원
2006 서울문화가족 휘호 및 사군자경연대회
휘호부문 장려상 (2006)

성북문화.indb 182 2016-12-11 오후 12:1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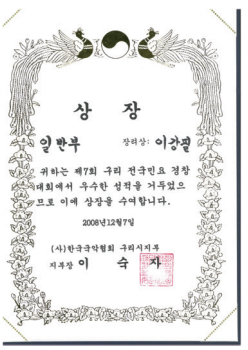
성북문화원 경기민요반
2006년도 서울문화가족 국악 경영대회 동상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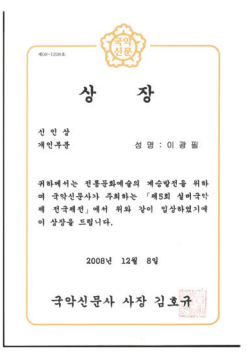
성북문화원 전통무용팀
2007년도 국악 및 무용경연대회 장려상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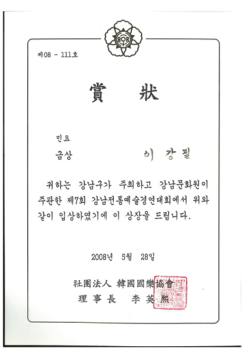
성북문화원 한국무용팀
2008년도 국악 및 무용경연대회 은상
(2008)



제7회 구리 전국민요 경창대회 일반부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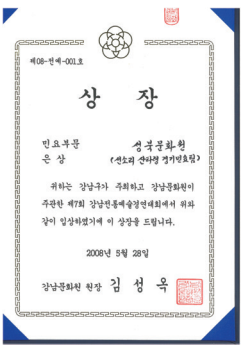


선소리산타령 반 이강필 회원
제5회 실버국악제 전국제전 신인상 개인부분
(2008)



선소리산타령 반 이강필 회원
제7회 강남전통예술경연대회 민요부문 금상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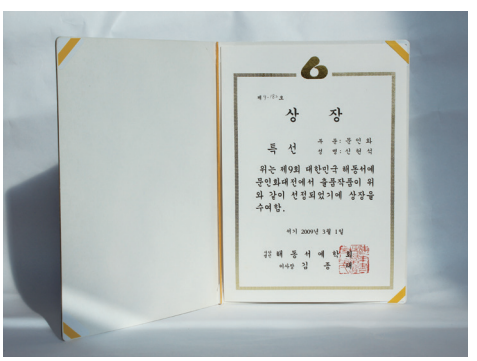
성북문화.indb 183 2016-12-11 오후 12:10:35



성북문화원 선소리산타령 경기민요팀
제7회 강남전통예술경연대회 민요부문 은상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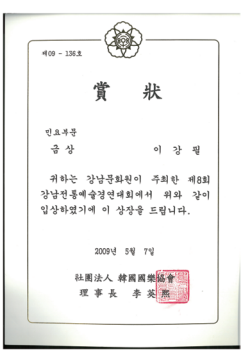
성북 생활체조 노년팀
2008년도 제8회 서울특별시장배
생활체조경연대회 민속체조 2위 (2008)

성북문화원 생활체조팀
제1회 성북구 생활체조연합회장배
체조경연대회 동상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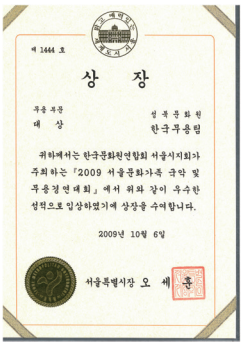
신현석 회원
제9회 대한민국 해동서예 문인화대전
문인화부문 특선 (2009)

성북문화원 민속체조팀
제9회 서울특별시장기 국민생활체육
생활체조 경연대회 3위 (2009)



선소리산타령 반 이강필 회원
제8회 강남전통예술경연대회
민요부문 금상 (2009)

성북문화.indb 184 2016-12-11 오후 12:10:46



상 장

무용부문
대 상

성북문화원
한국무용팀

귀하께서는 한국문화원연합회 서울시지회가 주최하는 「2009 서울문화가족 국악 및 무용경연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09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성북문화원 한국무용팀
2009 서울문화가족 국악 및 무용경연대회
무용부문 대상 (2009)

상 장

국악부문
장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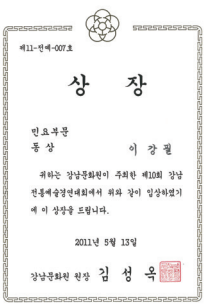
성북 문화원
경기민요 팀

위 사람은 한국문화원연합회 서울특별시지회 주관으로 실시한 2010년도 국악 및 무용경연대회에서 상기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2010년 10월 6일

한국문화원연합회 서울특별시지회
지회장 김 영 성

성북문화원 경기민요팀
2010년도 국악 및 무용경연대회
국악부문 장려상 (2010)



상 장

민요부문
동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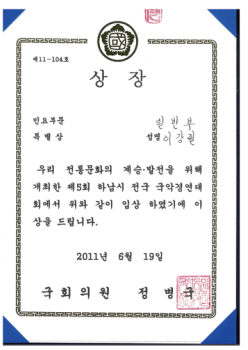
이 강 필

귀하는 강남문화원이 주최한 제10회 강남전통예술경연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1년 5월 13일

강남문화원 원장 김 성 옥

선소리산타령 반 이강필 회원
제10회 강남전통예술경연대회
민요부문 동상 (2011)



상 장

민요부문
특 별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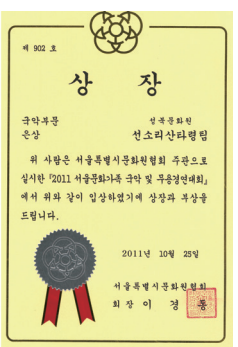
이 강 필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개최한 제5회 하남시 전국 국악경연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 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11년 6월 19일

국 회 의 원 정 병 국

선소리산타령 반 이강필 회원
제5회 하남시 전국 국악경연대회
민요부문 특별상 (2011)



상 장

국악부문
은상

성북문화원
선소리산타령팀

위 사람은 서울특별시문화원협회 주관으로 실시한 「2011 서울문화가족 국악 및 무용경연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2011년 10월 25일

서울특별시문화원협회
회 장 이 경 동

성북문화원 선소리산타령팀
2011 서울문화가족 국악 및 무용경연대회
국악부문 은상 (2011)

상 장

성북문화원
경기민요팀

2011년 10월 25일

서울특별시문화원협회
회 장 이 경 동

성북문화원 경기민요팀
2011 서울문화가족 국악 및 무용경연대회
국악부문 장려상 (2011)

성북문화.indb 185 2016-12-11 오후 12:10:56

제181호

상 장

이 강 필

위 사람은 구리시가 주최하고 (사)한국국악협회 구리지부가 주관한 「제10회 구리 전국 경서도 민요경창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2년 10월 14일

구리시장 박 영

선소리산타령 반 이강필 회원
제10회 구리 전국 경서도 민요경창대회
일반부 금상 (2012)

제 1034 호

상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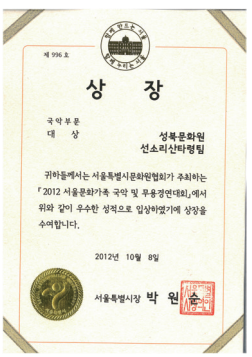
무용부문 장려상 — 한국무용팀

위 사람은 서울특별시공화원협회 주관으로 실시한 「2012 서울문화가족 국악 및 무용경연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2012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공화원협회
회 장 이 정 동

성북문화원 한국무용팀
2012 서울문화가족 국악 및 무용경연대회
무용부문 장려상(2012)



제 996 호

상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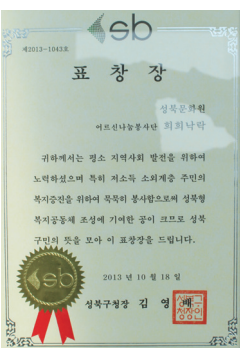
국악부문 대 상 — 성북문화원 선소리산타령팀

귀하들께서는 서울특별시문화협회가 주최하는 「2012 서울문화가족 국악 및 무용경연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2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성북문화원 선소리산타령팀
2012 서울문화가족 국악 및 무용경연대회
국악부문 대상(2012)



제2013-1043호

표 창 장

성북문화원
어르신나눔봉사단 희희낙락

귀하께서는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셨으며 특히 저소득 소외계층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묵묵히 봉사함으로써 성북형 복지공동체 조성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성북구민의 뜻을 모아 이 표창장을 드립니다.

2013 년 10 월 18 일

성북구청장 김 영 배

성북문화원 어르신나눔봉사단 희희낙락
성북구청장 표창장(2013)

제 1181 호

상 장

무용부문 장려상 — 한국무용팀

위 사람은 서울특별시공화원연합회 주관으로 실시한 「2013 서울문화가족 국악 및 무용경연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2013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공화원연합회
회 장 이 정 동

성북문화원 한국무용팀
2013 서울문화가족 국악 및 무용경연대회
무용부문 장려상(2013)

상 장

위 선수는 제 1회 고양시 댄스스포츠 연합회장배 전국 프로·아마 댄스스포츠 선수권대회 포메이션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하여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5년 10월 11일

성북문화원 스포츠댄스반
제1회 고양시 댄스스포츠 연합회장배
전국 프로·아마 댄스스포츠 선수권대회
포메이션 일반부 최우수상(2015)

성북문화원20년성과.indd 186 2016-12-12 오전 10:27:23

상 장

국악부문
장 려 상

성북 문화원
민 요 팀

위 팀은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한
『2016 서울문화가족 국악경연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2016년 5월 9일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
회장 김 태 웅

성북문화원 민요팀
2016 서울문화가족 국악경영대회
국악부문 장려상 (2016)

EPKP
賞 狀

우 수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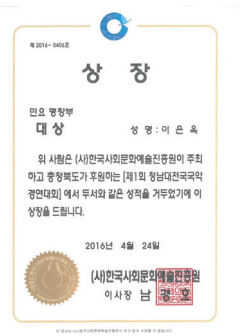
위 사람은 한국회화의 위상전 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미술협회가 후원하는 제 16회
한국회화의 위상전에서 우수한 작품으로 선
정 되었기에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2016년 3월 23일

한국회화의 위상전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 영 웅

사단법인 한국 미술협회
고문 임 상 수

기초소묘에서 유화까지반 김진순 회원
제16회 한국회화의 위상전
우수상 (2016)



상 장

민요 명창부
대 상 성 명 : 이 은 옥

위 사람은 (사)한국사회문화예술진흥원이 주최
하고 충청북도가 후원하는 [제1회 청남대전국국악
경연대회] 에서 두서와 같은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6년 4월 24일

(사)한국사회문화예술진흥원
이사장 남 경 호

선소리산타령반 이은옥 회원
제1회 청남대전국국악경연대회민요명창부
대상 (2016)

상 장

민요 명창부
금 상 성 명 : 오 근 창

위 사람은 (사)한국사회문화예술진흥원이 주최
하고 충청북도가 후원하는 [제1회 청남대전국국악
경연대회] 에서 두서와 같은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6년 4월 24일

(사)한국사회문화예술진흥원
이사장 남 경 호

선소리산타령반 오근창 회원
제1회 청남대전국국악경연대회민요명창부
금상 (2016)

제3953호

제6회 전국국악예술작품 안양대회 상장

종합대상 성래경 외 29명

귀하는 (사)한국예총 안양지회가 주최하고 (사)한국국악협회
안양지부가 주관하는 제6회 전국국악예술작품 안양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실력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6년 10월 6일

경기도지사 남 경

선소리산타령반 성래경 외 29명
제6회 전국국악예술작품 안양대회 종합대상(2016)

성북문화.indb 187 2016-12-11 오후 12:11:12

2016 외부경연대회 수상회원

강좌명	성명	수상 내역
문예창작실기	임진희	2016 7월 격월간 문예지『문예비전』7·8월호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한문서예	박영옥	2016 서울문화가족 서예 및 사군자 경연대회 서예 부문 최우수상
	박성희	2016 서울문화가족 서예 및 사군자 경연대회 서예 부문 장려상
사군자	조미선	2016 서울문화가족 서예 및 사군자 경연대회 장려상 부문 금상
		제19회 세계평화미술대전 문인화 부문 우수, 입선
	박완택	제19회 세계평화미술대전 문인화 부문 우수, 입선
		2016 서울문화가족 서예 및 사군자 경연대회 사군자 부문 장려상
	송규식	제19회 세계평화미술대전 문인화 부문 우수
	김영환	제19회 세계평화미술대전 문인화 부문 입선, 특선
	김남순	제19회 세계평화미술대전 문인화 부문 특선
	김지영	제19회 세계평화미술대전 문인화 부문 특선
기초소묘에서 유화까지	김진순	제16회 한국회화의 위상전 우수상
선소리산타령	이은옥	제1회청남대전국국악경연대회민요명창부대상
	성래경 외 29명	제6회 전국국악예술작품 안양대회 종합대상
	오근창	제1회청남대전국국악경연대회민요명창부금상

이야기로 듣는 문화원의 20년

성북문화.indb 189 2016-12-11 오후 12:11:12

01
천/신/일
2대 원장 (現 (주)세중그룹 회장)

오늘날 성북문화원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이 존재했다. 그중 빼놓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문화원의 도약기를 이끌었던 성북문화원 2대 원장, 현 (주)세중그룹 천신일 회장이다. 천신일 회장은 1943년 부산에서 태어나 경남중·고교를 졸업 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을 졸업하고, 언론대학원·정보통신대학원 최고위과정을 수료했다. 그리고 1982년 (주)세중여행을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세성항운, 세중엔지니어링, 세중정보기술, 세중S&C, 세중I&C 등을 차례로 설립하여 현재 (주)세중그룹의 대표이사 회장직을 맡고 있다. 대한체육회 이사, 고려대학교 교우회 회장, 성북문화원 원장을 맡으며 문화, 체육, 교육계에 큰 공헌을 하였고 현재는 재단법인 우리옛돌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며 성북동에 우리옛돌박물관을 개관, 우리 고유의 석조유물이 가진 아름다움과 다채로운 모습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성북문화.indb 190 2016-12-11 오후 12:11:14

1996년 12월 19일 개원한 성북문화원이 어느덧 20주년이 됐습니다. 감회가 어떠신지요?

참 정말 감회가 깊네요. 우리가 삼청각에서 처음 모였을 때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 문화원 중에서 제일 훌륭한 으뜸가는 문화원을 만들어보자'라고 얘기하면서 참 열심히 노력해서 자주 모임도 가지면서 각고의 노력 끝에 문화원을 개원했는데, 벌써 20년이 됐다니 실감이 좀 안 나네요.

당시 '제2의 전경련'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구두회 초대 원장을 비롯한 여러 재계 인사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때의 분위기는 어떠했나요?

그 당시 진영호 성북구청장이 성북문화원 개원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성북동에 거주하시는 많은 재계 원로들도, '우리가 사는 동네이니만큼 지역 문화원을 잘 만들어보자' 하는 분위기가 넓게 퍼져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 구두회 원장이 LG그룹 회장이었잖아요. 구두회 회장이 성북문화원 설립위원회 위원장으로 나서긴 했지만 원장은 안 하려고 했어요. 그걸 억지로, 꼭 하셔야 된다고 제가 우겨서 본인 없을 때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요, 하하. 그래도 (구두회 원장이) 막상 주어지니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성북문화.indb 191 2016-12-11 오후 12:11:14

2009년 정기총회에 1대, 2대, 3대 원장이 함께 자리했다.
우측에서 세번째가 구두회 초대원장,
그 좌측이 조태권 3대원장, 그 좌측이 천신일 2대원장

그러면 구두회 원장이 임기를 마친 다음에
(천신일 회장이) 2대 원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어떻게 선출이 되셨나요?

1대 구두회 원장 선출 때와 거의 비슷했어요. 구두회 원장이 나를 임명했죠. 저는 사양했습니다만 구두회 원장이 '당신이 나를 원장 시켰으니, 이제 내가 당신을 원장 시키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라고 해서 결국 원장 자리에 오르게 됐죠.

그렇다면 2대 원장 재임 시절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성북문화원은 개원 당시부터 장학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었어요. 컴퓨터 교육이나 문화강좌 등등 여러 사업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전문 실무자들에게 맡겼고, 성북구에 거주하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만큼은 열심히 챙겼죠. 1대 구두회 원장부터 이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북문화.indb 192 2016-12-11 오후 12:11:19

회장님께서는 현재 성북동에 거주하고있고 우리옛돌박물관도 성북동에 개관했고, 성북구에 있는 학교에서 대학생활도 보내는 등, 성북구와 인연이 깊은데 회장님이 생각하는 성북구나 성북동에 대한 이미지나 생각은 어떤가요.

성북동이라 그러면 우선 한양도성이 보이죠. 그리고 간송미술관, 한국가구박물관, 최순우옛집, 정릉, 의릉 등 문화유적이 참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우리옛돌박물관까지 더 해져서 서울에서 제일 문화유산이 많은 구가 성북구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 더 성북구의 문화유산을 더욱더 계승·발전시키면 문화적으로 서울에서 으뜸가는 지역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세중그룹의 회장이자 우리옛돌문화재단 이사장으로 계시는데, 우리옛돌박물관이 작년 11월에 개관하고 벌써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에는 회장님의 40여 년에 걸친 노력이 밑바탕이 되었다고 알고있는데요, 우리 전통문화유산, 특히 석조 유물을 수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내가 연도까지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때가 1978년인데 지금부터 40여 년 전이죠. 제가 인사동에 고서화, 청자, 백자 구경을 가끔 다녀요. 그런데 어느 날 자주 들르는 골

우리옛돌박물관 전경

성북문화원과 만난 천신일 2대 원장

동품 가게에서 일본 사람하고 주인하고 앨범을 내놓고 흥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어깨너머로 보니까 우리나라 석조 유물을 찍은 사진, 동자 · 문인석 · 석등, 이런 걸 놓고 흥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30대니까, 상당히 젊었죠. 젊은 혈기에 골동품 가게 주인 멱살을 딱 잡았다고. 멱살을 잡고 "너 왜 우리나라 문화유산 일본놈한테 파느냐!" 하니까, "돈 많이 주니까! 나 잘 살기 위해서 판다!" 이러는 거죠. 그때는 정말, 마음만 먹으면 유물을 반출할 수 있었어요. 제대로 된 법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그 유물을 '전부 얼마냐, 내가 다 사겠다.'해서 1억 5천 정도를 주고 스물일곱 점을 한꺼번에 다 샀습니다. 그리고 100년 이상 된 석조유물은 외국으로 반출이 안 되도록 법을 만들어 달라 정부에 거듭 건의해서 성공했어요. 결국 지금은 100년 이상 된 석조유물은 외국으로 반출이 안 됩니다.

성북문화.indb 194 2016-12-11 오후 12:11:26

그렇다면 국내 최초로 석조 유물 박물관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제가 그렇게 석조 유물을 모아놓고 보니까, 아침의 느낌이 다르고 비가 올 때의 느낌이 다르더군요.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답고 감명 깊었어요. 그래서 이런 석조유물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후 꾸준히 모으게 됐죠. 그 뒤에, 1997년에 이화여대 박물관에서 석조유물 전시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김홍남 박물관장을 만나 이야기를 하다보니 그러는 거예요. 수집한 유물이 수준이 상당하다, 박물관을 해라. 우리가 다 도와드리겠다. 그래서 이화여대의 도움을 받아 2000년 용인에 세중돌박물관을 개관했죠. 그런데 아무래도 경기도 용인이니까 거리가 멀잖아요. 방문객도 많이 없고. 그래서 이제 서울시민, 특히 성북구민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고 자주 올 수 있는 그런 데에다가 박물관을 짓자는 생각을 해서 지금 이 땅, 5,500여 평을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기부를 하고 건물을 지어 지금 박물관이 탄생한 거예요. 저는 땅이고 건물이고 재단에 다 기부해서 어찌보면 그냥 일종의 관리자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하하.

회장님 정말 열정을 갖고 대한민국 문화의 지킴이로서 활약을 하셨네요.
그러면 다소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회장님이 생각하는 문화라는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하하. 저는 가까이서 즐겁게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이 바로 문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한 답변인 것 같지만 그 안엔 심오한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성북문화.indb 195 2016-12-11 오후 12:11:26

02
김/영/배
성북구청장

2010년 민선 5기 성북구청장으로 당선되어 2014년 재선에서도 민선 6기로 당선, 현재까지 성북구청장직을 맡고있는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영배 구청장은 평소 역사・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아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를 설정하고, 성북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리고 성북문화원에도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아 오늘날 성북문화원이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김영배 성북구청장을 집무실에서 만나 성북구와 성북문화원,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성북문화.indb 196 2016-12-11 오후 12:11:26

먼저 바쁘신 와중에, 또 지금같이 중요한 시국에 저희를 위하여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북문화원은 1996년 12월 19일, 정식 개원을 했고, 창립 준비기간까지 따지면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지역의 내로라하는 재계 원로들과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이들을 중심으로 문화원이 개원이 되었고요, 어느덧 올해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께서는 이 곳 문화 예술의 고장 성북구에 오신 뒤로 많은 사업을 일구어내고 계시고, 또 저희와도 함께 나아가고 있지요. 그런 뜻에서 성북구와 성북문화원, 그리고 구청장님에 관한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궁금한 것은 '성북문화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또는 단상이 있으신가요?

별 말씀을요, 저야말로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성북문화원은 진영호 전 구청장이 재임 시절 성북동에 살고 있던 재계 지도자분들과 함께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해 발전시킨 그 당시엔 아주 유명했던 문화원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북문화원 하면 재벌이나 문화 기업 또는 문화적 지역 인재 양성, 지역 화합 등의 단어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크게 보면 성북동의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성북문화원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긍정적인 면이 더 많죠. 성북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 지역 발전을 위해 문화로 화합하는 경제인들이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그

성북문화.indb 197 2016-12-11 오후 12:11:26

정신을 잘 살리면 지역에도 기여하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좋은 모델로 자리 잡아 계층과 지역 간의 화합과 소통, 더불어 행복한 동행(同幸) 공동체로 나아가는 다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저도 2012년 성북문화원에 처음 와서 전체적으로 쇄신을 하기위해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다행스럽게 김영배 구청장님과 큰 뜻이 잘 맞아 함께 발맞추어 동행하니까 너무 바람직하단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엔 성북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성북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문화라는 키워드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정말 할 이야기가 많은 곳입니다. 또한 구청에서 직접 업무도 추진하고 역사문화지구에도 관여를 하고 있는데, 성북구의 문화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느낌들은 어떤 건지 말씀해주시겠어요?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역사적 장소입니다. 2015년 성북구 사회지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북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성북동, 정릉, 성곽 등 역사와 전통의 도시'가 1위, '북한산 국립공원, 성북천, 정릉천 등 자연경관의 도시'가 2위로 나왔어요. 그야말로 성북구는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도시라는 느낌이 듭니다. 성북구는 그 이름에서도 나타나듯 성의 북쪽에 있는 지역이라는 뜻이죠. 조선시대부터 한양도성 북쪽을 향해서 난 문이라는 게 중산층과 서민들이 주로 살던 곳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역사적 인물입니다.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특히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분들이 자리 잡아 앞서 말씀드린 역사적 장소와 예술인들, 문화인들이 합쳐져 소위 문화와 예술의 고장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더욱이 지리적으로도 성의 북쪽에 위치하다 보니 시내가 가깝고 이에 더해 산세도 좋아 예술적 상상력도 크게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역사적 인물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면서, 요즘 말로 일종의 클러스터(cluster)[1]가 만들어지고 서로를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마치 자석과도 같은 구심력이 형성되지 않았나

1 산업집적지. 유사 업종에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것을 말한다.

성북문화.indb 198 2016-12-11 오후 12:11:27

선잠제 퍼레이드에 참석중인 김영배 구청장 이날 초헌관을 맡아 선잠제향 봉행을 하였다.

싶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잘 어울러져서 성북이 근대 대한민국 예술문화의 산실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대로 성북구라는 역사적인 장소와 또 역사적 인물이 결합되면서 이 곳이 자연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키워드를 통해서 계층 간의 소통과 역사적 사건, 장소, 인물을 결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문화원 관련 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전국에 지방문화원이 22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념적으로 봤을 때 문화원은 그 지방의 터줏대감 · 지역 유지 내지는 보수적인 색채를 띄고있어 세태의 급격한 변화에는 발맞추지 못한다는 등 단점의 키워드로 많이 각인이 되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대도심권에 있어서는 고향을 벗어나 타지로 와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문화 복지라든지 문화 생활에 대한 향수가 있고, 또 많이 그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문화원은 이 지역의 고유문화 브랜드도 개발하고 향토성과 현재 삶을 아우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청장님께서

성북문화.indb 199 2016-12-11 오후 12:11:31

생각했을 때 성북문화원이 다른 문화원에 비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는지, 또 성북문화원과 문화원이 진행하는 일들의 존재가치와 역할은 어떤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성북문화원은 지역 문화원 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지요. 원래 문화원이라는 게 각 지역별로 존재하는 전통 문화들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토속적이고 민속적이고 지역토착적인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연구기관이자 수행기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죠. 그러다보니 한편으로는 지역 토착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변화에 둔감하고 외부와 교류가 적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또한 특정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소 폐쇄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의 지역성이라는 게 토속적인 부분은 굉장히 적잖아요. 아주 급속한 개발로 인해 최근 몇 십 년 동안 지역 토착성이 거의 사라진 도시인데, 그럼에도 성북구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지역 토착성이라는 게 꽤나 많이 남아있기에 성북문화원이 중요한 장점

4월혁명 학술회의 기념사

성북문화.indb 200 2016-12-11 오후 12:11:33

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좀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성북이라는 지역적, 장소적 특성이 가진 매력이지요. 그렇지만 여전히 서울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근대적 문화예술의 산실이었던 장소와 역사적인 여러 유물 · 유적들을 보유한 지역임과 동시에 시내에 가깝고, 상당히 현대적인 문화 예술이 융성할 수 있는 조건도 함께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특히 대학이 많고 대사관저가 많아서 글로벌한 문화, 젊은 문화들이 쉽게 자리 잡게 되는 특성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근대와 근대, 현대가 이렇게 잘 조화될 수 있어요. 바로 이런 특징들을 중심으로 성북문화원이 자기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문화원이라는 존재 가치 자체가 지역 토착성과 역사성을 중시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왕이면 토속 자료나 그에 대한 고증, 역사적인 자료를 기초로 한 원천 콘텐츠를 보유하고, 이를 학술적인 영역으로까지 확대시키는 데 중점을 두면 앞으로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역사나 문화라는 분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교육도 연계가 되고 예술도 접목이 되고 복지 등과도 연관이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분과 더불어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구정을 함에 있어서 역사문화를 어떻게 교육과 복지와 예술과 접목할 수 있을지 구상을 갖고 계신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겠어요?

문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아무래도 당대의 공동체가 형성하고 있는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체성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 왔는지, 어떤 가치를 좀 더 중시하는지에 대한 그 집단의 가치 구조, 그런 걸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문화, 그리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 공동체와 그 공동체의 기초, 기반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어야 내일을 내다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역사와 문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데 아주 중요한 거울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구 구조 변화나 시대 변화의 방향 등을 볼 때 이제는 역사와 문화가 사회 발

성북문화.indb 201 2016-12-11 오후 12:11:33

전의 동력이 되고 토대가 되는 그런 디딤돌이 되는 사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제 성북이라고 하는 공동의 정체성을 갖고 향후 문화 공동체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반이 바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역사문화지구나 다른 여러 사업들, 사회적 경제, 교육 공동체 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앞으로 어떤 가치를 누리고, 어떤 가치를 공유하며 또 어떻게 앞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인가는 우리 성북구청 사업들 속에 녹아 있고, 좀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성북문화원이 중심이 돼서 이왕이면 보다 학술적이고 고증이 가능한 그런 원천 콘텐츠들을 우리가 많이 보유하고 그것에 기초해 여러 분야의 단체들과 협력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데 주춧돌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의 연장선상에 있는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2016년만 하더라도 구청과 함께 4 · 19혁명 기념 문화제 특히 중 · 고등학생 주축으로 한 시위 재현 행사를 처음 시도해봤고, 또 선잠제향도 했고, 지금 선잠단지를 발굴해보니 옛 모습들이 그대로 나와서 복원을 논의하는 상황입니다. 또 이육사 집터도 찾았고 청록집 발간 70주년 기념제도 했었고 만해 한용운 추모 다례재 등의 사업들도 행했습니다. 그밖에도 공무원 교육이나 시민 아카데미, 혁신 교육 프로젝트 등 문화원과 구청이 함께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조금 아쉬웠던 점이나 사업에 있어서의 활로 또는 보완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있다고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원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껏 특성상 이사진이 사회 저명인사들 위주로 되어 있던 데다가 연령대가 높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다소 침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조태권 원장님이 체제를 정비하면서 굉장한 활력이 생겼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되는 측면이 있어요. 또한 보다 진취적인 거버넌스가 구축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좀 더 역사 문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학

성북문화.indb 202 2016-12-11 오후 12:11:33

이육사 탄생 112주년 기념 문화제 기념사

술적 콘텐츠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분명한 방향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거기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지금 발굴 중인 선잠단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성락원 같이 역사적 의의도 크면서 건축적 의미도 담고 있는 곳에 대해서도 향후 체계적인 보존·활용 방안을 마련하면 우리 지역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송미술관 같은 경우도 자체 연구 기능이 있긴 하지만 우리 지역 내에 공공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이 본격적으로 건축된다고 하면 그 역사적 의미나 그런 것을 우리 지역 내에서 활발하게 좀 다양한 측면에서 학술적인 학문적인 연구로까지 승화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발전해 나간다면 제가 볼 때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떳떳한 최고의 문화원이 되고 그렇게 하면 성북학이라고 하는 게 저절로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학술전문기관이면서 동시에 지역 토착 기관으로 지역 문화의 품격을 높이고 선도하는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성북문화.indb 203 2016-12-11 오후 12:11:34

인터뷰 중인 김영배 성북구청장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사소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문화적 경험이 있으신지요?

저는 문화와 관련해 보면 사실 문제가 조금 있는 사람입니다. 문화적 감성이 없는 사람 중의 하나에요. 하하. 제가 자랄 때 교육 시스템이 사지선다, 오지선다로 창의성을 억눌렀고 암기식에 익숙해지는 바람에 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 아주 특별한 것, 그렇게 생각하지 문화라는 게 우리 생활 속에 묻어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의 총체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못해보고 살았습니다. 삶을 반추할 나이가 되고 성북구청장을 하면서부터서야 그런 깨달음이나 고민들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뮤지컬 '심우'를 보고 굉장히 큰 쇼크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배우들 대사 하나하나가 폐부를 찌르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다른 하나는 브로드웨이를 갔을 때. '라이언킹'이나 '팬텀 오브 더 오페라'를 보면서 한편으론 굉장히 부럽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이야, 저거 대단한 것도 아닌데 겨우 저런 걸 가지고 전 세계에 상업화해서 저렇게 돈을 버는구

성북문화.indb 204 2016-12-11 오후 12:11:34

나.'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그런 깨달음을 갖고 이런 생각을 하나 하게 됐어요. 성북구가 정말로 저런 원천 콘텐츠를 가지고 창작의 소재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상상력을 제공하는 근거지가 되면 좋겠다. 사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를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성북동 역사문화지구가 저는 향후 100년간 성북구를 먹여 살릴 것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곤 하는 겁니다. 무한한 영감과 민족적 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성북구고 성북동이라 보기 때문이죠.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기개와 거기에 얽힌 스토리, 간송 선생의 애국심, 이런 것들은 돈이나 다른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이잖아요? 게다가 이 가치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개발하기만 하면 되고, 아직 대중화시키지 못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앞으로는 이런 문화적 자산에 더 집중하고 그러려면 그 가치에 걸맞는 평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가치로서 구조화 내지 공식화 시켜내는 사업이 우선 필요하고 그걸 응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대중화 작업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저는 성북문화원이 이런 성북구와 성북동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과 가치체계를 확립하는 데 주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까운 시일 내에 어느 순간 대중적인 영감을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갖추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막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서울의 일부 지역은 많은 역사와 문화, 자원이 있지만, 대중화나 그 가치를 확고히 하고 실현화시키는 작업은 더딘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희는 현재 있는 문화예술인부터 주민들의 의지도 더 높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뮤지컬 '심우'나 진경축제, 이육사, 만해 등의 콘텐츠들이 충분히 상업적으로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일단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내에 다양한 공공시설들이 들어서게 될 것이고, 이미 자리 잡은 공공시설들만큼이나 공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다양한 사설 갤러리나 박물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잘 하면 얼마든지 정말 여기가

성북문화.indb 205 2016-12-11 오후 12:11:34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아트윅스(Oxfordshire Artweeks)처럼, 아니 그것을 능가하는 그런 세계적인 예술의 거점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다는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물론 이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꿈 꿀만한 거지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청장님은 여가 시간이라고 할까요, 업무 외의 시간엔 보통 어떤 걸 하시는지, 운동이나 영화감상 등등 많잖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문화적으로는 꽤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하. 제가 감성이 풍부하거나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그보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술자리예요. 그리고 거기서 술보다는 좋아하는 사람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책 읽는 것도 좋아해요. 사실 책을 좀 많이 보는 편이고요. 그 외에 딱히 여가생활이라 할 만한 건 없고, 영화 좀 보고 그런 정도죠. 그래서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문화적 가치를 체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많이 들어요. 특히 저는 우리 구민들을 대표하는 구청장이기 때문에 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문화적인 감수성 높여야 되겠다 싶고요. 그건 뭐 억지로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문화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흔히 타임캡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20년 내지는 30년 뒤에 다른 사람들이 청장님의 지금을 반추해 봤을 때 어떤 기억 · 어떤 느낌으로 남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두 가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특히나 마을 민주주의, 이 시대의 민주주의는 거대 권력과 거대한 제도들 간의 관계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국회와 대통령, 검찰과 국정원 같이 그런 큰 조직이나 제도들 간의 관계에 있지 않고 현대의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는 내 생활 주변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망을 실현하고 내가 가장 크게 느끼는 고통을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

성북문화.indb 206 2016-12-11 오후 12:11:34

하는 민주주의를 저는 꼭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씨름했던 친구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역사와 문화가 성북구의 정체성이고 성북구의 미래다라는 확신을 갖고 그런 시대를 열기 위해 애쓴 친구다, 그런 기억으로 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도심권이지만 이 지역에 맞게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하시고, 또 그 기반을 마을로써 다가가시려 하는 점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성북문화.indb 207 2016-12-11 오후 12:11:34

03

나 현 이/은/설
(現 성북문화원 한문서예반 강사)

성북문화원이 무사히 20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데에는 맡은 강의에서 묵묵히 수강생들을 위해 노력해주고, 그들의 학구열에 열정적인 강의로 화답해준 강사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20주년을 맞이하여, 1999년 처음 출강하여 지금까지 18년간 문화원과 함께 걸어온 특급 인기강좌 한문서예반의 이은설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성북문화.indb 208 2016-12-11 오후 12:11:36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느덧 성북문화원이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축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벌써 그렇게 되었군요. 정말 놀랍네요. 일단 성북문화원의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노력하여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우리 나라의 문화를 선도하는, 전국 최고의 문화원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저희 문화원 출강중인 선생님들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1999년부터 출강하셨으니 햇수로 18년이나 되었네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북문화원이 20주년을 맞이한 것도 참 놀라운데, 제가 여기서 강의를 진행한지도 벌써 18년이나 되었다니 놀랍습니다. 그새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고 지나왔네요. 긴 시간이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문화원 여러분과 학생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대과(大過)없이 지나온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감회가 새롭군요. 또 이렇게 긴 시간동안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우리 문화원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 덕분이겠지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북문화.indb 209 2016-12-11 오후 12:11:36

1999년 한문서예반 첫 강좌 당시의 이은설 선생님

그럼 혹시 선생님께서는 첫 출강하셨을 때가 기억나시는지요?
또 어떤 계기로 출강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누구나 처음이라면 기억도 하고 그럴테지만, 제가 여기 문화원에 처음 출강한 날은 너무 오래 전이라서요, 기억이.. 너무 오래 전이라 아련합니다. 어렴풋이나마 기억이 나는 것은 참 그 당시에는 수강생도 많지 않았고 낯선 공간 속에서 처음 강의를 하려니 다소 어색하게 진행되었다는 정도가 기억이 남아있네요. 성북문화원에 처음 출강하게 된 계기는 제가 지금도 출강하고 있는 예술의전당 서예아카데미에서 소개를 해줘서 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처음 출강을 시작했던 1999년의 성북문화원과
지금의 성북문화원은 제법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본다면 어떤 같은점과 다른점이 있을까요?

성북문화.indb 210 2016-12-11 오후 12:11:36

일단 이 건물이 그대로지요. 넓지 않은, 가감하지 않고 말한다면 참 협소한 공간과 강의실 이런 것들은 옛날 그대로죠. 뭐 조금씩 바뀌긴 했습니다만 이런 점은 그대로인 거 같네요. 하지만 다른 점이라면, 이런 어렵고 부족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비해서 강좌가 많이 늘어났지요. 서예 뿐만 아니라 사군자, 수묵산수화, 민요, 장구, 댄스, 영어 아주 많은 종류의 강좌가 생겼죠. 그리고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수강생들의 수도 옛날에 비해 아주 많이 늘어났죠. 이런 발전된 모습이 다른점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럼 이번엔 선생님과 선생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한문서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선생님께서는 언제 처음으로 붓을 잡게 되셨는지요?

고등학교 시절부터였을 겁니다. 처음에는 학창시절 취미로 시작했지요. 그러다 대학에서의 동아리활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전공하던 학문에 회의감을 느껴 서예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죠. '나현'이란 호는 대학시절 서예를 좋아하시던 국문과 이훈종 교수님께서 출생지인 충남 보령군 '청라면(靑蘿面) 장현리(長峴里)'의 지명에서 청라면의 '라(蘿)'자와 장현리의 '현(峴)'자를 따서 지어주신 겁니다.

선생님께서 서예를 지도하실 때 특별히 강조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엇이든 뿌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뿌리가 튼튼해야만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서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가장 중요하지요. 서예 뿐만 아니라 회화든 무엇이든 동양 예술의 뿌리,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선입니다. 이 선이야 바로 서예의 근간이며 기초인 동시에 몸통이기도 합니다.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저는 수강생들이 정확하게 운필(運筆)하는 법에 대해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도해오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수강생이 계신다면요?

음, 글쎄요. 일단 지금 현재 듣고있는 수강생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는 아닌 듯 하고,

성북문화.indb 211 2016-12-11 오후 12:11:36

하여 특별한 건 아니긴 하지만 저에게 다소 아쉬움을 주었던 수강생이 더러 있어 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가르치다보면 누구나 느끼는 것이겠지만, 수강생들의 학습의 성취 정도는 다 다릅니다. 다들 일정하지가 않고 각기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단기간에 판단할 수는 없지만, 혹간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단기간의 학습능력이 남다르게 뛰어난 수강생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르치면서도 기대를 많이 가지고 지켜보는데, 의외로 쉽게 그만두어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계속 하였다면 정말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을텐데 말이죠.

성북문화원 수강생만의 특징이나 분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북문화원이 분위기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한데 강의실 공간이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불편한 것이 적잖이 있는데, 그럼에도 수업이 무리 없이 잘 진행되도록 회원 간 양보와 협조가 정말 잘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강사된 입장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수강생 분들이 전부 서로에 대한 배려심이 매우 깊습니다.

수강생 분들을 지도하실 때,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뭐 아무래도 수강생 분들의 실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또 수강생 분들이 각종 대회에 출전해서 입상하는 그런 대외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것도 그렇고요. 가르치는 입장에서 참 보람된 일입니다.

앞으로 바라는 점 등 하고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항상 문화원 직원 여러분들의 표정이 한결같이 밝은 모습이어서 늘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많은 관심과 협조가 있어 항상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다만 지금보다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유익한 많은 강좌를 개설하고 수업의 능률을 높여서 질 좋은 문화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북문화.indb 212 2016-12-11 오후 12:11:36

2013년 성북문화원 우수강사상을 받은 이은설 선생님

끝으로 선생님께서 이끄시는 한문서예 반에 대해 간단히 소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요일 오후 시간에 두 강좌를 이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개의 반으로 시작하였는데 수강생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서 한 개의 반을 증설하였습니다. 수강생 분들이 서로 배려하고 웃음을 잃지 않아 수업은 늘 밝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 안에서 한문의 여러 서체를 개인적인 특성과 필요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 개별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성북문화.indb 213 2016-12-11 오후 12:11:38

04
이/강/한
성북문화원 회원 / 스포츠댄스 반 반장

현재 성북문화원에서 인기강좌 중 하나로 자리잡은 스포츠댄스반. 이 스포츠댄스반을 인기강좌로 만든 것은 김수아 강사의 열정적인 가르침도 있지만 그 뒤에서 묵묵히 김수아 강사를 지원하고, 회원들을 이끌어 온 회원이 있다. 바로 성북문화원 회원이자 스포츠댄스 반의 반장인 이강한 회원이다.

성북문화원에 다닌지 어느덧 10년 째를 맞이한 이강한 회원은 평소 스포츠댄스 반 반장의 일도 충실히 하고, 화합을 중시하며 회원들을 이끌고 있다. 또한 성북문화원의 각종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하며 열정적인 회원으로 정평이 나있다. 이런 이강한 회원을 만나 문화원과 스포츠댄스반, 그리고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성북문화.indb 214 2016-12-11 오후 12:11:40

안녕하세요, 반장님께서는 현재 문화원에 계속 다니고 계시고,
정회원에도 가입해 주시고 행사 때마다 열정적으로 참석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문화원은 어떻게 알게 되어서, 언제부터 다니셨나요?

제가 68세 되던, 2004년도에 모든 사회생활을 접었어요. 그러고나니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마음이 상당히 우울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딸아이가 성북여성회관에 탭댄스 반에 함께 등록을 시켜줘서 거기를 한 8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그 뒤에 제가 잠시 외국에 다녀왔는데, 다녀와서 보니 저하고 같이 배우던 사람들 수준이 상당히 많이 진전됐더군요. 그래서 거기 지기는 싫고, (격차가 벌어져서) 좀 우울해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 회원 분께서 같이 성북문화원에 가봅시다, 해서 왔습니다. 문화원에 처음 2006년에 와서 지금까지 계속 다니고 있지요. 스포츠댄스반에.

그럼 벌써 햇수로 10년째 다니고 계신 거네요.
그럼 스포츠댄스를 배우면서 그 전에 비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주 많이 달라졌죠. 일단 많이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댄스를 배울 때 스텝을 외워야 하는데 이게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또 여러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하니 이런 부분들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에 비해 건강한 것도 이런 이유 중 하나가 스포츠댄스라고 볼 수 있죠.

성북문화.indb 215 2016-12-11 오후 12:11:40

스포츠댄스가 룸바, 차차차, 왈츠 등 다양하잖아요.
10년 정도 배우셨으면 가장 자신있는 춤 하나쯤 있을텐데 어떤 것인가요?
그리고 배우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제가 가장 자신있는 건 왈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3개월이 한 학기거든요? 그래서 학기마다 다른 춤을 배우는데, 새 수강생들이 오면 그들을 위해서 다시 기초부터 배웁니다. 그렇게 되니 오래 있던 사람은 그 이상 고도의 스텝은 배울 수가 없죠. 그게 좀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수준별로 반이 나뉘어지면 좋겠지만, 환경상 어려움이 많죠.

이제 성북문화원이 개원 20년인데 10년을 다니셨으면 그 중 절반을 다니신 거네요.
그럼 2006년에 처음 오셨을 때와 지금은 분위기도 많이 다르고,
또 많은 면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스포츠댄스반의 기존 수강생들이 텃세를 조금 부렸어요.

스포츠댄스반 수업

성북문화.indb 216 2016-12-11 오후 12:11:42

그래서 적응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무시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그러지 말자고 다짐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반장되고 나서는 절대 새로 들어온 분한테 그런 행동은 보이지 않고, 또 그걸 철두철미하게 지키니까 다른 데보다 여기가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스포츠댄스반의 분위기는 그렇고, 그럼 문화원 전체적 분위기는 어떤 거 같으세요?

아 그건 아주 좋아졌죠. 사실 옛날엔 문화원 직원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인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겠고 잘 보이지도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직원분들이 다 지역에서 아주 활동적으로 열심히 하시니까, 아주 좋아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10년 정도 다니셨으니 많은 일들을 보고 겪으셨을텐데,
그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혹시 있을까요?
사건사고라든가, 재미있었던 일 등 기억에 남는 것들이요.

여기는 아무래도, 성북구에 계시는 분들이 수준이 상당히 높으십니다. 그래서 다들 자기 할 일은 스스로 잘 처리를 하니까 별 사고라는 건 없었고요. 재미야 뭐 항상있죠 하하. 그러니 제가 10년 동안 여기를 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도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같이 대회에 나갔던 게 생각이 납니다. 공연 다니면 대기할 때 아주 떨리고 그렇거든요. 그래도 우리 가르쳐주는 분(김수아 선생님)이 아주 열심히 지도해주시고, 우리가 못해도 오늘 아주 잘 했다고 격려해주신단 말입니다. 때문에 아주 자신감을 갖고 나갈 수 있게 됐죠.

문화원에서는 정회원 역사문화탐방을 하잖아요?
그때 스포츠댄스반 외의 분들도 만나게 되고 하는데,
그때의 분위기는 또 어떤지 궁금하네요.

그건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 분위기로 말하면 옛날이 좀더 좋지 않았나 싶어요. 일례로, 그 전에는 가져온 간식같은 것도 서로 나눠먹고 그랬는데요, 서로

성북문화.indb 217 2016-12-11 오후 12:11:43

2013 성북문화원 우수 수강생 시상식 (가장 우측)

잘 모르는 상황인데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없어지고 약간 싸늘하달까, 그런 기분이 가끔 들고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죠.

반장님께서는 혹시 성북구에 거주하신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성북구에 있었습니다. 중간에 조금 옮겨다니긴 했지만 처음 살기 시작한 건 저 때부터죠.

성북구에 거의 60여 년을 계셨던 거네요. 그럼 앞으로 문화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제가 바라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성북문화원이 무궁한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당이 조금 협소한데 조금 더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반장으로 있는 스포츠댄스 반 홍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하. 저희 스포츠댄스반은 제가 처음 왔을 땐 사람 수가 적어 폐강될 뻔도 하고 그

성북문화.indb 218 2016-12-11 오후 12:11:46

스포츠댄스반 단체사진

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워낙 지도를 잘 해주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친절한 학생들도 많고 분위기도 좋아서 이제는 20명 씩 가득찹니다. 이런 부분에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가운데 명성있는 분들도 제법 됩니다. 로터리클럽 총재하는 분도 다니시고, 초등학교 교장이셨던 분도 계시고, 퇴직한 은행장도 계십니다. 그러니 단순히 스포츠댄스를 배우러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교모임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성북문화.indb 219 2016-12-11 오후 12:11:50

05
변/희/정
성북문화원 前 직원(現 Art&Culture Story 문밖세상 대표)

지금까지 성북문화원의 20년을 쌓아올리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지금의 성북문화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묵묵히 노력해온 사람이 있다. 바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성북문화원에 재직하며 성북천 깃발전, 희喜낙樂, 내 마음의 놀이터, 성북 창작시 공모전 등 많은 문화·예술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했던 변희정 문밖세상 대표이다. 지금의 성북문화원이 거듭 새로운 시도를 하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사고를 하게 된 데에는 성북문화원 전 직원인 변희정 대표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할 수 있다.

변희정 대표는 현재 성북구 삼선동에 자리를 잡고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 소외계층 문화복지 지원 · 예술인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 문화예술 전문기업인 문밖세상을 설립하여 다양한 활동을 계속해나가고 있다. 이런 변희정 대표를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보았다.

성북문화.indb 220 2016-12-11 오후 12:11:50

안녕하세요 대표님, 벌써 성북문화원이 개원한지 벌써 20주년이 됐습니다. 감회가 어떠세요?

음, 제가 성북문화원에서 20대 후반을 보내서 그런지 문화원이라면 항상 친정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벌써 20주년이 되고 지역에서 터를 잘 잡아 성북을 대표하는 지역문화기반시설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는 성북문화원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하셨는지요?

저는 2009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2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근무를 했어요.

저희가 문화원의 옛 자료들을 보니까 대표님이 근무하던 기간 동안 참신한 사업도 많았고, 또 활발했던 것 같아요. 직접 기획했던 것도 많고요. 그럼 어떤 사업들을 했고, 또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요?

잠깐 생각해도 정말 많은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제가 근무하기 전에는 문화원에서 국고 사업, 특히 연합회 사업은 하나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근무를 하면서부터 공모사업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게 2010년도에 어르신문화학교의 일환으로 진행했던 어르신 연극교실 <희희낙락(희喜낙樂)> 사업이에요.

성북문화.indb 221 2016-12-11 오후 12:11:50

그 당시 저는 원주문화원을 거쳐서 성북문화원에서 근무를 하게 됐었는데 문화원이란 곳이 어느 정도는 공공기관의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업 기획자로 일을 하긴 했지만 기관 사람의 느낌을 제법 풍길 때였어요. 그 때문인지 지역 연극단체와 협력해서 진행하는 나름 신선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날 무렵까지 행정가로서의 자세를 취했던 것 같아요. 직접 기획을 한 사업인 만큼 애착은 있었지만, 제가 진행하는 여러 사업들 중의 하나 정도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날 사업이 끝나고 정산까지 다 마친 후에 희희낙락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어르신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하필 눈 오는 날 언덕길을 힘들게 올라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사무국에 오셔서는 저만 복도로 불러내시기에 무슨 일인가 의아해하며 나갔더니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꼭 이 말은 하고 가야 될 거 같아요."하시면서 "사실 제가 2년여 동안 집 밖에를 나오지 않았었어요. 남편과 사별한 후로는 세상이랑은 연을 끊다시피 하고 살았지요. 그런데 우연찮게 성북문화원에서 연극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걸 C&M TV 광고자막을 보고 알았어요. 사실 제가 어렸을 적 소녀였을 때 꿈이 배우였거든요."

그때 딱 기억이 났어요. 저희가 희희낙락 참가자 모집할 때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셨던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바로 그분이었던 거예요. 당시 어르신께서는 모집기간 내내 매일매일 전화를 해서 '내가 그거 해도 되나요, 정말 해도 되나요?'라는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셨거든요. 저도 매일 똑같이 참여해도 된다는 답변을 드렸고요. 그렇게 접수기간 내내 전화만 하고 신청을 안 하시다가 모집 마지막 날에 오셔서 신청서를 내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때가 딱 그 어르신께서 2년만의 첫 외출을 하신 날이었던 거죠.

추운 복도에서 제 손을 꼭 잡은 그 어르신께서는 "어렸을 적 꿈이 배우였는데,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한 번 이루어보자는 심정이었어요. 만약 (선생님이) 전화를 대충 받았으면 그냥 포기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만날 오세요, 오세요, 하셔도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그 덕에 제가 용기를 내서 나올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 희희낙락에 나와 교육을

성북문화.indb 222 2016-12-11 오후 12:11:50

2015 온고지심 대작전 나눔캠프

든는 동안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너무 즐겁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몰라도 남은 인생 정말 즐겁게 살 수 있을 거 같아요."라고 하시는데 정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거예요. 할머니 앞에서 울 수는 없어서 꾹 참으면서 대화를 마무리했어요.

결국 전 어르신께서 가신 후에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펑펑 울어버렸었죠. 그리고 또 어르신께서 내년에도 꼭 희희낙락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거듭 부탁을 하면서 가셨는데, 그 말씀에 힘입어서 희희낙락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행정가의 모습으로 일을 하던 스스로의 모습을 반성하는 계기가 됐고, 문화사업을 대하는 제 자세를 바꾸게 된 중요한 전환점이 됐던 사업이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네요. 지금도 희희낙락 프로그램은 지속되고 있죠. 그 외에도 많은 사업을 하셨었는데 또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요?

너무 많아서 오히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하. 아트마켓 빼고는 제가 거의 다 진행

성북문화.indb 223 2016-12-11 오후 12:11:52

했거든요. 아, 한가지 또 기억나는 사업이 있어요. 서예치료교실 <내 마음의 놀이터>라는 사업이에요. 2010년에 한국서예치료학회와 복지관과 협력해서 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건데요, 사실 초반에는 복지관 측에선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었어요. 그동안 수많은 치료프로그램을 해왔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였죠. 특히 지적 · 자폐성 장애 아동의 경우 중증인 아이들도 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5분 이상 집중하기도 힘들거나 앉아있는 것 자체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또 구에서도 서예교육에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하냐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단순한 기능 교육이 아니라 치유프로그램 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가 쉽지가 않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어려운 설득과정을 거쳐서 딱 16주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됐고, 끝나고 성과 전시도 진행을 했었어요. 그렇게 전과정이 모두 끝나고 나서 보니 참, 감동적이었어요. 실제로 5분 이상 집중을 잘하지 못했던 친구들도 서예치료 프로그램을 하면서 좀 더 장시간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8차시 즉 반 정도가 지나고나니 아이들도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학부모 분들이나 복지관에

성북구 마을만들기 글씨유랑단 사업

성북문화.indb 224 2016-12-11 오후 12:11:54

알리니 아주 좋아하셨고요. 정말 뿌듯했던 사업이었죠.

아, 그리고 기억에 남는 사업 하나 더 있어요. <성북 창작시 공모전>이요. 공모와 심사 과정을 거쳐 수상자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공모전 형태로 끝내면 너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없는 예산을 쪼개서 수상자들을 모셔놓고 자신의 시를 낭독하는 낭독회를 구청 아트홀에서 열었어요. 사실 공모전하면 상만 받고 끝나는데 직접 자신이 지은 시를 낭독하게 되니까 그 자체로 감동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정말 다들 반응이 좋았죠. 근데 이건 당시에 계시던 사무국장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업이었던 터라 결국 다음 해에는 이어가지를 못했죠. 그래서 기억에도 남기도 하고, 많이 아쉽기도 한 사업이었어요. 성북이 나름 문학적 배경이 많은 동네라 계속 진행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던 사업이었죠.

그렇군요, 정말 아쉬우셨겠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 기획한 것 중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사업도 있죠? 바로 <성북천 깃발전>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북천 깃발전> 사업을 기획했던 의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릴께요. 2009년 말, 당시 성북천은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잘 정비된 성북천을 무대로 지속적인 진행을 통해 성북구를 대표할만한 문화사업을 기획해야겠다 라는 의도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 가로등 배너를 활용한 전시를 생각해낸 거구요.

처음엔 보조금 없이 자체자금으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첫해에는 한글서예, 한문서예, 문인화를 듣는 수강생 분들의 작품과 한국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의 작가들과 교류하는 형태로 진행됐던 사업이었어요. 다음 해부터는 성북구 사회단체보조금을 활용하여 5월과 10월 즉, 연 2회에 걸쳐서 전시를 확대 시행했어요. 10월은 기존과 같이 <먹내음이 가득한 성북천>이라는 주제로 먹을 다루는 그림과 글씨를 소재로 수강생들의 작품전을 열었고,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아이들 그림을 성북천에 걸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팔랑거리는 상상전>을 진행한 거예요.

사실 어린이 작품 전시는 처음에 다들 부정적이었어요. 요즘은 공모전이나 미술대

성북문화.indb 225 2016-12-11 오후 12:11:54

전에 아이들을 안 내보내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성북구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교감・교장 선생님들을 만나 설득을 했죠. 이건 일반적인 공모전과는 다르다. 지역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담아내고, 그리고 이게 깃발로 제작되어 지역에 걸린다. 이건 공공미술 작업이기도 하고, 지역활동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렇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홍보하고, 그림을 기한내에 보내지 않는 곳은 직접 가서 수거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죠. 상당히 힘들었던 사업이었어요.(웃음)

정말 뜻 깊은 일을 하셨네요. 지금은 아쉽게도 이자율이 더 줄어서 아무래도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성북문화원 퇴사 이후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지금 문밖세상이라는 문화예술기업을 세우셨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변희정 대표의 서예 퍼포먼스
(2016 청록집 발간 70주년 기념 행사 '청노루 맑은 눈에'에서)

제가 2012년 2월에 문화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난 뒤에는 사실 휴식기를 조금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쉬면서 석사 논문도 마무리 지을 생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학교 선배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때가 3월이었는데 문화원을 그만둔 지 채 한 달도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 선배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어떤 사업 공고가 나왔는데 한 번 해보지 않겠냐더라고요. 처음에는 딱 잘라 거절을 했죠. 그러다가 호기심에 공고문을 한 번 봤는데, 와 이건, 서예를 문화예술교육현장에 진입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마음을 바꿔서 원광대학교와 협력 형태로 제가 실무 총괄을 맡아 사업을 기획해서 지원을 했고, 결국 선정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사업이 생각보다 규모가 너무 컸던 거였어요, 그 당시에 전 몰랐었어요. 이 정도였을 줄은. 총예산이 약 4억 가까이 됐을 거에요. 저희가 받아서 집행한 사업비(운영비)만 1억이었고, 나머지 강사료와 교통비는 진흥원에서 직접 집행을 했었죠. 서울 · 경기 · 전북에서 74명의 강사를 선발해서 70여개의 지역아동센터에서 79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사업이었어요. 여기에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사들 연수시키고, 중간에 워크숍도 몇 차례 개최하고, 매달 웹진을 발간하고, 성과보고회까지. 정말이지 하나의 기관이 해야 할 규모의 실무를 저와 보조인력 1명이 진행을 했던 거에요. 집은 점점 창고로 변해갔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공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지금의 공간을 만나 둥지를 틀게 됐죠. 그러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아 이게 사업이구나. 내가 정말 큰일을 저질렀구나!' 라고. 당장 한 달 운영비와 직원 인건비를 걱정해야 되고, 정말 너무 막막했었죠. 사실 창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어쩌다보니 준비 없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 많이 힘들었죠.

그런 이야기가 숨어있었군요. 그럼 회사의 이름을 '문밖세상'이라고 짓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제가 처음 성북문화원에 간 계기와 관련이 있는데요, 당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진행했어요. 이걸로 문화원에 매칭이 돼서

성북문화.indb 227 2016-12-11 오후 12:11:58

한화 찾아가는 예술교실

간 거였죠. 처음엔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 연락이 와도 저는 다 거절했어요,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다가 성북문화원에 자리가 났다고 들었는데, 이건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꼭 무슨 계시라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문화원에서 일하면서도 진흥원의 전문인력 양성교육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 쪽 분들과의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함께 교육받던 분들과 만든 커뮤니티였는데, 만들던 당시 커뮤니티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 하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그때 제가 하고있던 생각이, 기획자의 입장에서 기획을 하다보면 확 다가오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실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거나 좋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이야기나 아이디어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 즉 '문 밖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기획을 하자.'는 의미로 문밖세상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카페를 개설했어요. 그 때 만들었던 그 의미를 여전히 내포하고 있기도 해요. 커뮤니티를 제가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아까 말했던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단체명을 회원들에게 해당 카페 폐쇄공지와 함께 제가

성북문화.indb 228 2016-12-11 오후 12:12:00

만든 이름이니깐 제 단체명으로 사용하겠다는 양해를 구하고 '문밖세상'으로 이름을 지은 거죠. 그리고 저희 단체명으로 사용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의미를 더 부여하게 됐어요. 문화원 사업인 희희낙락을 하면서 절 울렸던 그 할머니의 이야기가 큰 영향을 끼쳤죠. 꽁꽁 닫아뒀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세상 밖으로 나오신 할머니의 기억을 떠올리며, '내가 기획하고 문밖세상이 만들어나갈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만의 문을 열고나올 수 있게 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문밖세상이라는 이름은 또 지역적으로도 연관이 있잖아요. 여기 한양도성 성곽도 있고, 바로 옆에 혜화문도 있고. 절묘한 이름인 것 같아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성북구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활동가로 자리매김하셨는데,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가 중 한 사람으로 이 지역의 문화예술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이 역시 성북문화원을 가게 된 계기하고도 상통하는 것 같아요. 당시 성북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떤 사업들을 기획해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었어요. 성북이라는 곳이 서울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일까 되짚어봤을 때, 종로 다음으로 성북이 역사문화와 관련된 고유한 자원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또 역사적으로 볼 때 성문 밖이다 보니 많은 사대부와 문화예술인들이 계속 노닐던 일종의 놀이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와서 성북에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몰린다는 관점보다는 이미 역사적으로도 그런 곳으로 자리 매김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저한테는 나름 의미있게 다가왔고, 이 지역에서 일을 하고싶은 마음을 먹게 했던 이유가 됐던 것 같아요. 문화원을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떠나지 못하고 여기서 계속 활동을 하고 싶었던 이유기도 했고요. 다만 요즘 성북동도 그렇고, 저희 사무실 근처도 개발로 인해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게 조금 속상한 마음이 들어요. 곳곳에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자원이고 역사며, 우리 삶의 족적인데 그런 것들을 한순간에 밀어버린다라는 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성북문화.indb 229 2016-12-11 오후 12: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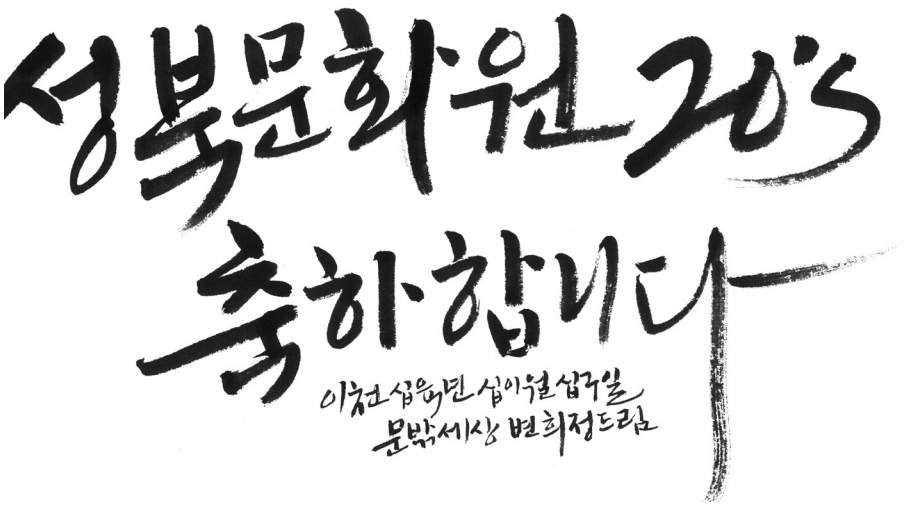
그렇군요, 그 부분은 저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대표님의 앞으로의 포부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일 관련이든, 개인적이든 상관없이요.

일단 저는 성북구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싶어요, 안 떠나고. 그리고 문화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해온 지역문화 활동도 이어나가고, 문밖세상이 내세운 미션과 비전을 앞으로도 계속 실현시켜나가고자 열심히 노력할거에요. 여담이지만 문화원에서 일할 때와 달리 지금 저희는 수시로 삶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생존의 위기 속에 항상 놓여있거든요. 거기서 살아남아야죠. 그리고 저희도 내년이면 만 5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꾸준한 활동을 통해 지역에 뿌리 깊게 자리매김을 하고 싶어요. 성북문화원이 어느덧 20주년을 맞이한 것처럼 말이죠.

꼭 이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문화원과 동행, 즉 함께 나아갈 기회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문화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바라는 점보다는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문화원보다 늦게 생긴 성북문화재단은 아는데 성북문화원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대다수가. 그게 너무 아쉽죠. 재단은 이제 몇 년 안 되었지만 문화원은 벌써 20년이나 되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랑받는 문화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행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문화원이 더 많이 성장하고 새롭게 변화된 것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문화원이 지역에 있는 예술 단체나 예술가들, 지역 주민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사업들이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길에 문밖세상과 동행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성북문화.indb 230 2016-12-11 오후 12:12:00



변희정 대표가 즉석에서 작성한 성북문화원 20주년 축하 캘리그라피

알겠습니다. 저희에게 격려와 조언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대표님과 문밖세상이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북문화원의 앞날에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성북문화.indb 231 2016-12-11 오후 12:12:01

2016 성북문화원 동향

성북문화.indb 233 2016-12-11 오후 12:12:01

2016 성북문화원

2016년에도 성북문화원은 지역문화의 발전과 구민 문화생활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 열심히 달렸다.

그런 모습들을 사진 속에 담아 한 데 모아 보았다. 2016년의 초입부터 지금까지 시간 순으로 정리하였으니, 지금부터 성북문화원의 2016년 한 해를 함께 따라가보도록 하자.

문화강좌

- 성인강좌 (27개)

경기민요, 규방공예, 기초소묘에서 유화까지, 대금·단소, 동화구연가 양성과정, 문예창작실기, 사군자A, 사군자B, 선소리산타령, 생활요가, 수묵산수화A, 수묵산수화B, 수채화, 스포츠댄스, 시낭송가 양성과정, 원어민중국어회화(기초), 원어민영어회화(기초), 원어민영어회화(초급), 원어민영어회화(중급), 원어민영어회화(고급), 유화로 그리는 인물화, 장구, 한국무용(초중급), 한국무용(심화), 한국의 역사와 문화유산, 한글서예, 한문서예A, 한문서예B

- 어린이강좌 (9개)

어린이 놀이미술A, 어린이 놀이미술B, 어린이 역사교실, 어린이 한자교실, 원어민영어회화(기초), 원어민영어회화(초급), 원어민영어회화(중급), 유아발레 Lv1, 유아발레 Lv2

유아발레

한문서예

한국무용

원어민중국어회화

성북문화.indb 235 2016-12-11 오후 12:12:06

2015 우수근로장학기관 선정 (2. 18)

현재 성북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가근로장학사업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과 연계로 대학생들의 직업체험학습과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사업으로, 성북문화원은 지난 2009년부터 성북구 관내 대학의 학생들로 하여금 역사와 문화, 예술 등에 관한 전반적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현장경험을 쌓아 성공으로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국가근로장학사업에 참여중인 9천여개의 기관 중 성북문화원을 포함하여 150개 기관을 선정하여 우수근로장학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전국 지방문화원 가운데 유일한 성과로 주목할 만하다.

현재 성북문화원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한성대학교의 대학생들이 국가근로장학사업의 일환으로 현장 경험을 쌓으며 자신의 미래의 탄탄한 밑그림을 그려가고 있다.

2015 우수근로장학기관 선정 기념사진

2015 우수근로장학기관 현판식

성북문화.indb 236 2016-12-11 오후 12:12:10

근대 동아시아와 한국의 생활문화 특강 (4. 4(월)~5. 9(월), 매주 월요일)

성북문화원과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가 함께 진행한 특강 '근대 동아시아와 한국의 생활문화'는 다양한 주제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의 전문 연구진을 초빙하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문화에 대해 배워보았다. 특강 주제는 아래와 같다.

첫번째 : 생활 속에서 느끼는 내 곁의 인문학_최규진(동아시아역사연구소 수석연구원)

두번째 : 서양인이 본 조선의 생활문화_이진일(동아시아역사연구소 수석연구원)

세번째 : 서서 먹는 선술집, '에로 서비스'의 카페_최규진(동아시아역사연구소 수석연구원)

네번째 : 근대 동아시아의 음식문화_김지훈(동아시아역사연구소 수석연구원)

다섯번째 : 한국에 스며든 일본문화_한혜인(동아시아역사연구소 객원연구원)

여섯번째 : '병참기지 조선'의 전쟁 같은 광고_최규진(동아시아역사연구소 수석연구원)

성북문화.indb 237 2016-12-11 오후 12:12:17

[4월혁명 학술회의 '4월혁명과 문화의 새로운 모색' & 시위재현행사(4. 16(토)~17(일))

'4월혁명과 문화의 새로운 모색'은 4월혁명 56주년을 맞이하여 개최한 학술회의이다. 이 학술회의에서는 1960년 4월혁명을 계기로 일어났던 문학 · 가요 · 영화 등 문화계의 새로운 동향과 모색들에 초점을 맞춰 평소 정치 · 사회적 관점으로만 바라보았던 4월혁명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였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4 · 19의 역사적 위상과 현재적 의미'에 대해 윤경로 전(前) 한성대 총장과 '껍데기는 가라'로 잘 알려진 고(故) 신동엽 시인의 부인 인병선 짚풀생활사박물관 관장이 '4 · 19와 신동엽 시인'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여 더욱 뜻깊은 학술회의가 되었다. 더불어 이제는 성북문화원 행사에서 안 보이면 섭섭한 밴드 빈티지프랭키의 공연도 곁들여져 학술회의의 의미를 한층 더 깊게 만들어주었다.

그리고 다음날에는 4월혁명 시위 재현행사를 진행했다. 4월혁명 당시 성북 지역 학생들의 민주화를 향한 갈망을 그들의 후배들이 직접 재현함으로써 그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재현행사에 참가한 관내 중고등학생들에게는 4월혁명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을 갖게 하였다.

성북문화.indb 238 2016-12-11 오후 12:12:17

윤경로 前한성대 총장 기조강연

인병선 짚풀생활사박물관장 기조강연

밴드 빈티지프랭키 축하공연

학술회의 발표

행사 참여 학생들

시위재현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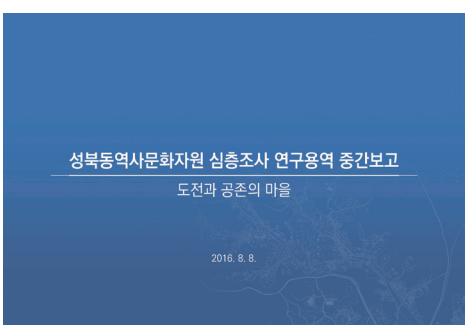
성북문화.indb 239 2016-12-11 오후 12:12:27

성북동 역사문화자원 심층조사연구

성북문화원은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성북구청의 요청에 의해 각 분야의 전문 연구자들을 섭외, 연구진을 꾸려 성북동 역사문화자원 심층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조선시대 및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역사문화자원의 보고인 성북동의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정리하여 향후 각종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시행한 사업이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역사문화자원 아카이브 구축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번 사업에서는 성북동 거주 독립운동가 80여 명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연구진 회의

연구진 회의



중간보고 자료집

연구용역 최종 보고

성북문화.indb 240 2016-12-11 오후 12:12:32

청소년 그린리더 양성 프로젝트 '길 위의 메아리학교'

청소년 그린리더 양성 프로젝트 '길 위의 메아리학교'는 대한불교조계종 정각사와 함께 진행한 청소년 여행학교이다. 정각사의 주지인 정목스님이 전체 운영비를 지원하여 5월부터 시작한 '길 위의 메아리학교'는 매월 평소 가기 힘들거나 접하기 힘든 국내의 역사문화유산, 유적지 등을 방문하고 전문가, 현장 활동가와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성북구를 비롯한 전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2명의 청소년과 함께 경기 이천, 여주, 서울 성북동, 이화마을, 충남 홍성, 경기 남한산성 등을 다닌 길 위의 메아리학교는 12월 17일 마지막 모임을 갖고 1기 학생들을 졸업시켰다. 그리고 이제 2기 시작을 위해 준비중에 있다.

길 위의 메아리학교 로고

길 위의 메아리학교 단체 사진

길 위의 메아리학교 강연 사진

길 위의 메아리학교 여행 사진

성북문화.indb 241 2016-12-11 오후 12:12:38

초·중·고·대 연합 청소년자치 역사동아리 '성북역사아리'

역사아리는 성북구 관내 청소년과 대학생이 연합하여 역사 동아리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직접 동아리의 일과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러한 성북 역사아리는 초등부, 청소년부 두 개의 동아리를 만들어 대학생 멘토단과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각기 성북동 안내 리플릿, 성북 역사아리 홍보전시물 등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준비중에 있다. 또한 지난 11월 13일에는『교과서 밖으로 나온 한국사』의 저자 박광일 선생님을 초청하여 '키워드로 보는 문화와 역사'라는 주제의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다.

성북문화.indb 242 2016-12-11 오후 12:12:42

어르신 국악합창 동아리 '성밖 세상 소리단'

어르신 국악합창 동아리 '성밖 세상 소리단'은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한 어르신들을 주축으로 다 함께 국악합창 교육을 받고, 이렇게 연마한 실력으로 문화나눔 봉사를 행하는 동아리다.

2015년에 결성되어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호응을 얻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동아리로, 이를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건전한 여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였고,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었다.

이와 더불어 '성밖 세상 소리단'은 지역 종교시설, 요양원, 복지관 등을 방문, 공연을 통한 문화나눔 봉사활동을 실천하여 큰 성취감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015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어르신 국악합창 동아리 '성밖 세상 소리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내년에도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에 있어, 앞으로의 모습이 더욱 기대된다.

성북문화.indb 243 2016-12-11 오후 12:12:50

제 23회 선잠제향(5. 22(일))
& 선잠 · 친잠 왕비공주 선발대회 (5. 11(수))

선잠 · 친잠 왕비공주 선발대회는 그동안의 선잠제향에서 왕비 · 공주를 지역 부녀회장과 그의 자녀들이 맡아오던 관습을 깨고 선잠제, 친잠례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와 함께 지역에 대한 높은 애정을 지닌 사람을 선발하여 선잠제향 봉행 시 선잠 · 친잠 왕비 · 공주의 역할을 맡기기 위해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전문 심사위원단(심사위원장 권기중 한성대 역사문화학부 교수)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왕비에는 강한 애향심과 적극성을 지닌 김수희 씨가 선발되었고, 공주에는 많은 열정을 가졌으며 선잠제에 대한 탄탄한 지식을 가진, 재색을 겸비한 김난수 · 이승희(동덕여대 방송연예과) 학생이 선발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이후 제 23회 선잠제향에서 왕비 · 공주 퍼레이드에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성북구의 선잠로를 행진하였다.

또한 제 23회 선잠제향에서는 매년 진행하던 선잠제향을 봉행함과 동시에 잠사체험, 누에 체험, 뽕잎차 시음회 등을 함께 운영하여 그 뜻을 더했다.

심사위원단

왕비 후보 발표

성북문화.indb 244 2016-12-11 오후 12:12:53

공주 후보 발표

선발자 단체사진

선잠제 퍼레이드 사진

선잠제 봉행 사진

선잠제 봉행 사진

제관 단체 사진

성북문화.indb 245 2016-12-11 오후 12:12:59

이육사 탄생 112주년 기념 문화제(5. 18(수))

일제강점기 대표적 민족 시인이자 독립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던 독립운동가인 이육사는 성북구 종암동에 거주하며 '청포도', '절정' 등의 대표작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동안 성북구에서는 이육사에 대한 관심이나 관련 행사 등이 전무하여 성북문화원에서 먼저 발벗고 나서 이육사 탄생 112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는 이육사 시인의 유일한 혈육인 따님 이옥비 여사가 참여하여 직접 시인 이육사와 아버지 이육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이육사의 시에 곡을 붙인 밴드 빈티지프랭키의 노래와 성북구 청년 예술단체 슈필렌의 아름다운 음악도 들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옥비 여사의 강연

예술단체 슈필렌 공연

밴드 빈티지프랭키 공연

특강 "성북구와 이육사"

성북문화.indb 246 2016-12-11 오후 12:13:02

2016 상반기 정회원 역사문화 탐방 - 동해 (5. 31(화))

성북문화원 2016 상반기 정회원 역사문화 탐방의 목적지는 강원도 동해였다. '동해의 거친 바람도 기대는 언덕배기의 삶'이란 주제로 출발한 이번 탐방은 동해의 유명한 관광명소인 논골담길 방문으로 시작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논골담길 주민들이 직접 해주는 해설과 함께 탐방을 하여 보다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그 뒤에 추암해변과 추암촛대바위로 이동하여 멋진 경치를 감상하였고, 삼화사와 그 앞에 위치한 무릉계곡을 방문하여 잠깐 숨을 돌리고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성북문화.indb 247 2016-12-11 오후 12:13:06

우리동네 생활문화프로그램 '버스킹 라디오 마실'

우리동네 생활문화프로그램 '버스킹 라디오 마실'은 6월 한 달 간 3회에 걸쳐 성북천 분수마루에서 진행한 지역 화합의 장이다.

총 3회에 걸쳐 진행된 '버스킹 라디오 마실'은 지역 전통예술 단체, 대학생 밴드, 청년 예술단체, 직장인 밴드, 주부 예술단, 어르신 동아리 등 다양한 계층의 예술단체가 공연을 선보였다. 이로 인해 생활문화동호회인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지역 주민들은 보다 가까운 곳에서 밀접하게 전개되는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어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지속적인 공연을 통해 주민들로 하여금 성북천 분수마루가 문화예술 공연의 장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여 공간의 인식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성북문화.indb 248 2016-12-11 오후 12:13:11

청록집 발간 70주년 기념 문학 주간 행사 '청노루 맑은 눈에'(6. 3(금))

박두진, 박목월, 조지훈 시인이 함께 발간한 청록집, 이것이 발간된지 어느덧 70년이 되었다. 그래서 성북문화원에서는 청록집 발간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청노루 맑은 눈에'라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식전행사로 문밖세상의 변희정 대표를 모셔 서예 퍼포먼스를 감상하였고, 한국시인협회장이자 고려대 명예교수인 최동호 교수를 초청하여 '청록파와 성북동'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들었다. 그 뒤 승무, 청록집 시 낭독, 지역예술단체의 음악 공연 등으로 청록집 발간 70주년을 기념하였다.

이후에는 총 4회에 걸쳐 박두진의 시와 삶, 박목월의 시와 삶, 조지훈의 시와 삶, 일제강점기 문인들의 사랑방 성북동이라는 주제로 지역주민 대상 특강을 진행하였다.

서예 퍼포먼스

최동호 고려대 명예교수 특강

승무 공연

밴드 빈티지프랭키 공연

성북문화.indb 249 2016-12-11 오후 12:13:18

만해 한용운 선사 72주기 추모 다례재 (6. 29(수))

성북문화원에서는 2008년부터 매년 만해 한용운 선사를 추모하고 그를 기리기 위한 추모 다례재를 진행해왔다. 특히 이는 만해 한용운 선사가 말년을 보낸 성북동 심우장에서 행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

이번 72주기 다례재는 식전행사로 '나의 꿈' 등 만해 한용운 선사의 시에 곡을 붙인 노래와, 시 낭송 등의 문화공연이 열렸다.

본행사인 다례재는 재단법인 선학원과 정법사의 주관으로 엄숙하게 봉행되었으며, 보각선원 가릉빈가 합창단이 참여하여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기도 했다.

다례재 이후에는 만해 한용운 선사의 심우장에서의 에피소드를 다룬 창작 뮤지컬 '심우'를 공연했다.

성북문화.indb 250 2016-12-11 오후 12:13:24

청소년 문화체험캠프 -만해를 따라서 (9. 10(토)~11(일))

청소년 문화체험캠프 '만해를 따라서'는 성북구의 대표적인 독립지사인 만해 한용운 선사의 자취를 따라가며 일제강점기의 삶과, 인간 한용운의 고민 등에 생각해 봄으로서 지금의 나를 돌아보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캠프에서는 성북구 관내 중학생 30여 명과 함께 만해 한용운 선사와 관련된 강원도 인제 백담사와 만해 마을, 그리고 서울 서대문형무소와 성북동 심우장을 1박 2일간 여행하며 만해 한용운 선사의 독립정신과 애국정신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익혀보았다. 특히 중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보드게임, 연극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여 더욱 유익한 시간으로 만들었다.

성북문화.indb 251 2016-12-11 오후 12:13:28

2016 서울 문화원 엑스포 (10. 5(수))

2016 서울 문화원 엑스포는 서울에 있는 총 25개의 지방문화원이 한자리에 모여 공연을 통해 문화원 회원들의 기량을 뽐내고, 각종 체험을 통해 문화원과 우리의 전통문화를 홍보하는 축제의 장이었다.

성북문화원에서는 먼저 강성봉 사무국장이 엑스포의 총감독을 맡아 엑스포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노력하였고, 공연에는 선소리산타령반이, 체험에는 사군자반이 각기 참여해 자신들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성북문화.indb 252 2016-12-11 오후 12:13:35

성북동 아카데미 (10. 10(월) ~ 10. 24(월))

성북동 아카데미는 문화・예술의 고장인 성북동에 대한 이야기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의 창작공간으로서의 성북동을 재조명할 수 있는 특별 강좌 프로그램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분야별 특강을 진행하였다. 각 주제는 아래와 같다.

첫 번째 : 조선시대 성북동 이야기_권기중(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

두 번째 : 성북동의 독립운동가_조규태(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

세 번째 : 성북동과 근현대 문학_김준현(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네 번째 : 아방가르드 미술의 산실 성북동_이주은(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다섯 번째 : 성북동의 보통 사람 이야기_백외준(성북문화원 향토사연구팀)

현장답사 : 성북동 현장답사_박수진(성북문화원 향토사연구팀)

성북문화.indb 253 2016-12-11 오후 12:13:36

2016 성북문화가족 어울마당
(전시: 9.22(목)~30(금), 공연: 10.29(토))

성북문화원에서는 매년 성북문화원 문화강좌 수강생들의 그간의 노력을 집약하여 작품 전시회 및 무대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성북문화원 20주년을 맞이한 뜻 깊은 해로, 전시는 다채롭고 아름다운 작품들이 전시장을 수놓았고, 공연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힘있고 열정적인 무대로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성북문화.indb 254 2016-12-11 오후 12:13:43

성북문화.indb 255 2016-12-11 오후 12:13:51

2016 하반기 정회원 역사문화 탐방 - 평창 (11. 2(수))

성북문화원 2016 하반기 정회원 역사문화 탐방의 목적지는 강원도 평창이었다.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둔 평창은 다양한 역사 · 문화가 숨쉬는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문화원 회원들은 먼저 오대산의 문수도량 상원사와 달빛가람 월정사를 탐방하였고 메밀 정식으로 점심시간을 가진 뒤 '메밀꽃 필 무렵'으로 유명한 작가 이효석 문학관을 방문하여 그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 뒤 봉평재래시장에 방문하여 지역의 살아있는 문화를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성북문화.indb 256 2016-12-11 오후 12:13:59

2016대한민국문화원상 종합경영분야 우수상 & 향토사 활용 부문 1위상 수상(11. 21(월))

성북문화원은 11월 21일 월요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2016대한민국문화원상 종합경영분야 우수상과 향토사 활용 부문 1위상을 수상하였다. 이는 그간의 향토사 조사・연구, 그리고 활용하고자 애썼던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라 의미를 더했다. 또한 문화원 운영에 있어서도 수준급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아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시설 분야의 미비와 공간의 협소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성북문화.indb 257 2016-12-11 오후 12:1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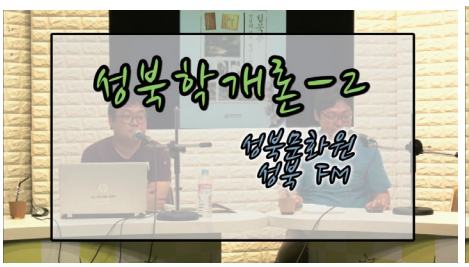
언론 출연 및 대외활동

○ 성북구 마을신문 성북소리, '성북동愛' 연재

성북동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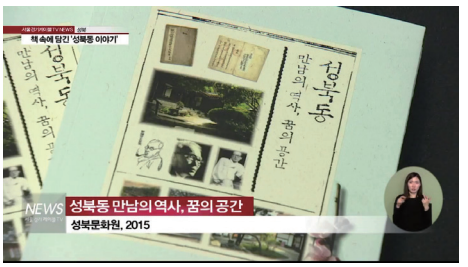
성북동 오래된 길 – 한양도성 순성길

○ 성북마을TV 성북학개론 출연



성북문화.indb 258 2016-12-11 오후 12:14:04

○ 서울경기케이블TV “책 속에 담긴 '성북동 이야기”(3. 8)



○ 서울경기케이블TV “성북에서 기린 '청포도' 이육사”(5. 19)

성북문화.indb 259 2016-12-11 오후 12:14:06

○ 서울경기케이블TV “맛과 멋이 어우러진 성북동 한마당”(5. 23)

○ 조선일보 “테이크아웃 카페 · 24시간 편의점도 없이….
세월을 비껴간 마을”(9. 8)

마을을 돌아봤다면 북정카페 왼편 '심우장(尋牛莊) 가는 길' 표지판을 따라 50m 쯤 걸어 내려간다. 만해 한용운이 만년을 보냈던 집이다. 박수진 성북문화원 향토사연구팀장은 "당시 토지대장을 살펴보면 이곳 외에는 민가가 없었다"며 "지금의 북정마을은 6·25전쟁 이후 1950~1960년대 사람들이 몰려와 살면서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처음으로 북정마을에 터를 잡은 사람은 만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만해는 1933년 지인의 도움을 받아 이곳에 목조 기와집 '심우장'을 지었다. 심우장은 북향(北向)이다. 북사면에 집이 있으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지만 '조선총독부와 등을 지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지었다 한다. 만해는 1944년 입적할 때까지 이곳에서 살았다. 심우장에서는 만해를 주인공으로 한 뮤지컬 '심우'(극단 더늠) 공연을 무료로 하고 있다. 2014년부터 비정기적으로 해왔는데 올해는 9월 24일부터 4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한다.

“

박수진 성북문화원 향토사연구팀장은 "당시 토지대장을 살펴보면 이곳 외에는 민가가 없었다"며 "지금의 북정마을은 6· 25전쟁 이후 1950~1960년대 사람들이 몰려와 살면서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

성북문화.indb 260 2016-12-11 오후 12:14:07

○ 중앙일보 “41년만에 풀린 봉인 총천연색 ‘비밀의 숲’”(11. 11)

중앙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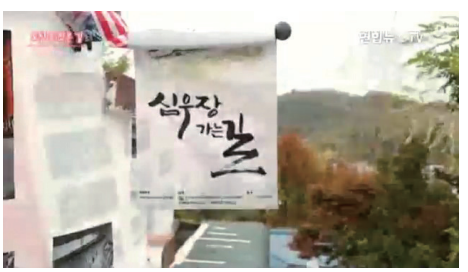
41년만에 풀린 봉인
총천연색 '비밀의 숲'

“

“김신조 일당이 파주 파평산-양주 남노고산-북한산 비봉을 차례로 거쳐 창의문(자하문)까지 내려왔어요. 창의문에서 발각됐고 이곳 성북천 계곡에서 총격전을 벌였죠.”성북문화원 백외준(35) 향토사연구원이 설명했다.

“

○ 연합뉴스TV “[트렌드 지금 여기] 골목길 시간여행”(11. 19)



성북문화.indb 261 2016-12-11 오후 12:14:07

○ 서울경기케이블TV “심층취재 쌍심지”

- 역사문화관광지 성북의 딜레마”(11. 22)

성북문화.indb 262 2016-12-11 오후 12:14:08

2016년도 성북천 깃발전 수상작

올해도 어김없이 화창한 여름과 선선한 가을, 성북천 깃발전의 아름다운 작품들이 천변에 전시되었다. 7년째를 맞이한 성북천 깃발전은 매해 여름·가을에 성북구민들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깃발을 제작해 성북천변에 전시하는 행사다. 매년 구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높아지는 가운데 '성북천 팔랑거리는 상상전'에는 총 201점, '먹내음 가득한 성북천'에는 총 192점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너무나도 뛰어난 작품들이 많았지만,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아쉽게도 20개의 작품만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어린 꿈나무들과 예술을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를 전한다.

○ 성북천 팔랑거리는 상상전
주제: 한글과 세종대왕

대상
김온아(돈암초 6)
〈한글 문자도〉

성북문화.indb 263 2016-12-11 오후 12:14:09

최우수상
최정원(성신초 1)
〈세종대왕 할아버지께 드리는 감사 편지〉

최우수상
류강민(석계초 3)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 한글〉

우수상
최현정(숭인초 4)
〈뿌리깊은 우리한글 피어나는 나라사랑〉

우수상
김하나(삼선초 4)
〈아름다운 우리말 사용하는 성북어린이〉

성북문화.indb 264 2016-12-11 오후 12:14:13

우수상
신채연(석계초 3)
〈바른 말을 사용합시다〉

가작
유여진(숭덕초 3)
〈세종대왕님의 타임머신 한글 특강〉

가작
최은빈(미아초 3)
〈한글아, 성북아 같이 사랑하자〉

성북문화.indb 265 2016-12-11 오후 12:14:16

가작
신민채(석계초 2)
〈한글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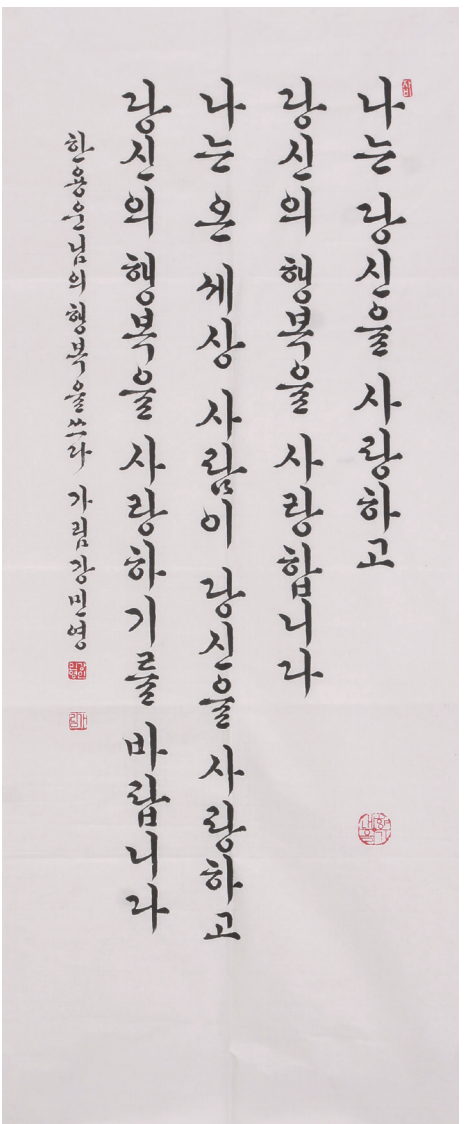
가작
최서윤 (석계초 6)
〈당신의 모습은?〉

성북문화.indb 266 2016-12-11 오후 12:14:18

○ 먹내음 가득한 성북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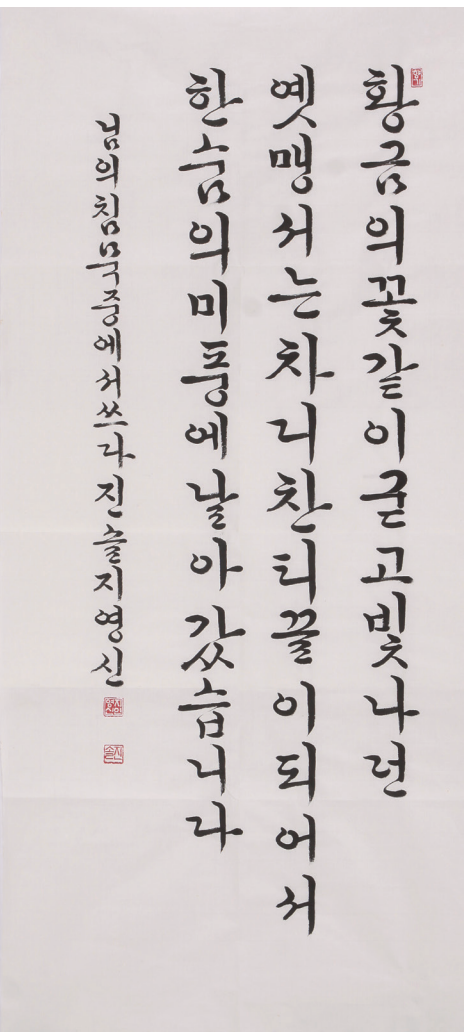
주제: 만해 한용운 시집『님의 침묵』발간 90주년 기념 "만해 한용운 작품"

- 서예부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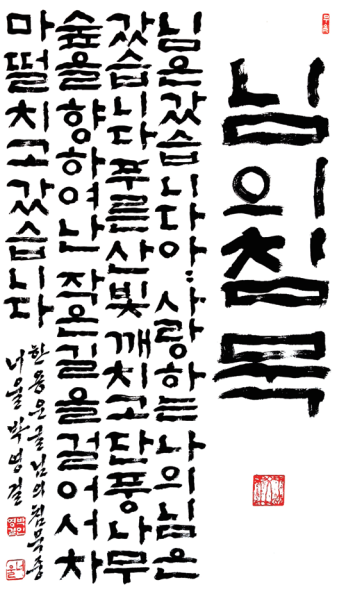


대상
강민영
〈행복〉

성북문화.indb 267 2016-12-11 오후 12:1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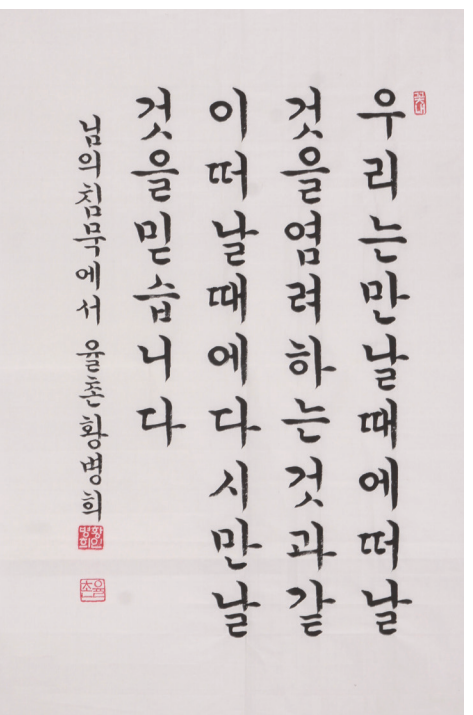


최우수상
지영신
〈님의 침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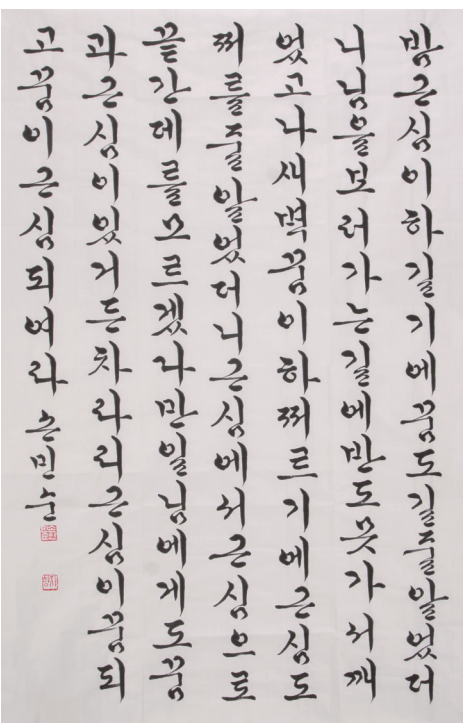


최우수상
박영걸
〈님의 침묵〉

성북문화.indb 268 2016-12-11 오후 12:1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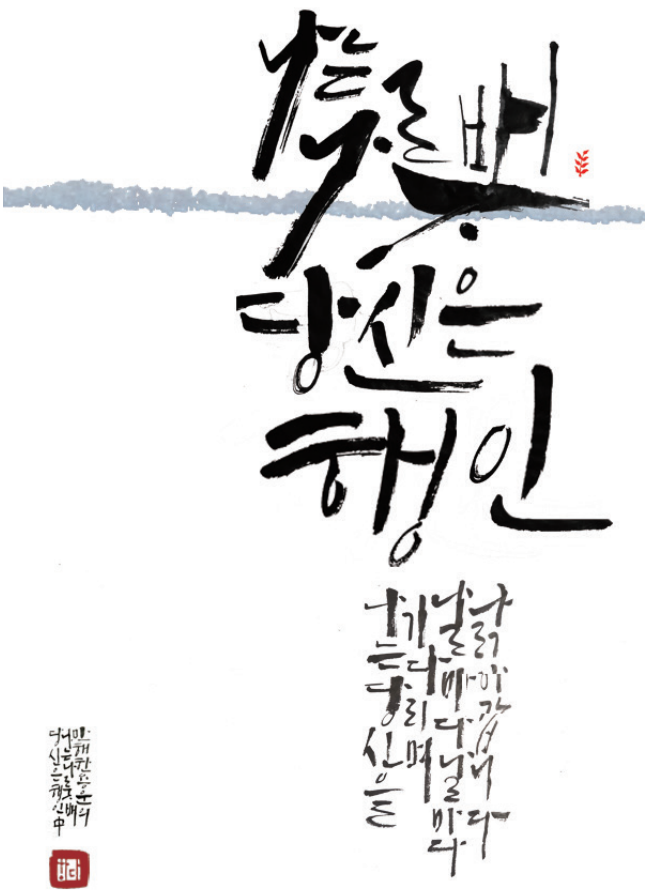
우수상
황병희
〈님의 침묵〉



우수상
손민순
〈꿈과 근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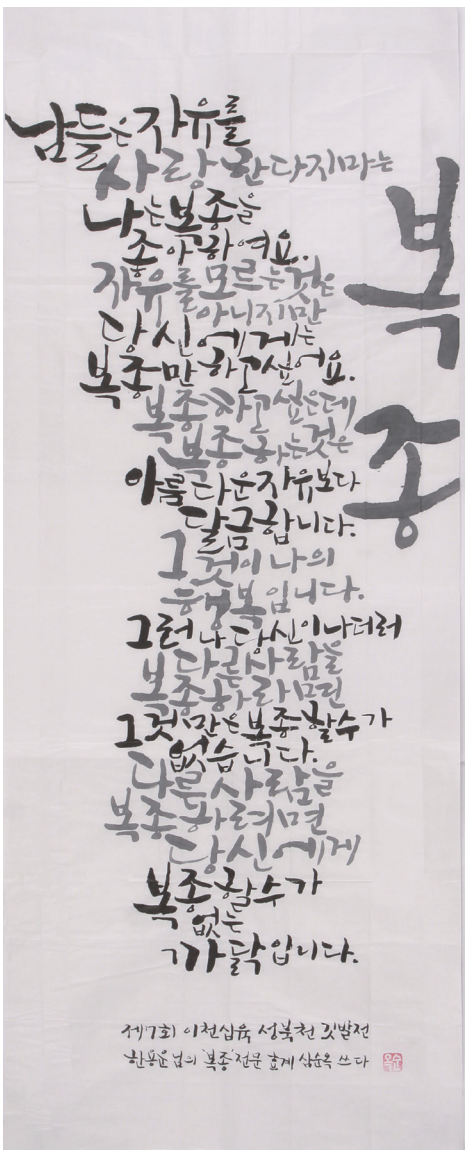
성북문화.indb 269 2016-12-11 오후 12:14:23

- 캘리그래피 부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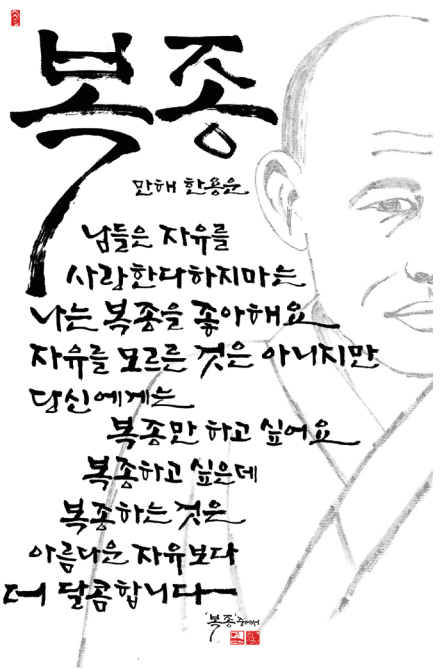


대상
김혜영
〈나룻배와 행인〉

성북문화.indb 270 2016-12-11 오후 12:1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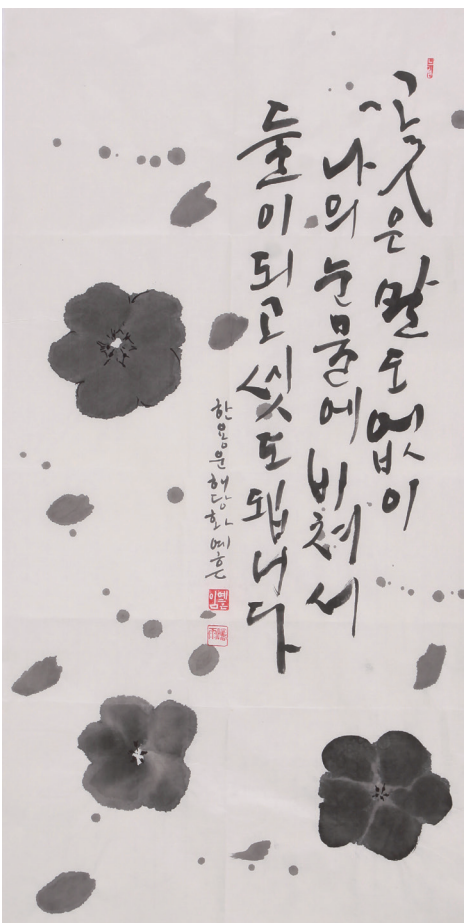


최우수상
심순옥
〈복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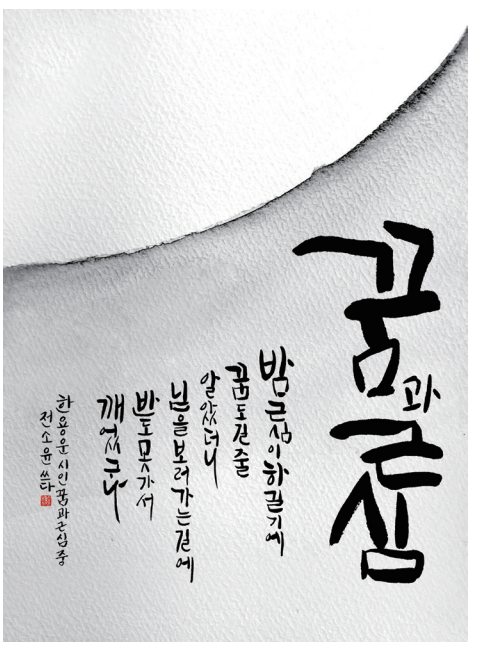


최우수상
함선미
〈복종〉

성북문화.indb 271 2016-12-11 오후 12:14:25



우수상
임예흔
〈해당화〉



우수상
전소윤
〈꿈과 근심〉

성북문화.indb 272 2016-12-11 오후 12:14:28

2016년 성북문화원 임원 명단

직 위	성 명	직업 및 경력
원 장	조태권	광주요그룹 회장
부 원 장	서영수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회 의장
	정근호	라이프어패럴㈜ 리더무역 대표
이 사	정상옥	前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총장
	김영일	㈜태명실업 회장
	정하경	한성대학교 명예교수
	김희진	국민생활체육전국배구연합회 상임이사
	김재천	성북구선거관리위원
	엄재룡	거산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부회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사장
	김신한	대성 사장
	홍진석	남양유업 상무
	천미전	세중문화재단 이사
	심종현	한국가구박물관 부관장
역대원장 1대	故 구두회	前 (주)예스코회장
2대	천신일	(주)세중그룹회장
감 사	허광복	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고 문	김영준	성신웹진 회장
	마상곤	협운해운㈜ 회장
	박창호	템피스투자자문㈜ 회장
	박태호	원제한의원장
	양창갑	서흥실업(주) 명예회장
	이병무	㈜아세아시멘트 회장
	이윤재	㈜피죤 회장
	이의순	㈜세방그룹 회장
	장치혁	고려학술문화재단 명예회장
	정승소	㈜동승 회장
	조양래	한국타이어(주) 회장
	허남각	삼영통상(주) 회장
	허완구	㈜승산 회장
	김해용	삼미산업(주) 회장
명예고문	김성배	한진관광 부회장
	양대길	영우통상(주) 회장
	윤덕병	(주)한국야쿠르트 회장

성북문화.indb 273 2016-12-11 오후 12:14:28

2016년 성북문화원을 후원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임원 김신한, 김재천, 김희진, 서영수, 심종현, 엄재룡, 정근호, 정상옥, 정하경, 조태권, 천미전
(주)남양유업, (주)세중엔지니어링, (주)엘에스엠트론, (주)태명실업, (주)효성

개인 강희정, 계영선, 권아름, 김경서, 김광자, 김금숙, 김육영, 김은화, 김주미, 김준용, 김지은, 김진환, 김한상, 남기현, 남윤면, 문일웅, 박병호, 박준범, 박창희, 배경식, 배재현, 변성진, 서준석, 송수자, 신용복, 오근창, 위가야, 유현희, 이강한, 이건자, 이동규, 이상림, 이상훈, 이석권, 이영애, 이은옥, 이재석, 이정빈, 이주원, 이준성, 임석규, 장혜정, 정각사 정목스님, 정병기, 주연경, 채순자, 최미경, 최봉명, 최성규, 최우석, 최정순, 최호진, 표민수, 한경옥, 한동현, 홍선희, 홍승순, 황재호

기관·단체 대한불교 조계종 정각사, 재단법인 선학원 정법사, 빈티지프랭키, 장구반, 학연문화사

후원은 나와 문화를 키우는 또 하나의 참여입니다

성북문화원은 우리 고유 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하여 문화교육과 문화복지를 위해 다양한 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성북문화원은 성북을 대표하는 비영리 법인의 문화기관으로 확실하고 신뢰성 있는 문화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 문화원에 후원한 기업 및 개인에게 투명한 정기적인 기금 사용을 보고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 관리에 노력합니다.
- 성북구민의 전통문화를 적극 수용하여, 고유문화의 정체성을 깨닫고 체험하여, 우리지역의 동질의식과 소속감을 고양하여 지역문화를 아끼고 보존하는데 참여합니다.

이러한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랑스런 성북 문화예술 발전에 동참할 후원자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은 소중히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후원 방법

- **일반후원** 성북문화원의 모든 사업에 후원하면서, 우선적으로 도움이 시급한 문화복지사업에 지원합니다.
- **물품후원** 후원하신 물품은 문화원 지역축제 행사 및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와 문화교육의 기회확대에 소중히 사용됩니다.
-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
  언제든지 문화원 행사와 문화복지 및 교육에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후원금으로 후원하는 방법

- **일반후원** 일정금액을 입금해주시고 성북문화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002-274868)
- **정기후원** 다음 쪽의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절취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소득공제용 후원 영수증을 발급해드리며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북문화원 후원 신청서

□ 후원자 정보

이 름		주민(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E-mail			

□ 정기 후원(CMS)

금 액	□ 1만원 □ 2만원 □ 3만원 □ 기타 (원)		
예금주명		출 금 일	□ 5일 □ 15일 □ 25일
출금은행		계좌번호	

※ 정기후원의 경우 후원금은 은행에 직접 가시지 않아도 금융결제원의 CMS를 통해 자동 출금됩니다.

□ 일반 후원

현금 후원	성북문화원 2층 사무국 방문
	□ 1만원 □ 2만원 □ 3만원 □ 기타 (원)
계좌이체 후원	우리은행 1005-002-274868 예금주 : 성북문화원
	□ 1만원 □ 2만원 □ 3만원 □ 기타 (원)

위 각 항목은 회원님에 대한 연락, 문화원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과 후원금 자동이체CMS,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위해 수집하는 것입니다. 위 정보는 수집이용을 동의한 때부터 후원회원 탈퇴시까지 (단,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자의 경우 최종발급 시기까지) 이용·보유합니다. 회원님은 이러한 수집·이용을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회원님에 대한 연락, 정보제공, 기부금영수증 발송, 보고물 발송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성북문화원에 위와 같이 후원하기로 약정합니다.

2017년 월 일

후원인 : (서명/인)

성북문화원장 귀하

성북문화.indb 275 2016-12-11 오후 12:14:28

부록 : 성북구의 역사

* 성북구의 역사와 동명 유래는 '성북문화원 우리동네 문화찾기' 사이트의 내용과 『사연이 깃든 성북의 유래』, 『동소문밖 능말이야기』, 『미아리고개』, 『성북동 - 만남의 역사, 꿈의 공간』 등 성북문화원 발간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 보완한 것임.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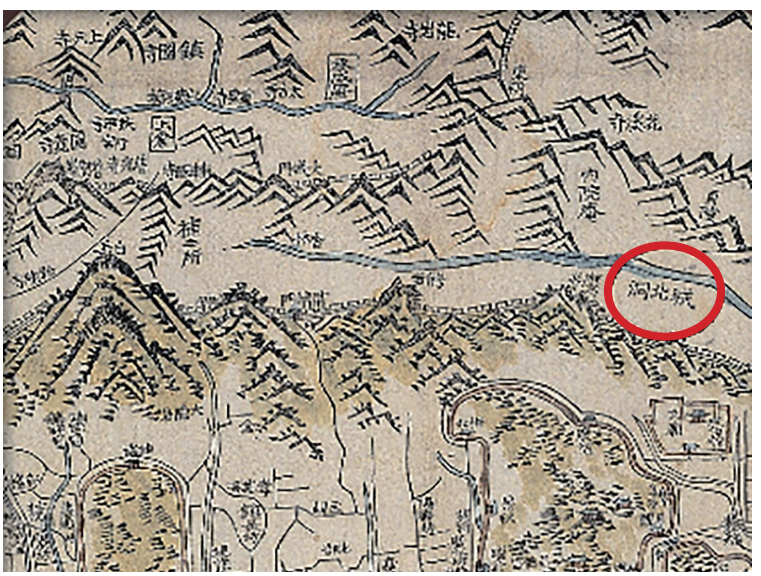
성북구의 역사

고지도가 담고 있는 성북 (조선시대)

성북구의 '성북'이라는 이름은 '성의 북쪽'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1840년 조선시대의 한양을 그린 수선전도에서도 성북이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 있다. 원래 성북은 조선시대에 한양의 둘레를 감싸고 있는 성곽의 북쪽에 있는 지역을 지칭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그 땅의 이름이 되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예전부터 북한산의 남쪽 기슭은 호랑이가 나올 정도로 산림이 우거진 곳이어서 조선의 국왕이 친히 군대를 이끌고 호랑이 사냥을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 또한 이 지역은 한양의 사대문 밖에 있긴 하지만 성 밖 10리 안에 있는 곳으로 한성 행정부의 통치를 받는 곳이었으며 동시에 서울 동북쪽의 큰 관문이었다.

혜화문은 동소문(東小門)이라고도 불렀는데 이곳을 지나서 되넘이 고개(지금의 미아리고개)를 넘는 길은 한양에서 강원도를 거쳐 함경도로 가는 길이었다. 따라서 이 길을 통해 많은 물자들이 오갔는데 특히 한양에서는 생활용품들이 주로 나갔으며 함경도에서는 각종 어물들이 들어왔다고 한다. 앞서 나온 '되너미 고개'라는 지명은 '되놈' 즉 함경도 지역 야인들이 한양을 향해 넘어오던 고개라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성북문화.indb 278 2016-12-11 오후 12:14:29



이처럼 성북은 한반도 동북쪽에서 한양으로 들어올 수 있는 중요한 통로였기 때문에 잘 지켜야만 하는 곳이었다. 따라서 조선 중엽에는 이곳에 도성을 지키는 군대인 어영청(御營廳)의 북둔(北屯)을 설치하고 여기에 소속된 군인들과 이 땅을 경작하며 살도록 하였다. 그리고 황량한 성북에 살게 하기 위해 천을 표백작업하여(마전) 시전상인에게 팔 수 있는 권리와, 메주를 쑤어 궁궐에 납품할 권리를 주었다. 사람들은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 과실수를 심었는데, 특히 복숭아를 많이 심어 곧 성북의 명물이 되었으며, 성북은 더 아름다운 곳이 되었다. 원래 경치가 좋았던 이곳에 마을이 생겨 치안이 안정되니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봄부터 가을까지 성북지역에는 유람객이 끊이지 않았다고 전한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별장을 짓기도 했는데, 지금도 그들이 지은 별장의 이름이 성북지역 곳곳에 전하고 있다.

성북문화.indb 279 2016-12-11 오후 12:14:29

일제강점기

조선시대 도성 밖에 위치한 성북동은 1930년에 들어서며 큰 변화를 겪는다. 일제의 대경성 계획에 의해 확정된 경성부 안에 포함되었으며 돈암지구가 1936년 실시된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1차 사업지로 선정되었던 것이다.

아직 성북이 경성부에 속하지 않던 1914년부터 1929년 사이, 성북에는 공동묘지가 설치되었다(미아리 공동묘지). 당시는 교통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시가지에서 가까운 곳에 묘지를 만들어야만 했다. 또한 과거부터 내려오는 풍습에 따라 상여를 꾸며 직접 관을 넣고, 사람들이 직접 묘지까지 운반하는 장례 절차가 당시까지 지켜지고 있었던 것도 공동묘지의 입지에 영향을 주었다. 미아리 공동묘지는 1950년대 중후반까지 유지되었고, 그 자리에는 철거민들이 이주해 살게 되었다. 이처럼 처음에는 죽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머무르기 시작했으나, 1936년 일제의 대경성계획과 토

성북문화.indb 280 2016-12-11 오후 12:14:29

지구획정리사업 과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성북으로 유입되었던 것이다.

일제는 토지구획정리공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시내 중심에서 떨어진 교외지역에 입주희망자가 없자 황무지로 남게 될 가능성을 염려했다. 그래서 시가지에 살면 가난해지고, 교외지역에 살면 행복해진다는 내용이 담긴 소설을 발표하는 등 대대적인 선전활동을 펼쳤으며, 직접 '관(官)'이 개입하여 이 지역의 토지 매매를 활성화 시켰다고 한다. 그 효과 때문에 전통한옥도 아니고 서양식의 주택도 아닌 새로운 형태의 '조선집'들이 마치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듯 만들어졌고, 이 집들에는 많은 조선인들이 살게 되었다. 사람들이 많이 살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도 사람살기 편한 곳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1930년 중반 이후부터 보성전문학교, 경성고등상업학교, 일본인 중학교들이 설립된 것 역시 성북구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 때 세워진 학교들은 현재 성북구에 유난히 많은 대학교들이 위치하게 된 기원이 되었으며, 시내버스의 연장운행, 전차의 연장설치 등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 지역의 대중교통은 전차와 시내버스 간의 자유로운 환승이 가능하였으며, 5전 균일가라는 정책이 잘 이루어진 대표적인 곳이었다. 또한 1941년에는 동소문 밖 되너미고개 근방의 돈암동(현 성신여대역 태극당)에 전차 종점이 생기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제의 정책은 조선인들의 삶을 근대적으로 만든 듯 하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보기 좋은 허울에 불과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혜화문이다. 일제는 조선시대의 중요한 관문이던 동소문을 방치해두다가 너무 낡아버렸다는 이유로 1928년 동소문을 철거해 버렸다. 또한 철거할 때 남겨둔 일부분마저 돈암동에 버스와 전차 종점을 만들기 위한 노선 연장 작업을 하면서 모두 헐었다.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토막촌이다. 토막촌은 가난과 각

성북문화.indb 281 2016-12-11 오후 12:14:29

종 재난으로 가진 것을 잃은 사람들이 시내와 교외 근방의 제방, 강바닥, 다리 밑, 살림에 초라한 움막을 지어놓고 모여 살던 부락을 말한다. 그런데 이들의 수가 너무 많아지자 일제는 교외지역이던 성북에 토막민 수용지(收用地)를 설정하여 토막민들을 이곳으로 몰아넣었다. 이들은 1942년을 고비로 자취를 감추게 되는데 태평양 전쟁으로 노동력이 부족했던 일제가 토막민들을 강제로 북해도 등지로 이주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의 성북은 한쪽에서는 한적한 산골의 전원생활을 즐기고 다른 한쪽에서는 근대의 문물을 받아들여 편리한 생활을 시작했지만 동시에 많은 영세민들은 움막신세를 면하지 못했던 곳이다. 일제강점기의 성북지역은 사람들의 상처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곳이었다.

성북동 비둘기(해방이후)

성북구는 해방 이후인 1949년에 비로소 오늘의 이름을 얻었다. 그 때에 동대문구에 속했던 돈암동과 안암동, 종로구에 속했던 성북동, 경기도에 속했던 석관리, 장위리, 우이리, 수유리, 상월곡리, 하월곡리, 미아리, 정릉리가 첫 성북구 동네가 되었다. 그러다가 1973년에 미아리 고개 북쪽의 동네들을 떼어 도봉구로, 1975년에는 다시 석관동, 종암동, 안암동 일부를 동대문구에, 정릉동, 하월곡동의 일부를 도봉구에 준 대신에 동대문구에서 보문동을 받아 오늘에 이르게 된다.

한국전쟁 때 미아리 고개는 북한군이 넘어와 공격하고 포로를 압송해가는 길이 되었다.

성북문화.indb 282 2016-12-11 오후 12:14:29

미아리 눈물 고개
울고 넘던 그 고개에
화약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철사 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며 또 돌아보며 맨발로 절며 절며
울고 넘던 그 고개여
한많은 미아리 고개

— 반야월 작사. 단장의 미아리 고개 中

이 노래의 작사가 반야월은 실제로 미아리 고개를 넘어 피난을 갈 때 어린 딸이 죽었는데 어찌할 도리가 없어 이 근방에 땅을 손으로 파서 묻어주고 갔다고 한다. 그리고는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딸을 묻었던 곳을 애타게 찾았지만 다시 찾지 못했

성북문화.indb 283 2016-12-11 오후 12:14:29

고, 그 때의 비통한 심정을 노래에 담았다.

전쟁 이후인 1953년부터 성북구의 인구수는 다른 서울의 지역보다 훨씬 많이 증가한다. 인구 증가의 이유는 다양했다. 일단 전쟁 때 이 지역의 인구수는 확실하게 집계될 수 없었다. 사람들이 파괴된 마을 주변에 움집을 지어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뒤 이들이 집을 지어 살도록 하고, 이들을 포함시켜 새롭게 인구를 집계하였다. 또한 사회가 안정되고 서울에 일자리가 많아지자 지방으로부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온 것도 이 지역 인구증가의 원인이었다. 특히 성북구는 당시만 해도 서울의 가장자리였기 때문에 지가가 낮아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여러 대학교들이 자리 잡은 것 역시 인구증가의 큰 요인이었다. 급증한 인구수 덕에 1973년에는 성북구로부터 도봉구가 떨어져 나가기도 했다.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 돈다.

— 김광섭. 성북동 비둘기 中, 1968

사람들이 많이 살던 만큼 주거지도 늘어났다. 돌산을 뜻한 '암(岩)'자가 들어간 동네가 많은 성북구에서는 주거지를 만들기 위해 돌들을 당연히 깎아 내야 했고, 높은 산등성이 마다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던 성북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은 재개발이라는

성북문화.indb 284 2016-12-11 오후 12:14:29

이름 아래 헐리게 된다. 시인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는 이런 성북구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일제강점기 때 불하되었던 '조선집' 역시 헐리고 그 곳에는 벽돌로 지어진 건축물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현재의 성북구

성북구는 종로구 다음으로 문화재가 많은 지역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 정릉과 의릉은 성북의 양 날개에 자리하고 있으며, 간송미술관에는 유네스코기록유산인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다. 흥천사, 개운사, 경국사, 봉국사 등 서울에서 가장 많은 사찰이 있는 곳도 성북구이다. 한용운, 이육사, 김교신, 염상섭, 이태준, 정지용, 전형필 등 수많은 역사인물들 역시 성북구와 인연을 맺었다. 한국가구박물관, 우리옛돌박물관, 간송미술관 등 한국의 대표적 사립미술관이 자리잡은 곳도 바로 성북구이다. 2013년 그중에서도 가장 역사·문화자원이 많은 성북동은 서울시 최초 역사문화지구지구단위 계획 지역으로 포함되었다.

성북구는 주거밀집지역으로 2016년 3/4분기 기준 189,367세대 464,505명이 거주하고 있다. 서울에서도 인구가 많은 축에 속한다. 성북구민들은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진 오랜 자치활동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현재 각 동마다 '마을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주민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들 활동은 역사·문화자원을 알리는 것에서부터, '동행(同幸)'과 같은 주민상생사업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성북구는 서울에서 종합대학이 가장 많은 지역 가운데 한 곳이다.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동덕여대학교, 서경대학교, 성신여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성대학교 등 7개의 종합대학이 위치하고 있어 활기를 더하고 있다. 특히 이들 대학들은 지

성북문화.indb 285 2016-12-11 오후 12:14:29

역과 함께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도 현재 성북구의 특징이다. 특히 대학로와 가까운 삼선동과 성북동 지역에는 서울시 전체 연극인 중 절반이 넘는 숫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성북연극협회를 창립하여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성북 국악협회, 사진가협회, 미술협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 단체 등도 활발하게 활동 중에 잇다. 젊은 예술가 등을 중심으로 공유성북원탁회의가 결성되어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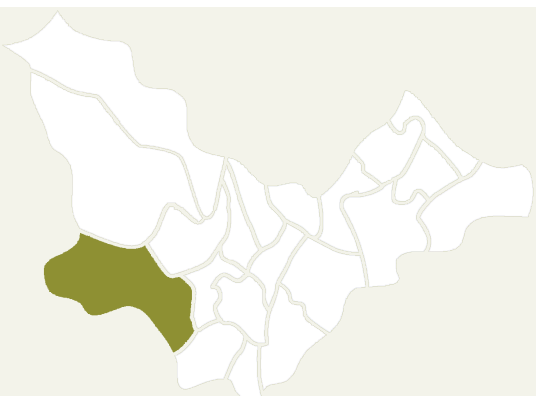
성북문화원, 성북문화재단 등은 이러한 다양한 문화·예술인과 협력하여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성북구청(官)과 개별 예술가 및 단체(民)와의 연계 역할을 하고 있다.

성북문화.indb 286 2016-12-11 오후 12:14:29

02

성북구의 동명 유래

성의 북쪽 첫 동네 - 성북동



명 칭 : 성북동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인구현황 (2016년 3/4분기 기준)
- 세대수 : 8,113
- 인구수 : 18,397명
(남 : 8,754명, 여 : 9,643명)
면 적 : 2.86㎢ (2015년 기준)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한양을 도성으로 정했으며, 도성의 성곽 중 숙정문과 혜화문을 연결하는 북쪽 성곽 바깥쪽을 자연스럽게 '성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성북동은 남편이 집을 나가 노구메(산천의 신령에게 제사 지내기 위하여 놋쇠나 구리로 만든 작은 솥에 지은 메밥)를 차려 매일 기도를 했더니 남편이 돌아왔다는 전설

성북문화.indb 287 2016-12-11 오후 12:14:29

에 따라 '노구멧골' 이라 불리기도 했으며 산세가 험준해서 도둑들이 출몰했다고 해서 '도둑골'로도 불렸다고 한다.

성북동에 본격적으로 마을이 들어선 것은 영조 때의 일이다. 성의 북쪽에 치안을 안정시키려 했던 영조는 어영청의 북둔을 지금의 성북동 지역에 설치하였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특권을 주었다. 성북천 언저리에서 도성과 궁궐의 마전(생포목을 잿물에 삶아 빨아서 하얗게 표백시키는 것)을 하여 시전 상인에게 팔 수 있는 권리와, 그때까지 종로구 세검정동 언저리에 살던 사람들에게만 주었던 메주를 쑤어 궁에 납품할 수 있는 권리가 그것이다. 지금도 성북동 언저리에는 마전과 메주 쑤는 일과 관련한 지명들이 전해져 오는데 생포목을 빨래했다고 해서 빨래골, 메주를 보글보글 끓인다 해서 북적골이 생겼다고 한다.

일반 백성들이 살기에는 버거웠던 돌 많고 험한 산골이었지만 일을 안 해도 되는 양반들에게 성북동은 사대문과 가까우면서도 산세가 좋고 자연풍광이 아름다워 최

성북문화.indb 288 2016-12-11 오후 12:14:31

고의 별장지역으로 꼽혔다. 성락원, 성북정, 음벽정 등 수많은 별장의 이름이 아직도 전하고 있다.

성북동이 성 밖 10리의 지역에서 경성부의 행정구역 안으로 편입된 일제강점기 초반에도 성북동은 시골의 정취를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나 1936년 일제의 대경성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이 시작되었다. 한국전쟁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전쟁이후 수많은 피난민들이 서울로 모여들었고, 성북동도 예외는 될 수 없었는데 특히 함경도 사람들이 많이 피난을 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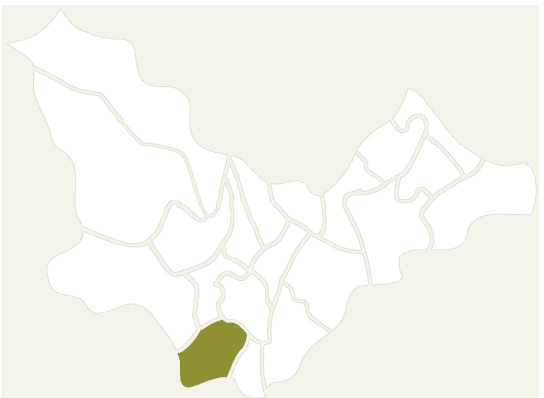
1970년대 후반부터는 성북동이 도심에서 가깝고 비교적 전망과 환경이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고급 주택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특히 이 소문은 외교가에서 주로 퍼졌는지, 이 지역에 대사관저가 서서히 들어서기 시작하여 지금은 40여개 국의 관저가 세워져 있다.

2016년 현재, 전통과 낭만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은 인사동과 삼청동, 효자동을 지나 성북동에 까지 미치고 있다. 한국가구박물관, 우리옛돌박물관, 간송미술관, 길상사, 수연산방, 심우장 등은 성북동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꼽힌다. 2012년에는 서울시 최초의 '역사문화지구지구단위계획'에 선정되기도 했다.

사람살기는 힘들었지만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양반 문인들이 즐겨 찾던 과거의 성북동은 이제 가난한 피난민들의 흔적과 부호들의 저택들이 함께 공존하는 특이한 동네가 되어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다.

성북문화.indb 289 2016-12-11 오후 12:14:31

평평하고 드넓은 땅, 삼선평에서 유래한 삼선동



명 칭 : 삼선동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인구현황 (2016.3/4분기 기준)
- 세대수 : 12,573
- 인구수 : 27,639명
(남: 13,353명, 여:14,286명)
면 적 : 0.92㎢ (2015년 기준)

한양도성에서 혜화문이 있는 낮은 언덕을 지나오면 평지가 펼쳐진다. 이곳은 삼선평이라고 불렸는데, 삼선동의 이름은 여기에서 유래했다. 삼선(三仙)이란 이름은 삼선동 남쪽 옥녀봉 봉우리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세 명의 신선(삼선 : 三仙)이 옥녀

성북문화.indb 290 2016-12-11 오후 12:14: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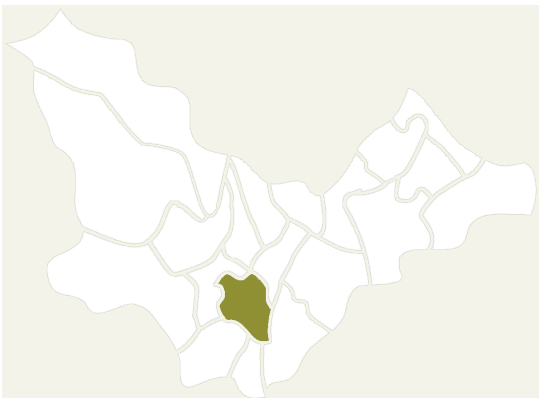
와 더불어 놀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옥녀 역시 선녀(仙女)를 의미하니 여러 신선이 어울리던 전설이 남아 있던 곳이다. 한편 이곳이 평지였기 때문에 화랑의 수행 장소였으며, 그것에서 동명이 유래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선(仙)'붙은 많은 우리나라의 지명은 화랑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삼선평'이라는 지명이 등장하는 것은 19세기 말이다.

영조 42년(1766) 어영청의 북둔이 성북동 지역에 설치되고, 평평한 땅인 삼선평은 군사 훈련장으로 사용되었으며, 근대에는 한국 최초의 축구경기와 운동회 등이 열리기도 했다. 또한 사람이 많이 모여 시국 강연회도 자주 열렸는데, 도산 안창호도 삼선평에서 시국강연을 한 사람 중의 한 명이다. 이때 안중근도 청중으로 이곳에 왔다고 전하는데, 이를 보면 삼선평은 단순히 운동회가 열린 곳이 아니라, 이를 핑계로 당시 대한제국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던 장소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삼선동의 경계로는 성북천이 흐른다. 성북천은 산업화 시대 복개(覆蓋)되었다가, 2010년까지 다시 개복(蓋覆)되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연극인·미술인·음악인 등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삼선동에 거주하며 활발히 활동 중에 있다.

성북문화.indb 291 2016-12-11 오후 12:14:32

동소문동의 동자와 삼선동의 선자를 따서 만든 동선동



명 칭 : 동선동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
인구현황 (2016.3/4분기 기준)
- 세대수 : 8,950
- 인구수 : 17,018명
(남: 7,404명, 여: 9,614명)
면 적 : 0.73㎢ (2015년 기준)

동선동이란 동명은 동소문동(東小門洞)의 '동' 자와 삼선동(三仙洞)의 '선' 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다. 조금은 재미없이 붙여진 이 이름은 1949년 만들어진 것으로 그리 오래된 이름이 아니다. 동선동은 동쪽의 안암동, 서쪽의 돈암동, 남쪽의 삼선동, 북쪽에 돈암동, 동소문동에 접해있으며, 역사의 상당수는 돈암동과 함께 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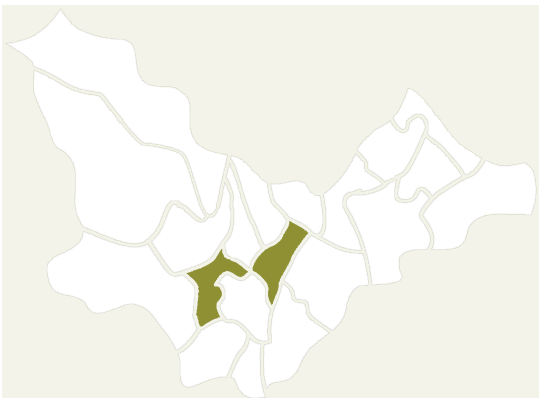
성북문화.indb 292 2016-12-11 오후 12:14:34

다. 돈암동의 인구가 늘어나자 1949년 처음 동선동이라는 이름으로 분리되었으며, 1963년 서울특별시조례 제274호로 법정동으로 신설되었다.

동선동 동쪽으로는 안감내길이 성북천을 따라 지나가는데 안감내는 성북천 또는 안감천의 옛 이름이다. 정릉동과 접한 곳에는 아리랑고개가 있다. 아리랑고개라는 이름의 연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1935년 일본인들이 고급 요정을 꾸민 다음 이곳을 알리기 위해 민요 아리랑의 이름을 따서 고개 위에 푯말을 세웠다는 설이고, 다른 하나는 이곳에서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항거하고 민족정신을 형상화한 춘사 나운규가 영화 아리랑을 촬영해서 그렇게 이름 붙여졌다고 하는 설이다. 둘 중 어떤 것도 확실하진 않다. 다만 북한산자락 밑에 집을 짓고 살며 이 고개를 넘어 출퇴근했던 김교신의 증언에 의하면 이 고개는 '정릉고개'로도 불렸다.

성북문화.indb 293 2016-12-11 오후 12:14:35

되너미골, 되너미재에서 유래된 돈암동



명 칭 : 돈암동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인구현황 (2016.3/4분기 기준)
- 세대수 : 14,368
- 인구수 : 40,792명
(남 : 19,450명, 여: 21,342명)
면 적 : 0.97㎢ (2015년 기준)

돈암동 동명은 지금의 미아리고개를 조선시대 야인(되놈)들이 동소문을 이용하여 도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되너미고개(적유현 : 狄踰峴)라 부르고, 이것을 한자로 돈암현(敦岩峴)이라고 한 데서 유래되었다. 현재의 미아리 고개는 여러 차례 깎여 낮아진 것으로 본래는 몹시 가파르고 험준한 고개였다. 그래서 도성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가자면 이 고개가 마지막 힘든 장애물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평탄한 지형이었기 때문에 '끝에 이른 고개', '마지막 고개'라는 뜻으로 경사가 몹시 심하여 밥을 되먹는 고개라 하여 '되너미고개'라고 불렸다는 설도 있다.

이렇게 험준한 미아리고개인데도 불구하고 이 고개를 넘는 길이 도성과 조선시대 주요 간선도로 역할을 한 경원가도(京元街道)를 잇는 가장 가까운 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교적 평탄한 종암동 쪽 보다는 이 길을 더 잘 이용하였다. 또한 돈암동 남쪽의 보문동도 지형적 조건이 취락 형성에 적합하지 않았고, 동쪽의 안암동 산자락과 서쪽의 삼선동 산자락 사이에 있던 돈암동은 지형이 긴 골자기로 되어 있어서 예로부터 절이나 신당이 자리 잡는 곳이었다.

조선시대의 서울은 좁은 의미로는 도성 안을 일컫지만, 넓은 의미로는 성 밖 10리

성북문화.indb 294 2016-12-11 오후 12:14: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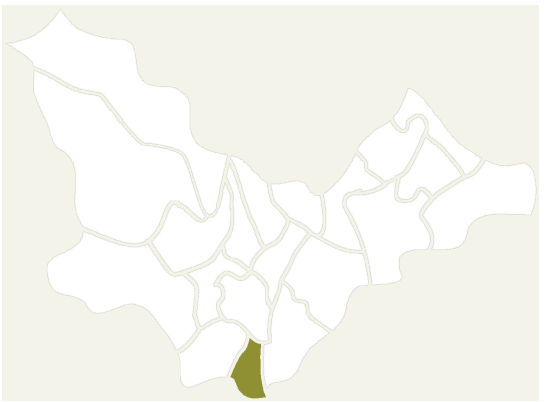
까지도 포함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성저십리(城底十里), 성저오리(城底五里)라고 불렀는데, 성북의 다른 동리(洞里)와 마찬가지로 돈암동 또한 조선시대 성저십리 지역으로 한성부 성 외곽 지역인 숭신방에 속했다.

돈암동 일대가 서울의 신시가지로 주목받게 된 것은 1936년 경성부 최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영등포와 더불어 돈암동지구가 선정되었던 것에서부터 비롯한다. 돈암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태평양전쟁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았기 때문에 빨리 완료될 수 있었으며, 성과 역시 비교적 좋은 편이었다.

1946년에 돈암정은 일본식 동명을 버리고 돈암동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1949년 8월 15일 성북구를 신설함으로써 돈암동은 성북구에 속하게 되었는데, 이때의 돈암동은 지금과 달리 성북구에서 꽤 넓은 지역을 포함한 동이었다. 한국 전쟁 이후에도, 돈암동 안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동소문동, 삼선동, 동선동으로 분동되어 현재와 같이 아리랑고개와 미아리고개에 걸친 산록의 대부분의 지역이 돈암동으로 남아있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돌산과 되너미 고개였던 돈암동은 성북구에서 가장 일찍부터 인구가 집적하면서 가장 번화한 지역으로 성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성북문화.indb 295 2016-12-11 오후 12:14:36

보문사에서 유래된 보문동



명 칭 : 보문동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
인구현황 (2016.3/4분기 기준)
- 세대수 : 7,134
- 인구수 : 15,156명
  (남: 7,375명, 여: 7,781명)
면 적 : 0.56㎢ (2015년 기준)

성북구의 남단에 위치한 보문동의 이름은 보문사에서 유래했다. 불교의 경전에 의하면 몸체에 온갖 덕을 갖춘 것을 보(普)라 하고, 쓰임이 나타는 곳을 문(門)이라

성북문화.indb 296 2016-12-11 오후 12:14:37

고 한다. 그러니 보문이란 보살이 일체의 성덕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기회·시기를 따라 그 신묘한 사용(妙用)을 보이는 것을 말하며, 관세음보살을 보문대사라고하기도 한다. 보문사는 여승들이 살던 작은 암자에서 유래했는데, 탑이 있어 탑동 혹은 탑골로도 불렸으므로 '탑골승방'으로 불리기도 했다.

조선시대에는 한성부 동부 숭신방의 신설계(新說契)에 속했고, 일제강점기 중에는 고양군 숭인면에 속했던 적도 있었으며, 1936년 경성부로 편입되어 '신설정'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1943년에는 동대문구의 관할로 편제되었으며, 1946년 신설동으로 불리다가 1975년 일부지역이 지금의 '보문동'으로 분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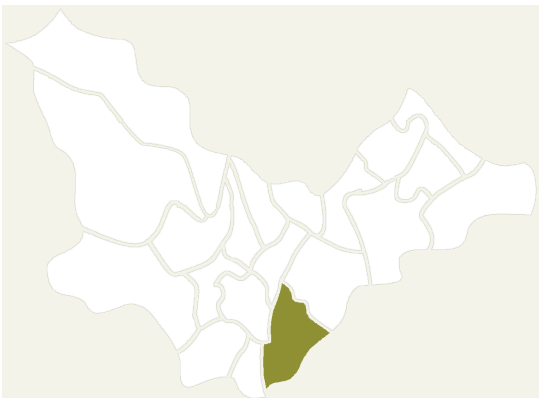
보문동이 본격적인 거주지역이 된 것은 대체로 한국전쟁 이후이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보문동은 아무것도 없는 모래벌판이었다고 하며, 그런 이유로 '모래마을'이라고 불렸다. 하지만 1936년 도시구획정리사업에 현 보문동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모두가 모래벌판이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문동은 안암동과 삼선동의 산기슭 사이에 있는 긴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조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에 비해 발전이 늦은 편이었다. 그러나 동망봉에 터널을 만들어 성북구의 인촌로와 종로구 숭인동의 지봉로가 이어진 이후 교통문제가 해결되었다.

보문동에는 단종비 정순왕후 송씨의 전설이 담겨 있는 동망봉이 있다. 이에 의하면 청룡사에 머물던 정순왕후는 매일 산 위에 올라 단종이 머물던 영월을 바라보았다고 한다. 동망봉이라는 이름은 영월이 있던 동쪽(東)을 바라보던(望) 봉우리(峰)이란 뜻이다.

성북문화.indb 297 2016-12-11 오후 12:14:37

'앉일바위'라 하던 것을 한자로 옮겨 쓴 것에서 유래된 안암동



명 칭 : 안암동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인구현황 (2016.3/4분기 기준)
- 세대수 : 8,807
- 인구수 : 18,280명
(남 : 8,923명, 여: 9,357명)
면 적 : 1.33㎢ (2015년 기준)

안암동은 문헌에 나타나는 서울의 동명 중 가장 오래된 곳이다. 안암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게 되었는지는 문헌에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전하는 말에 의하면 예전에 안암동 3가의 대광아파트단지 가운데에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20여명이 앉아 편히 쉴만하므로 그 바위 이름을 '앉일바위'라고 하였고 이것을 한자로 옮겨 '안암'이 되었다고 한다.

안암동에는 궁리(宮里) 혹은 원리(園里)라고 불리는 지명이 남아 있다. 궁리는 세종의 다섯째 아들인 광평대군과 그의 아들 영순군이 거주하였으며, 그 일가의 사당이 세워진 것에서 유래했다. 이 사당에는 광평대군과 영순군, 영순군의 군부인이 배향되어 있었다고 한다. 원리는 정조의 후궁인 원빈 홍씨의 묘소인 인명원이 있어 유래했다. 부석리(剖石里)라는 지명도 전하는데, 채석장이 있어 얻어진 이름이다. 지금도 '돌뜨기말'이란 우리말로 불린다.

조선초기 안암동에는 승려들이 많이 모여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태종 11년(1411) 6월 승도들의 초막을 철거시킨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에는 안암, 사을한 등 성북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성종 1년(1470) 9월 기록을 보면 안암사(安岩寺)

성북문화.indb 298 2016-12-11 오후 12:14: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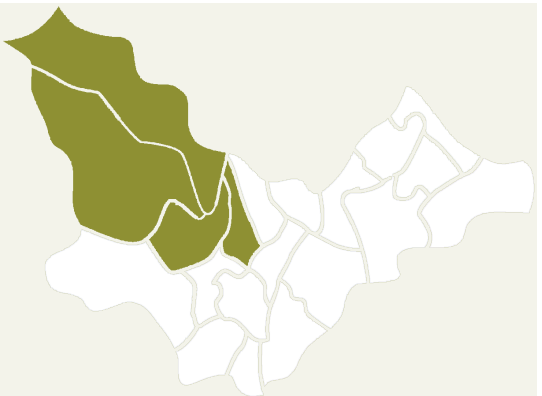
라는 사찰이 그 사이에 생겨났다가 철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34년 보성전문학교(現 고려대학교)가 지금의 위치로 이전하면서 안암동은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맞이한다. 학교를 중심으로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안암동을 지나 종암동으로 향하는 버스노선도 35년~36년에 걸쳐 신설되었다. 1939년 안암동과 인접한 종암동 지역에 경성고등상업학교(現 서울대학교 경영대학)가 옮겨오면서 안암동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현재의 안암동의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1991년 고려대학교부속 안암병원의 이전개원과 2000년 지하철 6호선 개통이다. 고려대학교부속 안암병원의 이전개원은 서울 동북부 지역 주민들의 의료해택을 확대하였으며, 지하철 6호선 안암역과 고려대역의 신설은 안암동의 접근성을 높여 상업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안암동은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고려대학교로 인해 젊은 인구의 유입이 많아 젊은 활기를 보여주는 마을이다.

성북문화.indb 299 2016-12-11 오후 12:14:39

왕후의 무덤을 품고 있는데서 유래된 정릉동



명 칭 : 정릉동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인구현황 (2016.3/4분기 기준)
- 세대수 : 35,424
- 인구수 : 896,15명
(남: 43,861명, 여: 45,754명)
면 적 : 8.45㎢ (2015년 기준)

정릉동이라는 이름은 조선 태조의 계비인 신덕왕후 강씨의 능, 정릉(貞陵)을 품고 있는 데서 유래했다. 그 이전의 지명은 사을한리(沙乙閑里)였는데 우리말의 '살한이'

성북문화.indb 300 2016-12-11 오후 12:14:39

를 한자로 옮긴 것이며, 사아리(沙阿里)로 약칭되기도 했다. 정릉이 옮겨 오면서 '능이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로 '능말'혹은 '능동(陵洞)'으로 불리기도 했다.

정릉동은 서울의 북쪽 북한산 연봉 밑에 위치고 있고, 면적은 성북구 소재의 동 중에서도 가장 넓으나 지역이 북한산 남쪽 산비탈 일대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주거가 가능한 면적은 그리 넓지는 않다. 그래서인지 정릉의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세분화 되어 있다. 정릉 부근 마을은 지금도 능말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북한산 바로 밑에는 물이 맑은 마을이라는 뜻의 청수동이 위치한다. 또한 고려 때 귀양 온 손씨가 많이 살았다는 손가정, 동구(洞口)에 문설주(문짝을 끼워 달기 위하여 문의 양쪽에 세운 기둥)처럼 서 있다 하여 문바위라 불리는 바위가 있는 문바위골, 배 모양을 하고 있어 배바위라 불리는 바위가 있는 배바위골(선암동) 등도 아직 옛 이름을 간직하고 있다. 송계동 역시 옛날부터 소나무와 시냇물이 어울려 좋은 경치를 이루어서 찾아온 사람들이 '송계동천(松溪洞天)'이라는 글자를 바위에 새겨 전한 데서 이름을 얻었다.

이제는 사라진 모습도 있다. 정릉1동에는 예전에 빡빡산이라 부르던 곳이 있었는

성북문화.indb 301 2016-12-11 오후 12:14:40

데 그 당시의 이 산은 나무가 하나도 없고 돌이 많은 곳이었으며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로 이용되었다고 한다. 현재 주택가인 정릉1동의 16번지 일대는 예전에 호박 밭이 많은 구릉 지대였고, 배밭골시장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전에 배 밭이 많은 지역이었는데 이 배 밭은 지금의 평창동 지역까지 뻗어 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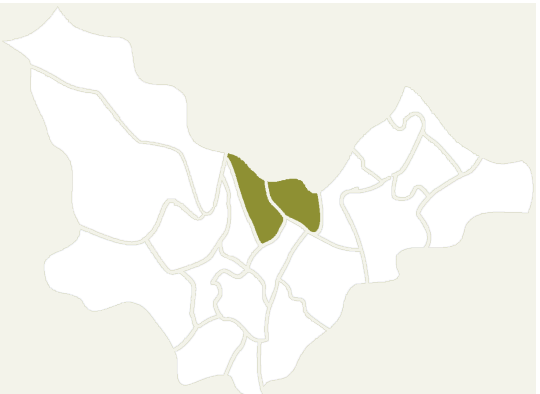
정릉1동 16번지 일대는 한국전쟁 이후 평안북도 철산의 피난민들이 많이 모여 마을을 이루었다. 정부는 이곳에 영국식의 철판으로 된 집을 열 채 정도 지어 피난민들을 수용하였다. 이 일대는 일제가 집터를 갈라놓았다가 광복 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원조로 집을 지어 개인에게 팔았던 지역이다. 그 당시 자재는 미국의 원조로 충당되었고 시멘트는 정부에서 지원하였으며, 집 짓는 데 사용된 모래는 마을 주변의 것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 집의 형태는 그 당시 정부의 부흥부(復興部)를 주축으로 하여 안암동 5가(개운사 일대)에 7채의 집을 시범적으로 지었던 것을 모델로 하였다. 그리고 지금의 산 72번지 일대에는 모두 판자집이었다.

예전에는 정릉동 16번지 안에 택시회사가 6개 정도 있었는데, 그런 연유로 지금까지도 이 지역에는 택시 운전기사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한다. 또 배바윗골 근처에는 지금까지도 무속인들이 천제당 등을 짓고 모여 살고 있다. 1960년대 초 뚝섬이 홍수로 침수되었을 때 정부는 그곳 주민을 지금의 정릉3동으로 이주시켰다. 정릉1동 16번지 안에는 미군부대의 쓰레기장이 있었는데, 당시의 주민들은 이곳에서 남은 물건을 팔기도 하고 남은 음식을 가져다 먹기도 하였다.

정릉동 사람들은 북한산 산신이 자신들을 도와준다는 전설을 믿으며 매해 산신제를 지낸다. 만약 정릉을 떠나면 일이 잘못되거나 실패하여 다시 정릉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릉의 산신이 놓아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다. 그리하여 정릉에서는 매년 음력 10월 1일을 전후로 하여 정릉2동 산신제, 정릉 3동 배밭골 산신제, 정릉 4동에선 한산대동제 등이 열린다.

성북문화.indb 302 2016-12-11 오후 12:14:40

기리묵골, 기레미골에서 유래된 길음동



명 칭 : 길음동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인구현황 (2016.3/4분기 기준)
- 세대수 : 18,716
- 인구수 : 51,583명
(남: 24,942명, 여: 26,641명)
면 적 : 1.37㎢ (2015년 기준)

길음동(吉音洞)의 동명은 기리묵골을 한자로 고쳐 쓴 데서 연유한다. 기리묵골은 의정부 방면에서 혜화문(동소문)을 통과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오는 길목인 미아리 고개의 북쪽에 있는 마을인데 의정부 쪽에서 도성 쪽으로 넘어오는 이 고개는 경사가 완만하고, 정릉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골짜기가 길게 형성되었고, 따라서 골짜기가 길게 놓여 있는 동네라는 뜻으로 기리물골 또는 기레미꼴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또는 이 동명의 유래에 대해서, 비가 많이 오면 지금 길음시장이 있는 길 쪽으로 무릎이 닿을 정도로 물이 많이 차고 길이 질다고 하여 기리미골 ·지리미골(꼴) 등으로 불리다가 길음동이 되었다고 하며, 이 때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길음동은 남쪽으로는 미아리고개를 경계로 하여 돈암1동과, 서쪽으로는 정릉동, 동쪽으로는 장위동·종암동과 이어져 있다. 길음동은 삼태기 모양으로,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이다. 주민들에 의하면 삼태기 모양이기 때문에 물고기(재화)를 모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 그러나 길음동 앞에 개운산(범이 동쪽을 보고 엎드려 있는 형이라 하여 '범개미산'이라 부름)이 범(호랑이)의 모양을 하고 삼태기의 입

성북문화.indb 303 2016-12-11 오후 12:14: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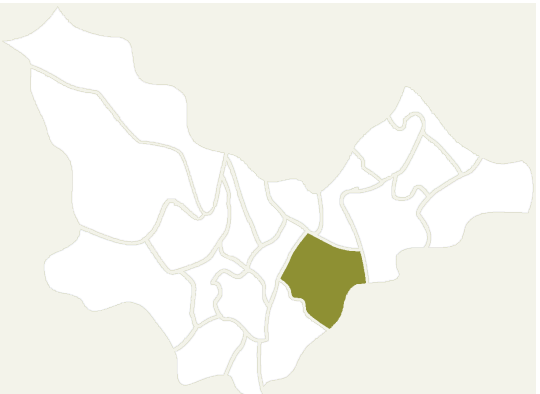
구를 막고 있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없으므로 큰 부자가 나올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주택 건설 등으로 범개미산이 많이 없어져 삼태기 안으로 물고기를 많이 모을 수 있는 형태로 변했다.

1913년 미아리에 공동묘지가 설치되었다. 현재의 길음뉴타운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처음의 면적은 19,944평이었으며, 점차 확대되어 최대 약 69,000평에 이르러 일제 강점기 말에는 '죽은 자들의 수도'도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죽은 자들의 수도는 1950년대 도심지의 개발로 인한 철거민과 6·25전쟁으로 인한 월남 피난민들이 강제이주 되거나 모여들며 산 사람들에게 자리를 빼앗기며, 1950년대 후반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현재 길음동은 길음뉴타운이 들어서며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공동묘지를 거쳐 달동네였던 길음동의 모습은 현재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길음초등학교, 길원초등학교, 미아초등학교, 길음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 많은 교육시설이 위치하여 성북구 교육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성북문화.indb 304 2016-12-11 오후 12:14:42

북처럼 생긴 커다란 바위가 있는 마을에서 유래된 종암동



명 칭 : 종암동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인구현황 (2016.3/4분기 기준)
- 세대수 : 17,091
- 인구수 : 43,626명
(남: 21,401명, 여:22,225명)
면 적 : 1.46㎢ (2015년 기준)

종암동 동명은 고려대학교 뒷산에 북처럼 생긴 커다란 바위가 있는 마을이란 뜻으로 이를 한자로 '종암(鐘岩 또는 鼓岩)'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했다. 또한 '안말'이라

성북문화.indb 305 2016-12-11 오후 12:14:43

고 하는 비교적 부촌이 있었다고 전하며, 경주 김씨와 경주 정씨의 집성촌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해창'이라는 지명도 남아 있는데, 조선 현종의 셋째 딸인 명안공주와 남편인 해창위 오태주의 묘가 있는 데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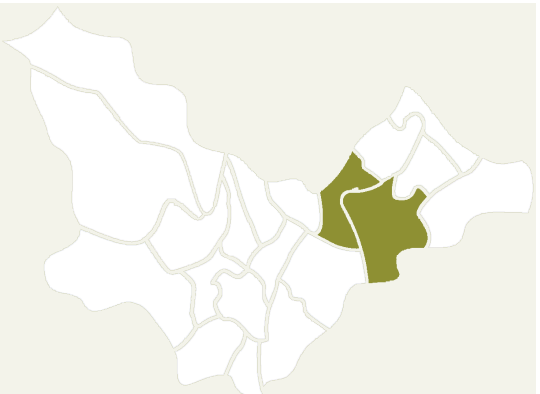
한편 모랫말 또는 모랫골이라는 지명도 남아 있다. 이는 월곡동과 경계가 되는 정릉천의 물이 맑아 빨래터로 사용되었는데 상류에서 내려온 모래가 쌓여 정릉천 주변은 언제나 모래밭 이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곳의 모래는 소금기가 전혀 없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모래여서 하수구관이나 전봇대 등을 만들었다고 한다.

1939년 경성고등상업학교(現 서울대학교 경영대학)가 현재의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속 중·고등학교(이하 서울사대부 중·고)자리로 이전했다. 1943년에는 경성경제전문학교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해방 후인 1946년 8월에는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서울대학교가 관악에 새 캠퍼스를 만들어 각지에 흩어진 단과대학을 묶어 이사할 때 함께 이전하였으며, 현재는 서울사대부중·고가 자리하고 있다.

종암동은 중심을 가로지를 종암로를 중심으로 양분되며 많은 아파트단지들이 새워지면서 주거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다.

성북문화.indb 306 2016-12-11 오후 12:14:43

천장산의 형세가 마치 반달과 같다고 하여 유래된 월곡동



명 칭 : 월곡동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1동
인구현황 (2016.3/4분기 기준)
- 세대수 : 19,520
- 인구수 : 49,726명
(남: 24,271명, 여:25,455명)
면 적 : 2.17㎢ (2015년 기준)

월곡동은 지금의 하월곡동에 있는 천장산의 형세가 마치 반달과 같다고 하여 그 산 근방에 있는 마을을 다릿골이라고 부르는데서 유래했다. 다릿굴 중 위쪽에 있는 곳을 '웃다릿굴',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곳을 '아랫다릿굴'이라 했는데, 이것이 지금의 상월곡동과 하월곡동이 된 것이라고 한다. 다른 유래도 전한다. 조선시대 이 지역에는 주막이 밀집해 있었는데, 지방에서 올라온 소 장수들이 달밤에 이곳에 도착하여 숙박을 하고 아직 달이 채 지지 않은 새벽 무렵에 일어나 소의 가격을 흥정했기에 월곡이라 불렸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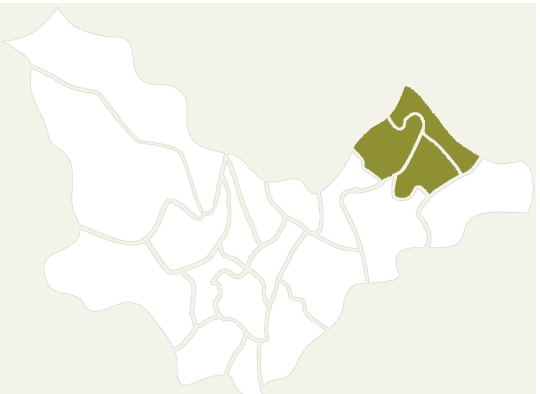
어떤 이야기가 사실이던 간에 이 지명 이야기들은 이 지역 사람들의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다. 월곡동은 서울로 편입된 역사가 짧은 경기도권의 지역이었다. 동대문 밖을 나와 광운대역(옛 성북역)을 거쳐 원산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교통의 요지였다. 주막이 많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게다가 이 근방은 소나무 숲이 수려하여 사람들의 발길이 더 잦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원선 철도의 부설을 시작으로 걸어서 이곳을 지나가며 주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면서 이 지역의 풍경도 바뀌었다.

성북문화.indb 307 2016-12-11 오후 12:14:43

서울로 편입되기 전 상월곡동에 살던 주민들의 주업은 농업이었다. 율곡(밤골), 모래마을, 배나물골은 모두 월곡동지역에 있던 마을 이름으로 당시 이 지역이 농촌 지역이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현재 하월곡동에 해당하는 모래마을 지역은 정릉천에서 내려오는 모래가 이곳에 쌓여 생긴 이름이라고 한다. 하지만 서울로 편입된 후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염색공장, 피혁공장이 들어서고 작은 상가들이 생겨나며 옛 모습은 사라졌다. 한편 1960년대 이후 추진된 재개발로 본격적으로 주택단지가 들어서며 월곡동 지역은 주거지로 자라잡게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다.

성북문화.indb 308 2016-12-11 오후 12:14:44

마을 뒤 장위산이라 불리는 산에서 유래된 장위동



명 칭 : 장위동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인구현황 (2016.3/4분기 기준)
- 세대수 : 23,932
- 인구수 : 57,527명
(남: 28,777명,여: 28,750명)
면 적 : 2.02㎢ (2015년 기준)

장위동의 동명은 조선시대 초기부터 존재했다. 이 때문에 고려시대에 이름 난 선비가 이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는 설이 있으며, 마을 뒤에 있는 장위산

성북문화.indb 309 2016-12-11 오후 12:14:45

에서 비롯한 이름이라는 설도 있다.

장위동은 지역은 웃말, 아래말, 명덕굴, 간대마을, 활량리 등 5개의 자연 촌락이 합쳐진 것으로, 웃말은 이 지역 위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윗마을이란 뜻이다. 아랫말은 이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 아래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간대마을(간대말)은 이 지역 가운데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활량리는 한량리의 와전된 음으로 조선시대 때 이 마을에 술집이 많아 한량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던 데서 비롯된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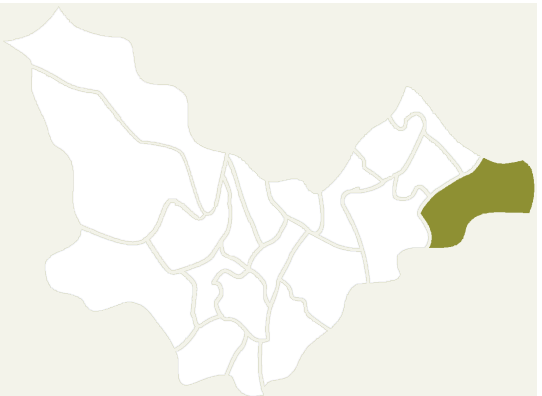
장위동의 주요 산업은 농업이었다. 비교적 최근까지 장위동 사람들 사이에는 '양주밥 먹고 고양굿 한다'는 말이 있었다. 이는 농토는 양주에 두고 고양(장위동)에서 산다는 뜻으로, 농사를 짓고 살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로 벼농사와 조·수수·고추 등 시골에서 흔히 키우는 작물을 재배하여 특산물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다. 장위동 대부분의 땅은 윤판서(윤용구 : 尹容求)와 그 집안의 땅이었는데, 1960년경부터 윤씨가에서 땅을 팔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장위동 주민들은 대부분 석촌(石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즉 윤판서가 남녕재(南寧齋)에 은거해 있을 때 현 장위동 91번지 장호다방 자리에 동구다리가 있었고, 또 현 76번지에는 징검다리가 놓여 있었으며, 남령재 문 밖에 큰 섬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다리는 당시 관직의 고하에 따라 하마(下馬)하는 곳이었다고 한다. 또 장위동 사람을 잡으러 왔을 경우나 죄인이 장위동으로 잠입했을 경우 윤판서의 허락 없이는 체포할 수 없었다 한다. 또 장위동에 대해서도 윤판서는 동명을 반드시 장위(藏位)라고 썼다 한다. 이것도 윤판서가 모든 벼슬을 거절하고 은거했다는 뜻으로서 상통하는 점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윤판서의 아호가 장위(獐位)인 데서 온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장위동이 본격적으로 주택단지로 개발된 것은 동방생명보험회사에서 택지를 조성하여 팔기 시작한 1966년부터로 성북구에서 가장 늦게 주택단지가 들어섰다. 현재 장위동은 재정비 사업으로 노후화된 건물들을 수리·정비하고 있으며, 장위 뉴타운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성북문화.indb 310 2016-12-11 오후 12:14:45

‘돌곶이’ 마을에서 유래된 석관동



명 칭 : 석관동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인구현황 (2016.3/4분기 기준)
- 세대수 : 14,739
- 인구수 : 35,146명
(남: 17,571명, 여: 17,575명)
면 적 : 1.73㎢ (2015년 기준)

석관동(石串洞)의 유래는 마을 동쪽에 위치한 천장산(天藏山)의 한 맥이 검정 돌을 꽂아 놓은 듯, 다시 말해 수수팥떡이나 경단을 곶이에 꿰어 놓은 것 같아 돌곶이 마을이 되었다는 설과 이곳의 지형이 곶이로 되었기에 돌곶이라 하였다는 두 가지 설이 있다.

석관동의 이름이 문헌에 처음 보이는 것은 현종 2년(1661)이다. 조선왕조실록에 “왕이 영릉(寧陵)·건원릉(建元陵)·현릉(顯陵)·목릉(穆陵) 등을 배알하고 돌아오는 길에 석관[石串 : 동교(東郊)의 지명]에 이르러 금군(禁軍)의 활 솜씨를 시험하였다”고 기록한 것이다. 영조 12년(1736)에 ‘석관현(石串峴)’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있고, 영조 23년(1747)에도 지금의 동구릉과 경종의 능(의릉)을 배알하고 돌아오다가 석관현(石串峴)에서 열병한 사실도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 석관동은 장위동과 함께 한성부에 속해 있었으며, 의릉이 조성되면서 사람들이 천장산 쪽으로 집단 이주하여 마을을 이루며 살았다고 한다. 지금은 주택가인 1, 2동은 원래 벌판이었고, 주민들은 이곳에서 벼농사를 주업으로 하면서 살았다고 한다. 또한 물색이 좋아서 산밑은 전곡과 호박이 잘되었다고 전해진다. 1960년

성북문화.indb 311 2016-12-11 오후 12:14:45

이후부터 인구 집중 현상에 따라 농업지대는 점차 사라졌다. 현재 도로 주변에는 상가가 밀집되었으며 그 밖의 지역은 대부분 주택가로 형성되어 있다.

석관동의 현대사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옛 중앙정보부(現 국가정보원)이다. 중앙정보부는 5.16 쿠데타 직후부터 구황실재산사무총국으로부터 의릉 능역 전체를 접수하였으며, 1962년 1월부터는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였다. 1972년 7월부터는 정식으로 관리를 위임받았는데, 이때 의릉의 능역이 크게 훼손되었다. 1960년대 이후 석관동 주변지역은 인구 증가로 인해 주택단지로 크게 개발되었는데, 석관동은 중앙정보부를 중심으로 개발이 제한되기도 했다.

한편 역사적 사건도 일어났다. 1974년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곳도 바로 석관동에 위치한 중앙정보부 강당이었다(2016년 현재 중앙정보부 건물은 사라졌지만 강당건물은 남아 있다). 1995년 9월 안기부(옛 중앙정보부)가 내곡동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의릉은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으며, 중앙정보부 건물 자리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설립되어 민간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성북문화.indb 312 2016-12-11 오후 12:14:46

성북문화원 20년,

앞으로도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성북문화원 임직원 일동 -